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6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04호 2016년 7월 6일 수요일

내부 갈등엔 안보이는 화쟁위 중재 권한 없이 외연만 확장

4기 활동 앞둔 조계종 화쟁위원회 과제는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가 2년 간의 3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7월 19일 4기 활동에 돌입한다. 불교계 내 갈등상황에 대한 화쟁위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3기 화쟁위원을 맡았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특히 조계종 내부 문제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중공사라는 협의체를 통해 각종 사안을 해결코자하고 있지만 종단에서 무시될 수 있다.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화쟁위원회의 기능이 정작 불교계에서는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 내 갈등중재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화쟁위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상황에서 중재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한진중공업 파업사태를 비롯해 쌍용차 노사문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철도노조 파업 등에 신속하게 중재자로 나섰다. 특히 2012년 쌍용차 노조 파업 당시에는 범종교인 원탁회의까지 구성했으며, 2013년 철도노조의 중재 요청에는 이틀 만에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화쟁위원회 회의실서 만나는 장면은 화쟁위 위상을 세상에 알린 계기이기도 했다. 이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조계사 체류로 진보 · 보수 양측에게 비난을 당하는 등 제반여건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반면 불교계 내부 문제에는 화쟁위 역할이 국한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처음 화쟁위가 구성된 계기인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갈등문제를 비롯해 용주사 주지 임명을 둔 갈등, 동국대 총장 선출에 대한 갈등 상황에서도 조정이 결렬됐다. 동국대 사태에서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긴 했지만 결국 양측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화쟁의 이상은 높았으나 불교계 현실은 차가웠다.

이에 대해 유지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불교계 내 갈등 중재 프로세스가 전무했기 때문"이라며 "화쟁위 권한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종단도 화쟁위원회를 진심으로 받아 안고 있는 것인지, 혹은 하나의 부서로 취급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조계종 화쟁위 주요 활동 내역

2010년 4대강 사업 국민논의 유도
2011년 종교평화선언 초안 작성
2012년 쌍용차 사태 수습 및 중재
2013년 철도노조 파업 중재
2016년 민주노총 사태 중재

2010년 봉은사 직영사찰 중재 실패
2015년 용주사 갈등 · 동국대 사태 해법 모색
2016년 선학원 원탁회의 구성 실패

한상균 사태 · KTX 노조 갈등 중재
용주사 등 불교계 갈등서는 '한계'
"불교 내 역량 역부족" 주장 높아

법령 개정 추진… 위원 21명 확대
"실질역할 위해 중재권한 부여"
독립성 · 중립 인사 영입 주장도

4기 앞두고 운영령 개정, 하지만…

조계종은 화쟁위 4기 활동을 앞두고 6월 28일 '화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이분화돼 있던 '화쟁위원'과 '기획위원' 체제를 '화쟁위원'으로 통합해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화쟁위원도 15인에서 21인으로 늘린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개편만으로 불교계 내 갈등 조정역량이 커질 것이라 보는 이는 드물다. 개정안에도 화쟁위 역할은 세미나 ·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연구의뢰 등으로 국한돼있다.

박재현 화쟁문화아카데미 상임운영위원은 "화쟁은 단순히 대화가 아닌 중재 이후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라며 "종단 내 중재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여기에 객관성을 갖기 위해 화쟁위원회를 종단에서 독립시키고, 과감히 중립 외부인사를 도입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화쟁위는 해종언론 갈등 해결을 위한 집담회 개최를 위해 7월 1일 관계단체 회의를 갖는 등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정웅기 사부대중위원회 총괄처장은 "매우 민감한 현안에 대해 화쟁적으로 명쾌하게 풀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갈등이 권위나 권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서로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해결되기에 의식과 풍토를 바꿔나가는 과정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릴레이'로 동참해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기금 마련을 위한 릴레이 모연이 시작됐다. 조계종은 6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불사 모연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스님이 전화 등을 통해 신도들에게 모연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신도들이 다른 신도들에게 취지를 홍보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왼쪽서 네 번째)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 스님들이 모연등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용성 스님 설립 '화과원' 사적 지정 가속화

함양군, 12월까지 연구 후 문화재청과 지정 협의 진행

국내 유일 독립자금 조달 농장 선농일치 구현… 불교적 의미도


용성 스님이 설립한 독립자금 조달 농장 '화과원' 법당 전경. 2005년 복원됐다.

상해임시정부 독립운동 자금처 역할을 한 경남 함양군 백전면 백운산 '화과원(華果院)'의 국가사적 지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지정 추진이 되는 화과원은 백운산 8부 능선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3 · 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 33인 중 한 분인 백용성 스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어서 불교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백용성 스님이 선수행과 생산 활동을 병행해 나간다는 선농일치 불교사상을 실천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고자 1927년 창건한 농장이다.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용성 스님은 선농불교를 주창하면서 일제 탄압을 피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려고 임야와 황무지 300여 정보(90여만 평)를 매입, 농장을 일궜다. 용성 스님은 화과원서 배나무, 감나무, 밤나무, 감자 등을 재배해 판매한 수익금과 도자기를 구워 판매한 수익금을 군산항을 통해 중국 상해와 용정 등지에 독립자금으로 보냈다. 안타깝게도 화과원은 한국전쟁 때 전소해 방치되다 다행히 1991년 정혜원(백용성 선사 손상좌) 스님이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관리돼왔다. 함양군의 지원을 받아 혜원 스님이 2005년 복원한 법당인 봉류대는 2000년 8월 31일 경남도 기념물 제229호로 지정받아 관리되고 있다.

해당지자체인 함양군은 경남도 지원을 받아 사업비 6천만 원을 들여 6월~12월까지 6개월간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기본연구용역'과 '도자기를 굽던 도요지터 발굴조사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오는 12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을 방문, 국가사적 지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독립자금을 마련한 농장인 화과원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조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국가사적지로 추진하겠다"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백용성 스님의 업적과 역사적 교훈을 후손에게 전하는 교육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4일 창원 아리랑 호텔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전국 각계각층 100여 명은 함양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창립총회(위원장 진종삼 前 경상남도의회 의장)를 열었다. 김주일 기자

1104호 INDEX

시방세계 5
'살아있는 역사'
혜성대종사 화보집 발간



산문 밖의 禪 14 · 15
중요 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현 자수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1995년 창립 사단법인으로써 한국불교는 물론 세계불교 발전을 위하여 종단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면서 회원종단 행사는 물론 애경사시 종정스님 전원이 동참하여 법석을 장엄하게 하며 화환 및 조화를 모두 보내주고 특히 회원(종정)열반시 100만원 상당의 조의금과 회원(종정) 전원이 동참하며 조화를 모두 보내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한국불교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미가입 종단 종정스님께서는 본회에 가입하시면 고맙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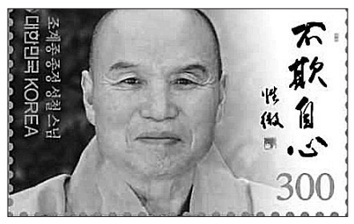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원 (현재)

고문 : 석무찰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3세종정
원로의원 :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해인종 종정
석법광 대종사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석석봉 대종사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석덕산 대종사 대한불교천지종 종정
석혜경 대종사 한국불교아함종 종정
석지공 대종사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명예회장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정토종 (전)종정
명예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회장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종정
수석부회장 : 석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부회장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종 종정
회원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조계종 종정
회원 : 석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 미륵대종 종정
회원 : 석강암 대종사 한국불교임제종 종정
회원 : 석혜륜 대종사 (사)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현불 대종사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만청 대종사 (사)대한불교대각종 종정
회원 : 석법운 대종사 (사)대한불교선교종 종정
회원 : 송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회원 : 석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회원 : 석해월 대종사 대한불교백두종 종정
회원 : 석도우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종정
회원 : 석연봉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회원 : 석정일 대종사 근본불교해동종 종정
회원 : 석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회원 : 석운조 대종사 세계불교천지종 종정
회원 : 석성진 대종사 한국생활불교지장종 종정
회원 : 석일월 대종사 한국불교지장종 종정

(사) 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현재)

이 사 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상임이사 : 석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대응 대종사 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지산 대종사 (사)한국불교정토종 종정
이사 : 석정암 대종사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혜지 대종사 (사)대한불교해인종 종정
이사 : 석혜봉 대종사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이사 : 석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이사 : 석룡담 대종사 대한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석청운 대종사 (사)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석진공 대종사 대한불교광명조계종 종정
이사 : 송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이사 : 석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이사 : 석해월 대종사 대한불교백두종 종정
이사 : 석도우 대종사 대한불교반야선종 종정
이사 : 석일월 대종사 대한불교지장종 종정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
기획실장 : 건진 전성배
사무국장 : 상광 배영희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가맨션 2층 216-1호 전화 : (042) 285 -1227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1227 팩스 : 774-1487



성철 스님 기리는 우표 나왔다

현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성철 스님을 기리는 우표가 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는 현대 한국 인물시리즈 네 번째 우표로 종교인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을 6월 27일 발행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총 140만 장(성철 스님 70만장, 김수환 추기경 70만장으로 전지 각각 구성)으로, 두 종교인의 생전 모습과 함께 성철 스님의 '불기자심(不欺自心,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말라)', 김수환 추기경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는 친필을 문구로 담았다.

김기덕 우정사업본부장은 "성철 스님·김수환 추기경 우표발행을 계기로, 나눔과 봉사,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황금기 이젠 없다"… 신행결사로 결속력 다지는 대불청

대불청 창립 100주년 앞서 내부성찰
"대사회적 가치 도출해 대중 신뢰 얻어야"

4년 앞 다가온 100주년
임원연수서 결사방향 논의
비전 갖춰 외부자원 접근
발전기금 모연 확대 기대

CMS 매월 약 200만원, 2년간 6000만원 모연, 최종 목표액 53억 원. 창립 100주년을 4년 앞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 황금기와 같은 전폭적인 후원을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운 요즘, 대불청이 신행결사를 통한 내부조직 결속력 강화와 조직에 걸맞은 사회적 가치 발굴에 고심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불청은 지난 2013년 제32차 전국불교청년대회에서 100주년 기념사업과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공의를 모았다. 이듬해 1월에는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구성을 결의, 6월에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기념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사료수집 △영상취재 △100주년 기념행사 △신행 △발전기금 모금 △심우장 성역화 추진 △사회공헌재단 설립 추진 △국제교류 등 총 8개 분과에 분과장을 비롯해 활동력이 높은 위원들을 배치했다.

2년여가 흐른 지금, 우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사료수집·영상취재·발전기금·신행결사 등 4가지다. 이 중 사료수집과 영상취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수집의 경우 전국 각 지구별로 주요 활동자료를 정리하고, 유고인 주요인사에 대해서는 유족과 접촉해 보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영상취재는 대불청 역대 주요인사를 만나 대담하는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담장소 역시 백담사·만해마을·다솔사·선학원·심우장 등 대불청과 인연이 깊은 곳을 섭외 중이다.

반면 발전기금과 신행결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다가 확고한 가치가 설정되지 않을 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대불청은 우선 불자로서 지켜야할 꾸준한 정진으로 결속력을 높인 뒤 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인 의미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선결과제가 해결됐을 때 조직 외부로부터 자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지금까지는 대불청 내부자원을 활용해 기금을 마련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외부자원을 끌어오려면 그만큼 울림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대불청은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회장은 이어 "2013년 당시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첫 논의가 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아직 7년이나 남았네'였다. 하지만 4년 남은 지금도 관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며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신행정진을 하고, 철저히 성찰해 조직 내외부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불청은 7월 16~17일 열리는 임원연수에서 현 상황을 돌아보고, 구체적인 신행결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행결사의 틀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다. 청(淸)·건(健)·진(眞)을 바탕으로 매일 108배·독경·참선·염불 등 스스로 정한 수행을 실시한 뒤 홈페이지에 공유하거나 선행·보시하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고 그간의 정진과정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자리도 준비 중이다.

전 회장은 "1998년도 사단법인이 되면서 공익사업 등을 전개해왔지만 다른 단체들처럼 사회적 아젠다(agenda)에 맞춘 활동은 부족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도출해 내년쯤 비전선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은 뒤 만해청년통일센터 등과 같은 산하기구를 조직해 정체성이 뚜렷한 사회활동에 나서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대불청은 신행결사에 이은 대사회적 가치 도출 이후 모연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100주년에 맞춰 대불청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썬 불투명하다. 회관건립기금으로 모연된 금액은 현재 약 1억5000만원. 별도의 공간을 갖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근래 들어 모금액 추세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다.

전 회장은 "100주년 발전기금이 많이 모이면 일정부분은 회관이나 전용공간 마련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며 "꼭 회관이 아니더라도 만해사상을 펼칠 수 있는 교육시설은 필요하다. 앞으로 비전을 갖고 적극적인 모연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20년 6월 20일, 일제강점기에 '불교유신과 조국광복'이라는 기치 아래 만해 한용운 스님을 주축으로 창립한 조선불교청년회(현 대불청). 오랜 역사에 비해 변변한 회관조차 없이 '만해정신'을 바탕으로 청년불자들을 아우르는 데 힘쓰고 있는 청년불교운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7월 6일 제67차 포교종책연찬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7월 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현시대의 불교 신행 운동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67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세계종교 흐름 속에서 현대종교가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한국불교 신행문화와 운동 진단,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출범한 7대 포교원의 신행운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의미도 담겼다.

연찬회에서는 △세계종교의 흐름과 현 주소(오강남 리자이나대 명예교수) △현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현황과 지향(조성택 고려대 교수) △별원 이후 포교원의 성과와 과제(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 등의 글이 발표된다. 아울러 토론자로 명법·법인·주석·남전 스님과 손석춘 건국대 교수,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포교원 측은 "한국불교 신행운동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새로운 포교의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아! 부모님, 극락왕생하소서" 서울 조계사는 6월 30일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겸한 연꽃축제를 개막했다. 사진은 조계사 극락전 앞에서 백중 연꽃축제 입재식을 바라보는 불자들의 모습이다. 백중은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로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들의 영가 천도를 위한 공양과 함께 은혜와 효 사상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사회와 승가상' 교육원, 7일 세미나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상을 정립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현대사회와 승가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역사속의 승가상은 무엇인가'를, 교육위원 허정 스님이 '미래 지향적인 승가상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 원장), 원철 스님(교육위원회 위원,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오인 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중앙승가대 교수),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교육원은 "현대사회 흐름속에서 바람직한 승가(출가)의 역할과 현대사회는 어떤 출가자를 요구하는지 점검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걸음마다 연꽃, 잔잔한 물소리로다"

은해사 포산당 혜인대종사 영결식 및 다비식 6월 27일 엄수

은해사 조실 포산당 혜인 대종사의 영결식 및 다비식이 6월 27일 조계종 은해사 제10교구장으로 엄수됐다.

종각 5타 명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은해사 불교합창단·선화여고 합창단·3사관군악대의 합창, 반야심경 봉독, 문도대표 덕조 스님의 헌다 및 헌향 등이 진행됐다. 영결식장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정념 스님, 제10교구장 돈관 스님, 문도대표 덕조 스님, 강창일 국회 정각회장 등 사부대중 3,000여명이 모여 혜인 대종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다.

설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혜인 선사가 팔공산문을 활짝 열어 제치니 걸음마다 연꽃이요,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더라. 녹음을 스치는 맑은 바람이요, 맑은 하늘에 밝은 달이로다"라며 혜인 대종사를 기렸다.

이어 스님의 운구는 다비장인 연화대로 이운됐다. 법구에 불길이 닿자 곳곳에선 스님을 배웅하는 울먹임이 들려왔다.

한 평생 수행과 포교에 오롯이 매진했던 혜인 스님은 6월 23일 밤 "지옥 천당을 건설하고 혹 쳐부수기도 하면서 당당히 대우주의 주인공이 되나니.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의주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란 임종게를 남기고 세수 75세, 법납 62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재) 한국불교여래종 연화당 인왕 대승정 49제 및 공양탑 제막식 봉행



연화당 인왕 큰스님
사리 친견 기도 중 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대중포교와 나눔과 자비실천을 몸소 행하신
인왕 대종사님의 49제 법요식 및 공양탑 제막식을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뜻 깊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❶ 일 시 : 2016년 7월 15일 (음,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❷ 장 소 : 성남 남한산성 약사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산7)
❸ 문 의 : 남한산성 약사사 (031-734-3205 / 010-3539-4692)
❹ 큰스님과 인연이 있는 사부대중께서는 49재 참석 여부를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재)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전 종도 합장

“국보 78호 반가사유상, 백제서 제작됐다”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그간 제작 국적에 대한 학설이 분분했다.

김리나 명예교수, 國博〈미술자료〉89호서 주장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한일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에서 선보여진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이 백제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서 발간하는 학술지 〈미술자료〉 89호에서 “국보제78호 반가사유상의 국적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해답이 없으나, 조심스럽게 백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양식적 특성상 신라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왔지만,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국적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제작설이 분분했다.

김 교수는 게재 논문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변주’에서 78호 반가사유상의 일월식 보관·천의 모습·장신구 문양 양식 등을 근거로 백제 제작을 추정했다.

김 교수는 “78호 반가사유상이 쓰고 있는 일월식 보관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봉보주보살상에서 확인되며, 백제에서 전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가노현 간소인(觀松院)의 일본 초기 반가사유상에서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반가사유상의 천의가 몸 뒤에서 길게 ‘U자형’으로 늘어진 모습도 서산 마애불의 봉보주보살상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83호는 신라, 78호는 분불명해

일월식 보관, 백제 불상서 확인

천의도 백제 봉보주보살과 비슷

백제 전래 日불상서 유사점 발견

반가상展 도록 논고서도 밝혀

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도록에 수록된 논고에서도 밝히고 있다. 특히 장신구 문양에 대해서는 “78호 반가사유상의 끝이 뾰족한 목걸이와 여러 개의 네모난 구획에서 동그란 장식문양에 채워져 있다”고 설명하며 “백제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간소인 반가상과 니가타현 세키야마 신사(關山神社)의 금동봉보주보살입상의 목걸이에서도 비슷한 양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8호 반가사유상과 유사한 형식의 목걸이 표현은 백제계 보살상의 특징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며 “78호 반가사유상이 보이는 여러 공통된 요소가 백제계 소형 불상에서 보이는 것은 같은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이 백제에 있었고, 이를 모델로 해 크고 작은 비슷한 유형의 불상들이 제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89호에는 피아브란카치오의 ‘견불(見佛)-인도아대륙의 초기 불교 조상’, 하마다 타마미(濱田瑞美)의 ‘중국 서위(西魏)·북주(北周)의 불교조각-여래상의 양식 변용에 대하여’, 샤오구이톈(肖貴田)의 ‘백도불(白陶佛)과 탈불(脫佛)에 대한 고찰’, 허리쥔(何利群)의 ‘동위(東魏)·북제(北齊)시기 업성(鄴城)의 불교조각’, 민병찬의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 방법 연구-국보 78,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신도회 2016연등회 정진상 수상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29일 총 21개 단체에 대해 정진상, 보현상, 원력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 신도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정진상을 수상했으며, 수국사 신도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보현상을, 관음종 108봉사단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가 대표로 상을 받은 서인숙 한마음선원 수석부회장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계, 노동자 심리치유 위해 나서다

사회노동위 등, 7월 1일 ‘통통톡 네트워크’ 출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등은 7월 1일 오후 5시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교육원서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通)통(統)톡(talk)’ 출범식을 열었다. ‘통통톡’은 비정규·해고·징계·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조직이다.

상담은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1:1 개인 심리상담과 소그룹 집단상담, 성격·우울·심층심리 등 심리검사, 찾아가는 치유활동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자들은 통통톡 카페(cafe.daum.net/tongtongtalk) 또는 전화 및 문자(010-9590-2767)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 내용에 따라 상담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한다. 해고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그 외엔 유료다.

통통톡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길목협동조합 심심, 마음의 숲 치유센터, 민주노총 교육원 등이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종교 갈등 해소… KCRP 큰 성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영주, KCRP)는 6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7대 종단 대표자들은 종교간 화합과 사회발전을 염원하는 글귀를 적어 ‘약속의 나무’에 매달았으며, 이어 축하 떡 케이크 컷팅식이 진행됐다. 불교계에선 KCRP 공동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정문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김영주 KCRP 대표회장,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공동회장들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안기석·이상효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이 자리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종단 대표자들이 축하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제28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이 불교발전을 위해 전법활동에 매진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포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6월 28일 공고했다.

추천분야는 계층·직능·문화체육·사회·매체·지역 등이다. 추천대상은 △종단소속 사찰 및 재가불자로 5년이상 당해 공적분야에서 활동한 자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는 종단등록 및 설립경과 5년 이상 △종단신도등록을 필한 자 △대상(종정상) 후보자는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 등이다.

추천권은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에게 있으며,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추천서와 공적서, 이력서 등을 8월 26일까지 포교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시상일 2주 전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중 열린다. (02)720-7065 **윤호섭 기자**

“아픈 통증은 잠시 사찰서 내려 놓으세요”

육지장사, 어르신 무료진료

동국대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양주 육지장사는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6월 29일 경내에서 무료 진료행사를 펼쳤다.

“아이구 시원해, 절에 오니까 쑥찜질도 해주고 좋네유. 마음도 편안해 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 절에 자주 와야 겠어유. 스님들은 물론 부처님께도 감사드려요.”

6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지장사(회주 지원) 마당에는 무료진료 천막이 마련됐다. 잠시 후 버스서 내린 100여 어르신들이 천막안으로 들어가 혈압과 혈당 등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한 뒤 1층 식당에 임시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한방 진료를 받았다.

동국대 한방병원서 나온 한의사와 간호사, 본과 학생 10여명이 맥박을 짚으며 진료했다. 육지장사는 양주지역의 소외된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 무료 진료를 열었다.

진료와 치료를 함께 받은 김정자 어르신(78)은 “나이가 들다보니 무릎 관절이 안좋아 계단을 올라갈 때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뜸도 하고 찜질도 하니까 훨씬 몸이 가벼워 졌다”며 즐거워 했다. 무료 진료 행사에 참가한 김기흔 학생(동국대 한의예과 4년)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잠시나마 통증을 잊게 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다”고 흐뭇해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회주 지원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건강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운영해 온 육지장사는 그동안 매년 1회씩 어르신들을 초청해 무료진료 행사도 함께 펼쳐 왔다”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사찰에 와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요사채 2층에 마련된 찜질방서 좌욕 찜질 등 건강을 테마로 한 힐링 체험 행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주1~2회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건강인 만큼 수려한 자연과 맑은 공기, 주변이 숲에 둘러싸인 육지장사를 잘 활용해 상시로 건강 템플스테이와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 육지장사는 동국대 이사인 지원 스님이 회주로 있는 전법도량으로 단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주=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템플스테이

2017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 심사일정 안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	예비운영사찰 운영기간	운영사찰 정식지정
2016년 8월	2016년 9월	2016년 9월	2017년 1월~12월	2018년 3월
예비운영 사찰 지정 신청서 심사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	선정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예비운영사찰 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평가를 거쳐 운영사찰 최종 결정 (경상보조금 지원 시작)

※ 위의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후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한해 경상보조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목표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예비운영사찰 지정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제출서류
2차 현장실사	제출서류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3차 면접심사	책임자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평가	면접심사 심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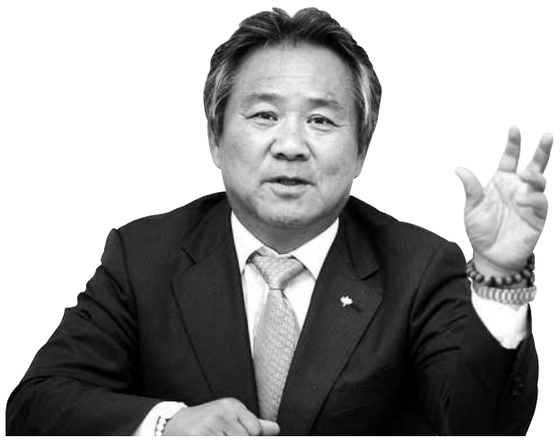
●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 8월 7일(일)까지
···▸제출서류 : ① 2017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파일 및 원본제출
① 파일제출 : 이메일 cycle713@templestay.com로 제출
② 원본제출 : 방문 혹은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이미란 대리
···▸서류심사 결과발표 : 개별연락(전화, 이메일)

※ **신청서 내 붙임 첨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서류심사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대리 이미란
02)2031-2046 / cycle713@templestay.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성효



“300개 末寺 목소리 종단에 전하겠다”

Interview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연임한 이기흥 회장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8곳의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각 사찰에서 스님과 신도회의 얘기를 빠짐없이 정리한 노트만 5권입니다. 앞으로 총 300개 말사 목소리를 모아 백서를 발간하고, 종단에 한국불교 풀뿌리 의견을 전할 것입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 위〉의 연임이 결정됐다. 이 회장은 6월 30일 열린 대의원총회서 제26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그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이 전국사찰을 돌며 감동받은 것은 공양주는 없어도 신도회는 여법하게 조직돼 있다는 점이다. 가는 곳마다 스님과 신도회는 반갑게 맞아주고, 운영상 어려운 점과 종단 발전에 대한 의견을 스스럼없이 털어놨다. 강행군으로 지칠법한 그에게 말사 의견은 감로수 같았다.

“목표한 사찰 중 거의 절반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불교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말사 신도회라는 걸 느꼈습니다. 98%의 사찰이 신도회가 구성돼 있었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역량결집에 100% 공감했습니다.”

이 회장은 8월 12일까지 나머지 160여개 사찰을 전부 순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루에 3~4개 사찰을 다녀야할 정도로 빡빡한 일정이다. 이를 통해 말사 의견을 백서로 발간, 불교발전을 위해 종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는 전국 모든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공간을 만들어 소통에 나설 것을 밝혔다.

“행복바라미 SNS통신원이 1300명입니다. 웹진회원 또한 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가진 능력을 온라인공간에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해 많은 불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불자가 글을 쓰면 불자변호사들이 자문해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창구를 만들 겁니다.”

이 회장이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공간을 계획한 것은 역량결집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재정자립 또한 큰 부분으로 작용한다. 그는 온라인공간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뒤 광고 · 홍보 마케팅 등을 실시하면 중앙신도회 재정자립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앙신도회는 회장 개인 역량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누구든 신도회장으로서 포부를 펼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지난 4년간 이어온 행복바라미를 개신교계의 ‘자선냄비’처럼 브랜드화 하겠다고 다짐했다. 불교가 대사회구호에 앞장서고 이웃과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다. 그는 이를 위해 행복바라미 모금함을 300개 말사에 설치하고,

말사 의견 모아 백서 발간
불자위한 온라인 공간 마련
행복바라미 ‘브랜드화’ 도

1년간 모금한 뒤 개봉해 지역 저소득층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복바라미의 모금 기본 취지는 지역에서 모연한 기금을 지역에 회향하는 것입니다. 사찰에서 1년간 모금한 뒤 신도들과 함께 개봉해 주위의 이웃을 돕는다면 그 자체가 무한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스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 반성과 함께 자긍심 고취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찰에서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회장은 현재 개별적으로 각 말사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눔을 행복바라미와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다. ‘행복바라미 ○○사장학금’과 같이 전국 불자들의 역량결집을 도모해 불교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다. 각 말사의 실적을 중앙신도회 공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교의 가장 큰 문제가 각자도생”이라고 못 박은 뒤 “결코 그럴 일은 없다. 불교와 행복바라미를 연결시켜 전국민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300개 말사 순례를 마치고, 8월 20~21일 대전 인근에서 각 교구본사 및 말사 신도회 임원들을 모아 대규모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서 재가불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자로서의 자세를 다지는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한편 취임식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연임하는 사람에게 취임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새로 구성되는 회장단과 등산이나 한번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종정協, 제2회 호국영령위령대재

6월 26일 호국연무사서… 5000여 장병 동참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이사장 월인, 대한불교승가종정)는 6월 26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제2회 호국영령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5000여 장병들이 동참했으며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범패, 바라, 살풀이 등 불교의식이 진행됐다.

종정협의회에서는 2년 전 제1회 호국영령 위령 천도재를 봉행한 바 있다. 종정협의회는 향후 6월에 위령재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이취임식

6월 25일 울산 남천암에서… 200여 명 참석



대한불교선종은 6월 25일 울산 남천암에서 ‘3 · 4대 총무원장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이취임식에는 종정 효담 스님을 비롯한 종단스님들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총무원장 무초 스님은 취임사에서 종단발전의 초석을 닦은 전임 총무원장 정관 스님의 업적에 감사를 표한 뒤 “사회봉사와 대중포교로 종단발전에 나서고, 참신한 인재를 양성해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거짓의 시대, 만해 향기 그리워라”

선학원, 만해 스님 72주기 추모다례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은 6월 29일 서울 AW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서 ‘거짓의 시대, 만해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만해 스님 7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오른쪽〉

이 자리에는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한 선학원 스님들과 영담 스님, 정세균 국회의장, 한영숙 여사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만해 스님의 고귀한 뜻이 이 시대에도 영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며 “선학원도 만해 스님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어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추모사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서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다”면서 “하지만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신 원생보살 사상을 되살려 실천한다면 오늘의 총체적 난국은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후에는 ‘2016 만해 한용운 추모 전국 청소년 문예전 시상식’과 추모공연 등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구성훈(장충고 1) · 이강(중앙고 2) 학생이 각각 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설 ‘총성’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4명과 우수상 4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호섭 기자

굿월드자선은행, 필리핀 교육지원

6월 29일, 데이케어센터 제3회 입학식 개최

국제구호단체 굿월드자선은행(이사장 양종현)은 6월 29일 필리핀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사우스빌 쓰레기 마을의 ‘굿월드 스테판 데이케어센터’와 까비떼주 망가한시 제너럴 트리판자촌 마을의 ‘굿월드 지나 데이케어센터’에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제3회 입학식을 개최했다.〈사진 오른쪽〉

이번 입학식에는 각각 180명과 35명의 신입 원아들이 입학했다. 입학식에는 양종헌 이사장을 비롯해 최선일 이사, 남정심, 송기출, 손은주 등 15명의 한국 측 인사들과 파티마 산페드로시 교육국장, 학부형 등이 참석했다.

양종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굿월드는 필리핀 어린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입학식에서 최선일 이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자문위원)는 어린이들



에게 책가방 210개를 비롯한 교복과 색연필, 문구 등을 후원했다. 1666-9579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동행-포교사단, 기부 활성화 나서

6월 27일 MOU… “나눔활동 함께”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윤기중)과 6월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108day’ 및 쪽방촌 연탄지원봉사 ‘아이연탄맨’ 등 함께할 예정이다.

박아름 기자

銀海寺 祖室 包山堂 慧印大宗師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大韓佛教曹溪宗 第10教區 本寺 銀海寺 祖室이시며 濟州 藥泉寺 會主이신

包山堂 慧印大宗師께서 世緣이 다 하시어 6월 27일 永訣-茶毘式을 大韓佛教曹溪宗 第 10教區本寺 銀海寺 教區葬으로 嚴肅히 봉행하였습니다.

遠路에 찾아와 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 주신 宗團의 元老 大德 스님들과 제방의 스님을 비롯한 四部大衆께 感謝의 禮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우선 紙面으로 인사 올림을 惠諒하여 주시기 바라며 韓國佛教의 中興을 위해 獻身하신 큰 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더욱 修行 精進하겠습니다.

불기 2560년 6월 29일

49재 안내(매주 수요일)

초재 : 6월 29일-제주 약천사
2 재 : 7월 6일-경주 불굴사
3 재 : 7월 13일-제주 약천사
4 재 : 7월 20일-제주 약천사
5 재 : 7월 27일-충주 석종사
6 재 : 8월 3일-제주 약천사
막재 : 8월 10일-영천 은해사

問議 및 連絡處 : 銀海寺 ☎ 054.335.3318
藥泉寺 ☎ 064.738.5000

大韓佛教曹溪宗 第10教區本寺
銀海寺 祖室 包山堂 慧印大宗師 葬儀委員會 委員長 雲谷 頓觀 合掌

包山門徒代表 德照 九拜

수행자의 공심·원력 인생서 한국불교 현대사를 만나다

‘살아있는 역사’ 진불장 혜성대종사 화보집 발간


2016년 4월 20일 동화사에서 열린 대종사 품서식에서 대종사를 상징하는 불자를 봉청받는 혜성 스님.

거침없이 흐르는 역사라는 물줄기에서 개인의 삶은 아주 작은 일편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이 시대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시대사를 관통하는 인물을 우리는 ‘위인(偉人)’이라고 말한다.

올해 4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진불당 혜성대종사(이하 혜성 스님)는 현대 한국불교의 위인으로 꼽을 수 있는 원로 수행자 중 한 명이다.

혜성 스님은 1956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불교정화운동에 참여했고, 총무원 재정국장 · 사회부장 ·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1974년 팽성중학교를 인수해 학교법인 청담학원을 설립했고, 중앙승가대학교가 김포로 이전하고 4년제 대학으로 인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교 인재 양성에도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1970년대 아직 불교 사회복지가 뿌리내리기 전 김기용 보살이 운영하던 보육원을 인수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보육원)으로 발전시킨 것도 혜성 스님이 보여준 원력의 산물 중 하나다.

스님의 일생에 아픔이 없던 것도 아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10.27 법난’으로 고문과 폭행, 도선사 주지 직에서 강제 퇴임되는 등 온갖 고초를 겪었다. 하지만, 법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고문 후유증을 이겨내며 스님은 인재불사 · 불교사회복지 등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 중이다.

서울 성북구 도선사(주지 도서)와 진불당 혜성대종사 문도회가 발간한 〈화보로 본 진불장 혜성대종사- 인생 80년, 수행 60년〉은 이 같은 혜성 스님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보집이다.

화보집은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폐이지 수만 600페이지에 달하고 삽입된 사진만 500여 장이 넘는다.

책의 구성은 △모서 △출가 △정진 △공심 △인재불사 △자비원력 △보현행원 △삼각산 △바라밀 등 총 9개 챕터로 이뤄져 있다. 사진과 더불어 관련 설명, 혜성 스님과 깊은 인연을 맺었던 불교 안팎 인사들의 회고담도 눈길을 끈다.

‘모서’는 스님의 출가 전 유년과 초 · 중 · 고등학교 시절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겼다. ‘출가’는 고교 졸업 후 상경 · 출가해 은사 청담 스님을 시봉하며 수행한 모습을, ‘정진’은 동국대 불교학부(석 · 박사 포함)와 실달승가학원, 도선사 삼각선원에서 정진한 사연과 사진을 게재했다.



혜성대종사 ‘傘壽’ 맞아 출간
600페이지 · 500여 사진 통해
출가 · 정진 · 현재까지 담아

수행자 개인적 자서전 넘어서
조계종 · 도선사 역사 아는 사료
‘종단 발전 기원’ 원로 公心 감동

‘공심’에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재정국장과 중앙종회의원 등 공직을 맡았을 당시의 모습을, ‘인재불사’는 청담중고등학교 설립과 중앙승가대학장 역임했던 과정을, ‘자비원력’에는 1970년대 혜명보육원을 인수해 불교 사회복지활동에 초석을 놓은 사연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현행원’에는 세계 각국 불교와의 교류에 얽힌 사연과 대사회 활동상을, ‘삼각산’은 작은 암자에 불과했던 도선암을 현재의 도선사 사격으로 발전시켰던 과정으로 챕터를 구성했다.

마지막 챕터인 ‘바라밀’은 1980년 벌어진 ‘10.27법난’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이야기와 1988년 강영훈 국무총리의 사과 담화를 비롯해 스님의 대종사 법계 품서와 현재 생활상을 담았다.

혜성 스님의 화보집 발간은 2014년 6월 문도들이 “스님의 일대기를 조명할 수 있는 책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면서 시작했다. 문도와 재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간행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간행위원장으로는 도현 스님(하와이 무량사 주지) · 도호 스님(호국 지장사 주지) · 도서 스님(서울 도선사 주지)이, 편집위원장은 도권 스님(도선사 교무국장)이 맡았다.

편집위원회는 2년 동안 스님의 사진 자료를 수집했고, 각계 인사 인터뷰 및 편집 작업에 들어갔다. 수집한 사진만 2000여 장이 넘었고, 이를 일일이 선별해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는 지난한 작업을 거쳤다.

편집위원장 도권 스님은 “올해 1월이 돼서야 구체적인 편집 방향이 정해졌다. 스님의 일대기를 잘 정리하고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 편집위원들이 2박 3일 밤을 새워가며 토론하기도 했다”면서 “당신의 화보집을 나와서 스님께 보였더니 ‘빙그레’ 웃으시기만 하셨다”고 말했다.

도선사와 문도회가 발간한 〈화보로 본 진불장 혜성대종사- 인생 80년, 수행 60년〉은 수행자 개인의 이력 정리를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의 일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인 의미도 강하다.

실제, 혜성 스님이 보여준 삶의 스펙트럼은 곧 현대 한국불교사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불교계 인재불사와 사회복지의 역사에서도 혜성 스님이 창립 · 운영한 청담학원과 혜명복지원이 가지는 위치가 높고, 한국불교의 아픈 상처인 10.27 법난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권 스님은 “화보집은 작게는 은사 혜성 스님의 유년부터 현재까지의 전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넓게 본다면 조계종의 대사회활동 역사이고, 도선사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사료”라고 밝혔다.

화보집에 보여진 스님의 일생은 ‘공심(公心)’이다. 지금도 아침 8시면 자신이 설립한 복지관과 요양시설로 가서 미흡한 점을 살피는 모습에서 원력의 실천을 그대로 만난다. 이를 스스로 밝히는 스님의 회고는 자신의 다짐이자 후학을 향한 당부다.

“산수를 맞아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만난 선연과 악연이 모두 도반이었음을 느낀다. 악연도 나에게 인욕의 가르침을 주었으니 어찌 도반이 아니겠는가.〈중략〉남은 세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종단의 끝없는 발전을 기원하며, 다음 생에도 수행자의 길을 걷겠다는 원력을 세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6년 4월 27일 대종사 가사를 수한 진불장 혜성 대종사가 불자를 들고, 휘장을 착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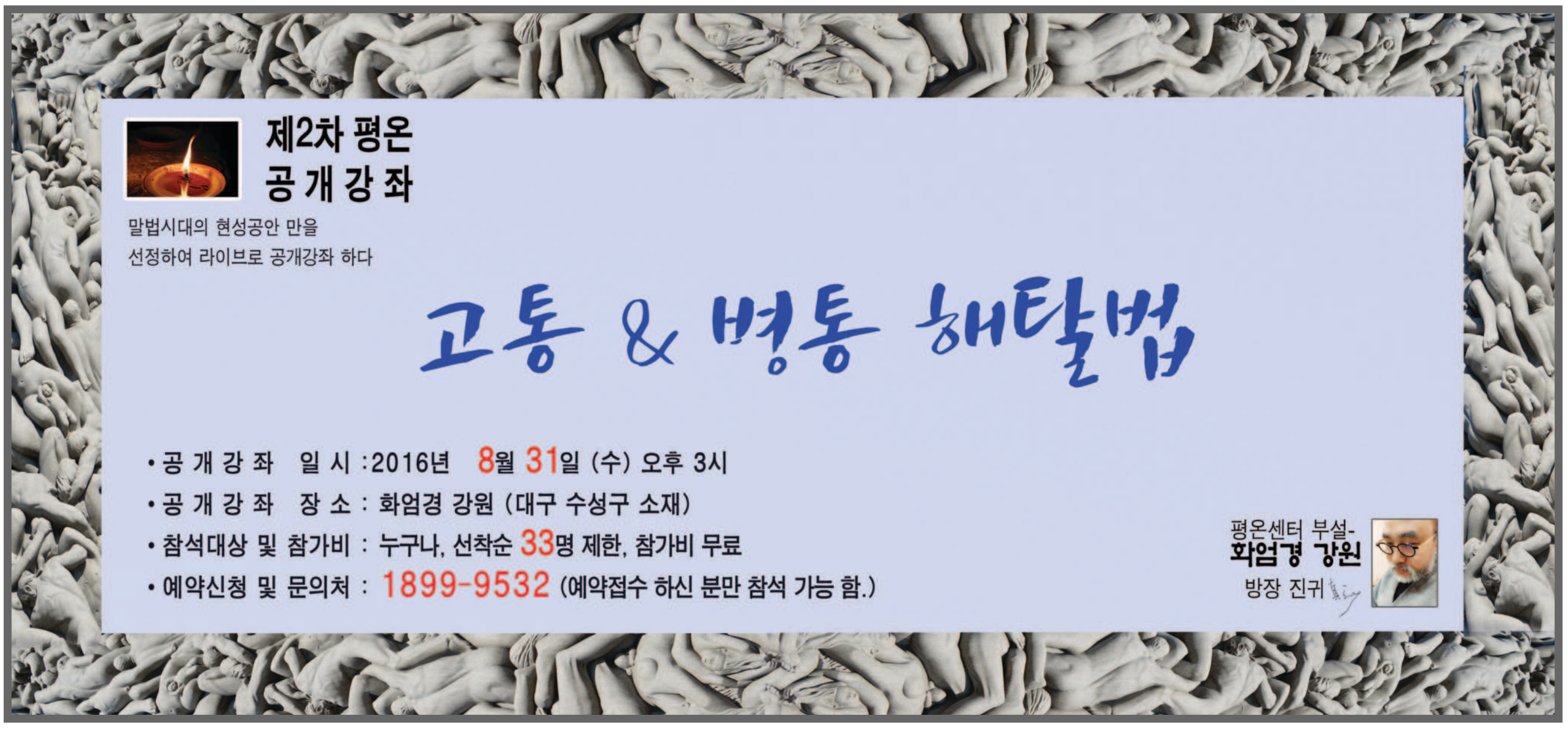

1970년 8월 15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한 은사 청담 스님(사진 가운데)과 함께한 혜성 스님(사진 오른쪽).


2015년 6월 청담중고등학교를 방문한 혜성 스님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도선사 기념법회에서 불교 의례를 하는 혜성 스님과 주지 도서 스님의 모습.



1990년 3월 중앙승가대학이 대학 학력 인정 각종 학교로 인가 받은 후 가진 현판식 모습. 왼쪽부터 의현 스님, 혜성 스님, 석주 스님, 종서 스님.



만해선양 민간단체 발족… 화두는 '통일'

6월 26일 만해사상실천연합 창립… 대표 선진규 추대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 8월 28~29일 심우장서 개최

민족 독립운동을 이끌며 한국불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울림을 전한 만해 스님의 사상을 실천하는 민간단체가 발족했다. 눈에 띄는 점은 만해 스님 추모에 힘을 쏟는 단체들과는 달리 이 시대 만해 스님이 주창할 화두를 직접 사업으로 펼친다는 것이다.

만해사상실천연합(이하 만해연합)은 6월 26일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정관을 통과시키고 초대 대표로 선진규 김해 정토원장을 추대했다. 아울러 前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타 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김용표 동국대 교수를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만해연합은 "광복 70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그토록 기다리던 해방조국이 다시 둘로 나뉘어 한쪽은 종북, 다른 한쪽은 반동으로 권력 유지수단이 가로막고 있다"며 "통일의 염원은 분열로 굳어만 가니 만해의 독립정신이 이제는 통일정신으로 승화돼야 할 간절함에 와 있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처럼 만해연합은 만해 스님의 생전 독립정신을 오늘날 통일정신으로 승화시켜 문학을 통한 남북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인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가 공동주최한 '한국문학축전'을 이어받아 '제2회 한국통일문학축전'을 8월 28~29일 만해 스님 탄신일에 맞춰 심우장서 개최한다. 만해연합은 행사에서 '통일염원'이라는 목적 아래 초등부 · 중고등부 · 대학부 · 일반부 · 노인부 등 계층별 백일장을 열고, 우수작품을 모아 이북문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에 대한 의미를 담은 신규 문학작품과 기성인들의 작품 수집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기념식과 5분 발언, 초청공연, 시낭송회, 대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문인협회와 공감대 형성 후 통일염원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통일염원 키우는 백일장과
시낭송회 · 대토론회도 마련
"문학 활동 바탕으로 北 교류
만해운동이 마중물 되길"

선진규 대표는 "지금 만해 스님이 살아계셨다면 남북통일을 위해 힘쓰셨을 것이다. 따라서 만해연합은 이 같은 스님의 정신을 받들어 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한 모임"이라며 "만해 스님에 대한 기념사업은 다른 단체들이 잘하고 있다. 추모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스님께서 주창하셨을 부분을 후손들이 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대표는 이어 "만해 스님이 독립을 위해 끈질기게 활동하셨듯이 우리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백일장 대상 상금을 2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계층별 장원을 선정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6월 26일 창립한 만해사상실천연합에는 한국불교문인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총동창회,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등이 참여했다.

선 대표는 또 "38년 전 대불청 회장으로 활동할 때 초대 총재이신 만해 스님 묘소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만해운동이 사회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 문인들과 문학 교류를 바탕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창립총회에 참석한 50여 사부대중은 미아리공동묘지에 있는 만해 스님 묘소를 참배하고, 스님의 정신을 기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만해연합에는 한국불교문인협회와 대한불교청년회, 동국대 총동창회, 동국대 불교학과 동문회, 한민족평화통일전국노인회 등이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팥빙수로 천진불에 '쿨한' 여름 선물

(재)아름다운동행, '2016 HOT여름 COOL나눔' 캠페인 실시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시원한 팥빙수를 선물한다.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6 HOT여름 COOL나눔' 캠페인을 실시, 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어린이들을 위해 팥빙수를 제공한다. 6월 21일~7월 20일 접수를 받아 50개 기관을 선정, 시원한 팥빙수와 함께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간다.

아름다운동행은 팥빙수 나눔 캠페인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409곳 기관서 신청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무더운 7월, 많은 아이들이 방학과 휴가로 설레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가 유일한 놀이공간"이라며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저소득 아동들을 위해 조금 더 시원하고 맛있는 여름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혜명보육원을 방문해 팥빙수를 지원하는 자공 스님 모습.

신청 및 문의는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 또는 전화(02-737-9595)로 가능하며, 전국 지역아동센터 모두 신청가능하다. 단, 2015년 선정기관은 제외. **박아름 기자**

봉은사, 우란분절 49일 기도 입재

6월 30일~8월 17일… 기도기간 중 연꽃 축제도 함께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30일 법왕루서 우란분절 백중기도 입재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49일간 지장기도에 들어간다. 기도기간 중 초재 · 3재 · 5재 · 7재(회향)까지 총 5회에 걸쳐 특별법회도 봉행한다.

아울러 봉은사는 올해 최초로 백중기도 회향까지 온 도량을 연꽃으로 장엄하는 연꽃축제도 함께 연다.

우란분절은 부처님 10대제자 중 목련존자가 부처님과 대중스님들의 법력을 빌어 어머니를 천도했던 일화서 유래한다. 불교의 4대 명절에 우란분절을 더해 5대 명절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연꽃으로 장엄한 봉은사 경내.

봉은사는 매해 우란분절 기간 동안 대웅전 마당 등 온 도량에 백색 등을 달고, 위패를 올려 천도재를 지내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호국영령 희생, 위국헌신으로 증명"

6 · 25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현직 군장교와 군승들이 모여 호국영령의 값진 희생을 되새겼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25일 경기도 포천 소재 육군 5군단 법당 호국금강사에서 '제3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봉행위원장인 서울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과 군종교구 부교구장 승원 스님, 재갈용준 5군단장을 비롯해 참전용사, 일반불자 등 500여 명이 동참했다.

1984년부터 위령대재를 지원해오고 있는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오늘 천도 자리에 초청받은 모든 영령들이여, 어느 나라 어느 영령이건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고 모셨다"며 "진리의 자리엔 태어남도 없고 소멸 또한 없으니 나고 죽는 것이 사라지고 오직 정법의 마음자리만이 본래 실상이다. 생멸 없는 진리의 소식을 듣고 오직 칠보산 극락세계에서 왕생하소서"라고 축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로터스월드, 라오스 덕캄초 완공

6월 23일 준공식 개최… 6개 교실 등 갖춰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 로터스월드에 의해 라오스 덕캄초등학교 대나무 교실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했다.

(사)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는 6월 23일 라오스 씨엥쿠앙 캄 군 덕캄마을서 덕캄초등학교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에 그간 대나무 임시교실을 사용해왔던 123명 학생들은 6개 교실을 갖춘 신식 건물서 수업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사장 성관 스님, 텅씽 판타윙 씨엥쿠앙 도교육청 부청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텅씽 판타윙 도교육청 부청장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덕캄마을에 지원해줘서 감사하다"며 "로터스월드의 도움으로 앞으로 라오스 내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교사 교육 등 지속적인 발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성관 스님은 "우리나라가 가난서 벗어나 발전할 수 있던 것도 모두 교육 덕분이었다"며 "덕캄초 어린이들은 좋은 환경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만큼 열심히 노력해 이 마을, 이 나라, 이 세계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사)로터스월드는 6월 23일 라오스 씨엥쿠앙 덕캄마을서 덕캄초 완공식을 개최했다.

로터스월드는 2016년 4월부터 KOICA의 지원을 받아 덕캄마을의 학교기반시설 지원 및 지속적 관리 유지, 기자재 및 교육물품 제공, 교사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백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덕캄초 도서관을 건립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성철 스님 생가 겁외사서 생활참선을…

7월 28일·8월 4일 생활참선 캠프

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 부설 성철선사상연구원은 7월 28일(입문)과 8월 4일(심화)부터 각각 3박4일간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생활참선 캠프'를 실시한다.

생활참선 캠프는 성철 스님이 재가시절 홀로 화두참선을 시작해 '동정일여(動靜一如)'를 체험한 뒤 출가한 일화서 착안했다. 즉 재가자들이 일상서 참선을 실천하도록 안내하는 자리다.

캠프는 원택 스님을 증명법사로, 박희승 성철선사상연구원 연구실장 지도 아래 합숙과정이 진행된다. 먼저 입문과정은 성철 스님 가르침에 따라 참선 입문자들이 중도를 공부하고, 정견을 확립해 본래부처임을 알아 부처로 살아가려는 발심을 하도록 이끈다. 또한 심화과정서는 이들이 발심 법문을 듣고, 화두삼매 원리를 배워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힘을 키우는 실참이 진행된다.

입문 · 심화과정 각 30명, 50명 선착순 모집이며 회비는 18만원이다. 동반가족은 15만원. 본 과정 이수 후 연구원이 실시하는 심화과정 4학기를 수료하면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명상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sungcho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198-5375 **윤호섭 기자**

종단 사찰, 스님, 전국 불자를 위한 법률상담

불교조계종 종단법률고문 법무법인(유한) 바른

사찰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사소송 세무관계



김영규 구성원 변호사

학력
1982 진주고등학교 졸업
198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1992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2009 중국 북경 정법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국제통상법 전공)

경력
1995-1999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9-2002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 중국 청화대학교 대학원 교수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8 법무법인 한승 구성원 변호사, 중국 상해대표처 대표
2009-2010 법무법인 추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구성원 변호사
2010-2012 법률사무소 행복세상 구성원 변호사
2013-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법원
박일환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등법원장
강병성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영애 전 춘천지방법원장, 18대 국회의원

검찰
정동기 전 대검 차장
문성우 전 대검 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법무법인(유한) 바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010-5769-7071
불교조계종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4 2층) TEL 02)511-2026

논리적 사유가 때론 가장 모순적이다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중관논리와 역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 불교학부 교수

대승불교의 기초가 되는 공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일체만물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허무주의'를 떠올리곤 한다. 과연 공사상은 허무한 것일까? 김성철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6월 27일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서 '중관논리와 역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중도적 사고방식은 구분이 야기하는 허무함을 폭로해서 감성 · 지성 번뇌를 사라지게 하고, 결국에는 열반에 드는 길로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김성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에서 〈용수의 중관논리의 기원〉이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강사를 거쳐 현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티벳장경연구소장,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계간지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양, 수학적 논리 한계에 봉착
근대에 불교 접목해 해결책 모색
논리로 구축된 분별된 개념 모두
연기설에 위배돼 '역설' 드러나

가장 심오한 '공(空)' 사상

흔히들 수학을 서양과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수식으로 자연현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 수학은 논리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수학자들이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여겼던 '수학적 사유'에 한계를 느낀 겁니다. 머릿속에서 관념으로 사유하던 수학자들은 반성하기 시작했고, 근대에 와서야 수학에 불교를 접목해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불교에선 사람이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상(像)'을 믿지 않습니다. '머리 굴리며 사는 것'은 세상의 진실과 전혀 관계없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무명타파의 지혜로 여깁니다. 〈반야심경〉과 〈금강경〉 같은 경전에서 다루는 '공(空)' 사상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 중관학입니다.

중관은 범어로 'Madhyamaka'입니다. 'Madhya'는 '가운데' 혹은 '중간'을 의미하는 형용사인데 여기에 최상급 어미 'ma'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뜻풀이 그대로 가장 가운데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시자는 용수 스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태어난 용수 스님은 제2의 부처 혹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불화 속에선 지혜를 상징하는 뱀과 함께 묘사되는 스님입니다. 그리고 용수 스님의 사상을 〈조론(肇論)〉으로 펴내고 '중관'이란 단어를 최초로 쓴 분이 승조 스님입니다. 서양철학자들은 '중관학'을 가장 심오한 사상이라고 꼽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사실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중관에 대해 해석한 책을 냈지만 소실됐습니다. 그 후 천 년 동안 연구되지 않다가 근대에 다시 '중관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불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승조 스님은 〈중론〉과 〈회쟁론〉을 저술했습니다. 중론은 '공(空)'을 파헤쳐 해명한 학문입니다. 당시 중론이 널리 퍼진 이후 공사상에 대한 오해도 함께 퍼졌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게 공하다면 부처님 말씀도 공한 것 아닌가?' 혹은 '모든 게 공하다는 말 자체도 공하지 않은가?' 등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회쟁론〉에선 이러한 의혹들을 차근차근 해명했습니다.

중관사상은 '제법무아'에 대해 끝까지 분석해 폭로합니다. '부처님법' 조차 초탈한 '법무아'의 경지를 열반이라고 칭하며, 소승불교가 놓쳤던 부분들까지 상세히 짚어냅니다. 대승불교야말로 철저히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중관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티베트는 드러낸 가르침인 '현교'와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는 '밀교'로 나눠 가르침을 전수합니다. 현교를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자비심이 넘치고 이기심이 전혀 없는 사람을 골라 밀교를 전합니다. 현교 가르침 중 최고로 치는 것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현교 수행법은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완성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이 없는 종교 활동은 동아리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 철저히 자각할 때 진정한 신심이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가르침은 하늘나라에서도 태어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면 다시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행복의 세계는 항상 무상하기 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해탈입니다. 머릿속에서 빚은 탐욕이 모두 허구란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중관학입니다. 삶과 죽음조차 원래 없는 것인데 머리가 만든 것이란 사실을 깨달으면 탐욕이 저절로 없어지며 흔히 말하는 '아라한'이 돼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논리학의 허점 '자가당착'

중관학은 초기불전의 연기설에 근거해서 공사상을 논증하기 때문에 '연기의 논리학' 혹은 '공의 논리학'으로 불립니다. '반(反)논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논리적 사유 전체를 비판하기 때문입니다. 중관학은 삼단논리 중 어떤 단계도 실체가 없으며 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논리적 판단은 총 4가지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증익방(增益謗, 의미 중복의 오류 비판)' '손감방(損減謗, 사실 위배의 오류 비판)' '상위방(相違謗, 상호 모순의 오류 비판)' '희론방(戱論謗, 언어 유희의 오류 비판)'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린다'는 문장을 볼까요? '비'는 '내린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비가 내린다'는 의미가 중복됩니다. 그렇다면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는 말이 안 되죠. 사실에 위배됩니다. '내리면서 내리지 않는 비가 내린다'는 더욱 말이 안 됩니다. 상호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지 않는 것도 아닌 비가 내린다'는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모두 오류에 빠진 문장들입니다.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수평선은 하늘에 속할까요, 바다에 속할까요? 틀림없이 하늘과 바다가 모여 수평선을 만들었지만 어느 한 쪽에만 속하지도, 양쪽 모두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에 속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논리는 '언어도단'에 빠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세상 자체는 분절된 언어로는 도저히 사실 그대로 표현이 불가능한 '불가사의'의 세계입니다. 화엄학에서 세상 모든 것들이 법신(法身)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중도 설법이라고 설명한 까닭입니다.

'역설'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떠드는 교실에서 한 아이가 "떠들지 마!"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벽에 '낙서금지'라고 쓰거나, 사람이 붐비는 백화점에 있으면서 "집에 있지, 왜 백화점에 나오는 거야"하며 투덜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 중에서도 역설임을 깨닫지 못한 채 철학적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제의 철학적 사용을 비판'하는 철학을 펼친 비트겐슈타인, 로고스중심적 서구 사상사를 로고스를 통해 해체시키고자 했던 데리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실 역설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처님 존재 또한 역설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본인이 더 유명해졌으니까요. 역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과응보'란 개념도 잘 생각해보면 역설입니다. 남에게 행한 행동이 내게로 돌아오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영국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역설에 착안해 수학의 한계를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러셀은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을 제시했습니다. 에피메니데스는 크레타 섬 출신의 현인인데,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에피메니데스가 크레타 사람이므로 위의 주장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면 또 크레타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므로 '크레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는 발언은 진실이 됩니다. 이렇게 얼핏 듣기에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서로 아귀가 맞지 않는 논리가 바로 역설입니다. 러셀은 이 점을 수학 집합론에 적용했습니다. 모든 집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 집합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전자는 '보통집합'으로 도시들의 집합이 대표적입니다. 서울, 뉴욕, 파리 등은 도시들이지만 '도시' 자체는 도시들의 집합에 속할 수 없습니다. 후자는 '특수집합'이고, 도서관에 꽂힌 도서관 장서 목록이 여기에 속합니다. '도서관장서목록'이란 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셀은 보통집합들 전체의 집합은 과연 보통집합일지, 특수집합일지를 고민했습니다. 만약 보통집합들 전체의 집합이 '특수집합'이라면, '보통집합' 정의의 속성에 의해 자신이 속하지 않으므로 '보통집합'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보통집합들 전체의 집합이 '보통집합'이라면 여기에 속하므로 '특수집합'이 됩니다. 결국 역설적 결과만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열반'

부처님은 이런 역설을 이용해서 교화를 행했습니다. 장조범지가 "나는 그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자 부처님이 "장조여, 그대가 말하는 '그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는 인정하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장조범지는 "고타마여, '그 어떤 법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런 견해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렇다면 결국 인정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꼴이니 뭇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데 어째서 스스로 뽐내며 잘난 체 하느냐"며 장조범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선가의 격언들은 얼핏 역설에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립문자'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말을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원래 내용이 없다고들 합니다. 애초부터 모든 사람들이 아무 문제도 없는 '비로자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들을 중생이라고 착각할 뿐임을 알려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병든 마음을 고쳐주는 것일 뿐 '도그마(교리)'는 아니란 뜻입니다.

공사상이 퍼진 이후 이를 공격하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회쟁론〉 처음 20개 게송은 용수 스님의 논법을 차용해 '공사상'을 공격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면, 그 말조차 공해야 한다'면서요. 물론 후반 50개 게송에 걸쳐 이런 공사상에 관한 오해를 모두 풀어냅니다. 중관학은 오류를 발견하는 기법을 익히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중관학을 익히면 그 어떤 사상철학의 모순이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수 스님은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를 '사유의 분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연기의 사슬을 끊는 '분별'로 인해 역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낙서금지'라고 쓰는 사람은 그것 또한 낙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낙서금지' 문구는 낙서가 아닌 한 단계 위의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은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어 간 계층을 구분(계형이론)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철학자 수잔 하크는 약속의 세계에선 계층 구분이 통할지 모르나 자연 세계에선 여전히 '낙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생각으로 세상을 가위질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머릿속 분별심으로 떠올린 그 어떤 개념도 연기설에 반대돼 모두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흑백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도의 길입니다. 물론 강의를 들었다고 분별심이 바로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감성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개체를 구분해서 지각합니다. 중도적 사고방식은 구분이 야기하는 허무함을 폭로해서 감성 · 지성 번뇌를 사라지게 해, 결국에는 열반에 드는 길로 우리를 안내할 겁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3기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 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7월 30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8월 1일 (월요일) 개강
매주 (수,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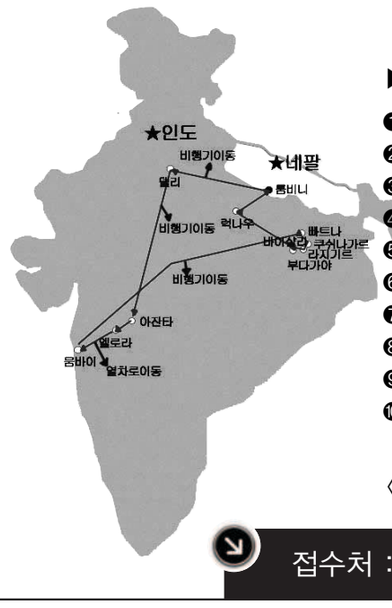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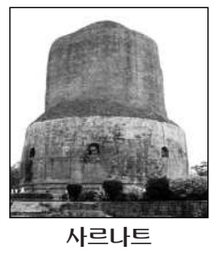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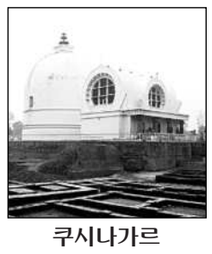


▶ 성지순례지 ◀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

불교 지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논하다

교불련, 7월 5~7일 부산 삼광사 등서 교수불자대회

논문 30편 발표…역대 최대
특별 강연 및 수련법 체험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불교 지성들이 머리를 맞댄다.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오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삼광사와 송정 약사선원에서 '201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수불자대회에서는 한국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담론의 장들이 펼쳐진다. 발표 논문 수도 30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회는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한 · 중 · 일 특별회의', '한국불교 국제화 특별회의'로 한국불교 세계화 방안을 점검한다. 또한 △한국불교의 포교활동 △한국불교 문화의 세계화 △한국불교와 지역공동체 등 분과회의를 통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그동안 개별적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자유주제와 '아시아 불교' 분과를 운영해 아시아 불교철학을 살피는 시간도 마련했다.

3번에 걸쳐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주제는 △대학불교네트워크 발전 방향 △불교미래포럼 발전 방안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불교교단과 불자 지식인들의 역할 등이다.

교수 불자들의 신행을 증장하기 위해 천태종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특별법문과 중국 진푸티상사 수련법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등이 진행된다.

심익섭 교불련 회장은 "이번 대회의 특징은 한 · 중 · 일 불교의 세계 포교 현실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중국불교 세계화 사례는 부산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보리수 약사선원이, 일본 사례는 부산에서 포교를 시작한 진여원(신뇨엔) 측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회 외에도 지난해 출범한 불교미래포럼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며 "중앙신도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지성 불교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 안내문, 더 쉽고 더 정확하게

문화재청 · 국립국어원, 안내문 작성 지침서 발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문화재 안내문을 국민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지침서인 〈한눈에 알아보는 문화재 안내문 바로 쓰기〉를 발간하였다.

문화재 안내문은 일반 국민에게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이 이뤄지지만,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문장 표현이 많아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지침서에서는 △문화재 안내문을 작성하고 번역할 때 적용되는 기본 원칙 △안내문에 담겨야 할 내용(문화재 명칭, 지정유형, 연혁 · 유래, 규모, 특징, 역사적 · 문화재적 가치 등) △외국어 · 한자 · 숫자 · 연대 · 도량형 표기 방법과 같은 세부 작성기준 등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문화재 안내문 적용 사례 30건과 더불어 맞춤법, 띄어쓰기, 표현, 낱말, 쉬운 말 등 주제별로 표로 정리해 필요할 때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에는 △ (쉬운 말) '출생한 가옥' → '태어난 집' △(띄어쓰기) '듯 하다 '→' 듯하다 ' △(표현) ' 칼 솜씨를 갖고 있는' → '칼 솜씨를 자랑하는' △(맞춤법) '뼈조각' → '뼛조각' △(낱말) ' 일제 시대' → '일제 강점기' 등 실제 문화재 안내문에서 볼 수 있는 오류들을 살펴봄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발간된 지침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며, 안내문 작성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문화재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근대불교 대강백 경운 스님 발자취 '한눈에'

경운원기문손회, '경운원기 대선사 산고집' 발간

근대 한국불교 화엄교학 대강백으로 잘 알려진 경운원기(擎雲元奇, 1858~1936) 스님의 사상과 일대기를 알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경운원기대선사문손회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 편저자로 〈화엄종주 경운원기 대선사 산고집〉을 최근 발간했다. 경운 스님은 당대 최고의 화엄학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자료가 적어 관련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번 산고집 발간으로 관련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산고집에는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경운 스님의 행장으로 손상좌인 철운 조정현 스님이 쓴 경운 스님의 이력이 소개 됐고, 위당 정인보가 기록한 '화엄종주경운당대사비(華嚴宗主警雲堂大師碑)' 비문도 수록됐다.

2부는 경운 스님의 유고로서 생전의 시 · 송(頌) · 서간 · 서판 · 그림 등이 원문과 함께 우리말 번역이 담겼다.

이중 서간은 경운 스님의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경운 스님과 서간을 나눈 인물 중에는 한국불교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도 있었다. 총 3개의 서간에서 경운 스님은 "오늘 이렇게 뜻밖에 〈금강경〉 두 질을 보내주는 은혜를 입으니, 마치 기원정사에서 법의를 대하는 듯 친히 가르쳐 일러주심을 입었다"면서 "어느 때 편찬하신 이 책을 들고 가서 붓 놓고 편안히 계실 때 가르침을 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손상좌 철운 조종현 스님(소설가 조정래 아버지)에게 보낸 서간에서는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경운 스님은 서간에서 "불법의 문중에서 물러서지 않고, 법기를 성취해 아뇩보리의 소원을 짊어지고 뜻을 새겨 진실로 빈다면 이에 조그마한 성취의 단서가 나보다 나을 것"이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하고 있다.

스님 생전 시 · 편지 등 망라
당대 문인들과의 교류 확인
화엄 교학 계보 알 수 있어
관련 연구 활성화 계기 전망

3부는 경운 스님을 기리는 문인들의 글들이 수록돼 있다. 대부분 당대 최고의 문인들로 육당 최남선, 운양 김윤식, 하정 여규형, 선각 권중현, 퇴경 권상로, 매천 황현 등이 스님에게 글을 올렸으며, 구하 선사, 남전 선사 등도 스님을 상찬하는 글을 썼다.

정인보는 경운 스님 수계 60주년을 맞아 문도들이 편집한 수연첩(壽宴帖) 서문에서 "세상에 계시는 사문들 중 석전 박한영 스님을 가장 존경하였는데, 석전은 조계산 장로 경운원기 상인이야말로 계행이 높고 여러 경전으로 가르쳐 교화한 바가 매우 많은 고명한 존숙이라고 자주 말했다"고 밝혔다.



경운 원기 선사 진영.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고종 황제가 경운 원기 선사에게 수여한 쌍룡문 가사. 선암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4부는 경운 스님의 유고 영인본으로 〈견문록〉과 〈견문록초〉가 영인 됐다. 영인 자료는 경운 스님이 전국 명산 대찰과 고적을 유람하면서 선인(先人)들의 글을 옮긴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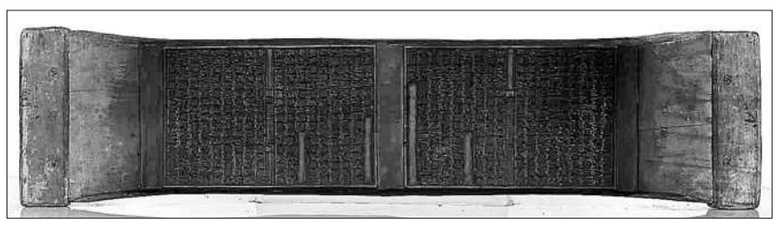
편저자인 신규탁 교수는 "선암사에서는 '침명-함명-경붕-경운'으로 강맥이 이어졌지만, 해방 후 화엄교학의 강맥은 희미해지고 있다"면서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화엄교학의 풍토를 알기 위해서는 경운 스님의 교학 사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스님의 흩어진 자료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산고집이 가지는 학술적 가치는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운 스님의 수연첩을 보면 내노라하는 당대 문인 중 글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책을 통해 경운 스님이 시 · 서 · 화와 평론, 서간 등 다양한 분야를 통달한 지성인임을 알 수 있다"면서 "현대의 스님들도 경운 스님처럼 높은 지성과 글쓰기를 통해 사회와 소통해야 불교를 빛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소장 경전 목판 9건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6월 30일 지정 예고
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 성과


보물로 지정예고된 송광사 소장본 '종경촬요 목판.' 현존하는 유일본이다.

사찰에 소장돼 있는 경전 목판들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 '전등사 묘법연화경 목판' 등 10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지정예고된 문화재 중 사찰 소장 목판은 9건으로 △강화 전등사 소장본 '묘법연화경 목판' △순천 송광사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 '계초심학인문(언해) 목판' · '인천안목 목판' · '종경촬요 목판' · '청량답순종심요법문 목판' ·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서산 개심사 소장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 ·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등이다.

이 같은 지정예고는 조계종 산하 (재)불교문화재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인 '전국사찰 목판 일제조사 사업'의 2014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선별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강화 전등사 소장본 '묘법연화경 목판(妙法蓮華經木板)'은 전체 105판 가운데 첫 부분인 1판이 없는 상태이나, 조선 초기부터 16세기까지 성행되었던 성달생(成達生, 1376~1444) 서체 계열의 〈묘법연화경〉 중 시대가 가장 앞서는 목판 자료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 송광사 소장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大方廣佛華嚴經疏木板)'은 현재 2,347판이 보존돼 있으며, 이는 해인사 대장경판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현재 전해지고 있는 불서 목판 중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다. 이 목판은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 스님 등이 중심이 돼 1년 4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에 전문 인력 50여 명을 동원하여 만든 것으로, 간행 시기와 목판 수량 등에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또한 순천 송광사 소장본 '종경촬요 목판(宗鏡撮要木板)'은 북송의 승려 영명연수(永明延壽)가 편찬한 〈종경록(宗鏡錄)〉의 요점을 간추려 엮은 것으로 모두 17판으로 구성돼 있다. '종경촬요 목판'은 1531년 조계산 은적암에서 다시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일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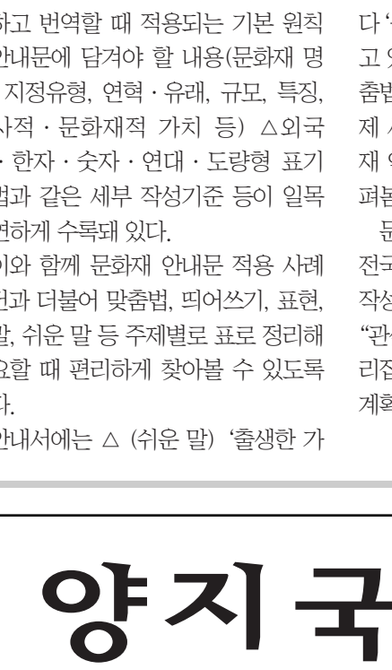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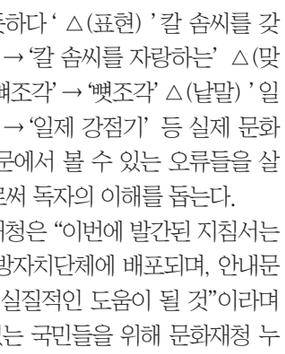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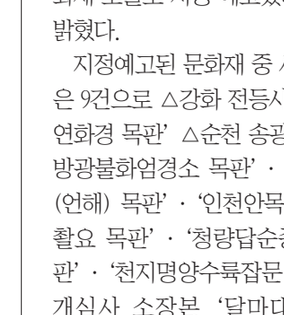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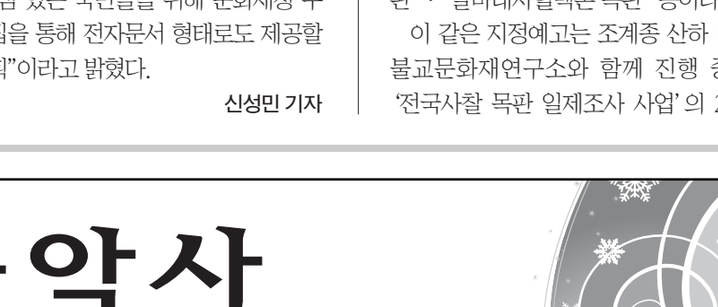
서산 개심사 소장본 '달마대사관심론 목판(達磨大師觀心論木板)'은 초조 달마의 심론을 정리한 것으로, 목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것은 개심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함께 지정예고된 개심사 소장 '달마대사혈맥론 목판' 역시 목판이 완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개심사 소장 목판뿐이다.

사찰 목판 이외에도 '함통6년명 청동북(咸通六年銘 靑銅金鼓)'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청동북은 범종(梵鍾)과 함께 사찰 의식 때 범음(梵音)을 내는 주요 의식법구로 불교 전래 이후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상북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 청동북은 865년(경문왕 5)에 만들었다는 명문이 적혀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작연대가 새겨진 청동북 중 가장 오래됐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한 10건의 문화재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불자와 사찰간의
다양한 소식, 뉴스, 혜택 등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사찰의 다양한 소식을
절로에서 받아보세요!

불교 대표 어플리케이션 절로 다운로드
Google Play (안드로이드용)
App Store (아이폰용)
"절로" 검색 후 다운로드
절로 문의전화
불자/신도 무료이용
사찰/단체 이용문의
1644 - 9108

“통일, 새 미래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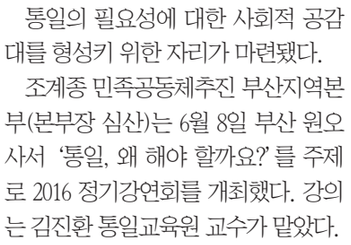
김진환 교수, 민추본 부산본부 2016 강연회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6월 8일 부산 원오사서 ‘통일, 왜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2016 정기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의는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먼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단과 대결로 인한 불편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한 예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꽃게 · 명태 · 오징어 등이 대부분 북한 · 러시아 해역으로 북상, 남한의 어획량이 감소했다. 또 과수 재배지도 북상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농수산물이 북한서 재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이 되면 한국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로 4시간, 유럽까지 화물 수송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등 한국은 동북아의 무역 · 물류 중심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통일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남 · 북민족 구성원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가슴 설레는 과정”이라 역설했다. 박아름 기자



민족공동체추진 부산지역본부는 6월 8일 원오사서 ‘통일, 왜 해야 할까요?’를 주제로 2016 정기강연회를 개최했다.

사랑 싣고 달리는 ‘불광사 밥차’

수자타 봉사단 창단, 6월 25일 첫 나눔행사

소형 중고트럭, 밥차로 개조
“소외된 이웃 직접 찾아가기 위해”
재활원 · 요양원 등서 무료급식
라오스 불자들 사물놀이 공연도


부산 초읍 불광사가 찾아가는 봉사를 시작했다. 불광사는 ‘사랑을 담은 밥차’를 제작하고 6월 25일 신애 재활원을 방문했다.

부산 초읍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의 자가용은 매우 특별하다. 소형 트럭 뒤편 짐칸을 열면 그릇들과 가스용 버너, 쟁반 그리고 설거지 할 공간까지 줄지어 나온다. 얼마 전까지 삼보일배로 전국을 누비던 보광 스님이 소형 중고트럭을 구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사랑을 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6월 25일 ‘사랑을 담은 밥차’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부산 초읍 신애 재활원. 이곳서 생활하는 1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아이들을 위해 스님이 준비한 것은 아이스티와 핫바. 트럭에서 스님이 직접 만들어내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줄을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세 동이 났다. ‘감사합니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보광 스님과 불광사 신도들은 도리어 고맙단 인사를 전한다.

보광 스님은 ‘수자타 봉사단’과 함께 하기 위해 밥차를 마련했다. 수자타 봉사단(회장 이복희)은 40여명의 불광사 신도들이 나눔 회향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만나겠다며 창단한 모임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백양산 가파른 산길 500m 지점 백양사를 찾긴 어려운 상황. 얘기를 전해들은 스님은 직접 찾아가는 나눔을 실천키로 마음먹었다.

특히 수자타 봉사단의 급식 봉사 현장에선 라오스 불자들의 사물놀이 공연도 즐길 수 있다. 불광사에서 사물놀이를 배운 외국인 불자들은 무료급식 전 사물놀이 뿐 아니라 난타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해 주지 보광 스님은 ‘봉사는 곧 포교이며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기도와 참선도 중요하지만, 직접 다가가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를 알릴 수 있단 것이다. 또한 스님은 불광사 신도들이 나눔을 통해 더욱 성장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추문숙(76) 불자는 “몸이 성치 못한 아이들이 자신들 보다 더 약한 아이들이 방에 있다며 음식을 챙겨 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며 “몸이 건강한 나는 옆 사람을 진실로 배려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박순복(66) 불자는 “법당에 앉아 기도수행을 할 때와 달리, 타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며 “봉사가 곧 기도요, 포교라 말씀하신 스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이복희 회장은 “오늘 첫 활동을 시작해 보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도반들과 함께 기쁨으로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불광사는 한 달에 두 번 초읍 어린이 대공원서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학금 지원 · 라오스 후원봉사뿐만 아니라 매달 독거노인을 방문해 쌀 100kg을 전달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종교 화합으로 호국영령 위령제 봉행

부산종교인평화회의, 6월 24일 부산 UN기념공원서

불교 · 기독교 · 원불교 · 유교 · 천도교 등 종교인 100여명이 호국 영령을 위한 위령제를 봉행했다.

부산종교인평화회의(대표 무원)는 6월 24일 부산UN기념공원서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불교계 대표 무원 스님은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거룩한 뜻을 생각해야 한다”며 “젊은 나이에 피의 전장에 서야만 했던 그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석준복 목사(기독교 공동회장)는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한다”며 “올해 정전 63주년이 됐지만 아직도 10만 명이 넘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 또 500명이 넘는 국군 포로가 귀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우를 촉구했다.

정숙현(원불교 공동회장) 교구장은 “오늘 위령제가 영령들에게 위안을 찾는 소중한 기연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종교인평화회의가 6월 24일 부산UN기념공원서 ‘유엔군 전몰장병 및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개최했다.

“호국정신 되살려 후손들에 전하길”

한국호국불교조계종, 35회 순국선열 합동위령제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제35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용사 합동위령제를 6월 24일 경내 대강당서 봉행했다. 위령제는 성문 스님 등 4명 스님의 집전 권공과 신중작법, 상단불공, 천수바라, 도량게, 헌화 및 분향 등으로 진행됐다.

종정 혜륜 스님은 “애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깊은 유혼의 뜻을 새겨 보고자 합동 위령제를 봉행하게 됐다”며 “시간 속에 묻혀가고 있는 호국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후손들에게 애국과 충성심을 일러주고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종정 혜륜 스님, 세계불교법륜종 종정 법광 스님, 충남불교조계종 종정 남산 스님, 한국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종정 일웅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본산 법전사(종정 혜륜)는 제35회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월남참전용사 합동위령제를 6월 24일 경내 대강당서 봉행했다.

전통 사찰 청량사 훼손위기 “반드시 지켜낼 것”

부산불교연합, 7월 7일 상생법 대법회 개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는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청량사가 수행환경 훼손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6월 29일 청량사서 수행환경대책위가 공사 부지에 포함된 경내지를 설명하는 모습.

한국수자원공사서 진행 중인 ‘에코델타시티’ 공사로 인해 전통사찰 청량사(주지 운암) 경내지 250여 평이 공사부지로 영입됐다. 이에 따라 부산 강서구 내 유일한 전통사찰인 청량사가 전통문화 및 수행환경 훼손의 위협을 받고 있다.

청량사 수행환경수호 대책위원회(이하 수행환경대책위)는 6월 29일 경내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근원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행환경대책위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의 수용과 개발은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수자원공사측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에코델타시티 개발 공사를 시작했다. 전통사찰 청량사와 친수지역인 강서구의 자연환경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행환경대책위에 따르면 현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해 일주문 · 지장전 · 해우소 및 경내 앞마당까지 도로확장공사에 포함된다. 아울러 청량사 주변에 3~5m이상 복토공사가 시작되면 지면이 낮은 청량사는 도로먼지 뿐 아니라 침수위험에도 노출돼 사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상황이다.

청량사는 이러한 개발서 수행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공사 중지도 불사할 것을 밝혔다. 청량사는 앞서 6월 27일 수자원공사를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친수구역지정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7월 7일 오후 2시 ‘환경과 개발, 그리고 상생법 대법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을 비롯해 부산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은 국가하천 주변지를 체계 · 계획적으로 개발, 하천중심의 미래 지향적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단 취지로 한국수자원공사 · 부산도시공사 ·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효도 삼계탕으로 건강 수호”

용호사회福, 어르신 위한 효잔치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의 ‘효도 삼계탕 데이’가 올해도 찾아온다. 다가오는 7월 15일(초복), 7월 27일(중복), 8월 16일(말복) 3차에 걸쳐 지역 독거 및 결식 어르신 1,30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을 대접하고, 후원품을 전달한다.

‘삼계탕데이’는 복지관 문을 연 20년 전부터 한 해도 쉬지 않고 진행됐다. 현재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로 자리매김 해, 기업 및 사찰 등서 많은 후원도 이어지고 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효도 삼계탕데이’를 3차에 걸쳐 개최한다. 사진은 작년 모습.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도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효도 삼계탕 데이를 준비하고 있다”며 “후원 및 동참도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051)628-6737 하성미 기자

달라이라마 특별법회 & 네팔 성지순례

현지 국내 항공 4회 이용으로 품격있는 순례

성지순례일정 : 2016년 8월 26일(금) ~ 9월 7일(수) 〈13일〉

▶ 법회 일정 : 8월 29일 – 9월 1일까지 (4일간)

한국어로 번역된 교재로 달라이라마 존자님과 4일간 공부하면서 법회를 봅니다.





◆ 순례지도법사 – 성효스님
◆ 활동 사항
제 14, 15대 중앙종회의원
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역임
현재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순례 포인트
◆ 달라이라마 존자님 특별법회 4일
◆ 현지 국내선 4회를 이용한 편안한 순례
◆ 세계 7대 불가사의 타지마할 관광
◆ 한식 조리사 동행하여 한식 제공
◆ 네팔순례 그리고 아름다운 설산 히말라야 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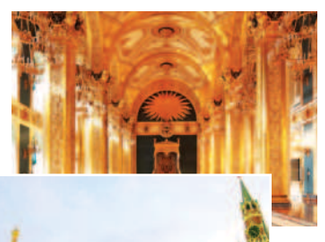
● 접수기간 : 2016년 7월 29일 (금) 까지
● 구비서류 : 여권
(출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사진 4매 (흰색배경 5×5cm)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 주 최 : 달라이라마방한추진회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 주 관 : 히말라야불교여행사
● 안 내 : 불타 여행사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30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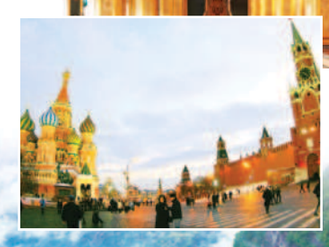
특별기획

출발 확정 : 8월 18일 (목) ~ 8월 27일 (토) (10일)

러시아와 북유럽 3개국 탐방



문화와 예술이 있는 나라 러시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북유럽 3국
러시아(모스크바, 상뜨페테르 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북유럽
여주 목아 박물관 박찬수 관장님과 함께 합니다.



불교 성지순례전문
불타 여행사 BUDDHA BOHEMIAN 02)733-9317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 파빌리온 804호

전화를 주시면 상세한 일정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익산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미륵사지 모형 앞에서 가람구조를 살피는 답사단.

성역화추진위, 백제권 고중세 사찰 답사

전통 · 현대 융합 방안 모색

조계종 총본산성역화추진위원회가 원만한 불사계획을 세우기 위해 백제권 고중세 사찰을 답사했다.

이석심 추진위 본부장을 비롯한 8명의 답사단은 6월 24~25일 익산 미륵사지 · 부여 정림사지 · 백제문화재현단지 · 부여 무량사 · 예산 수덕사 등을 답사했다.

지난 3월 조계사 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역화 불사 추진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답사는 전통건축기술을 바탕으로 세워진 고중세 가람 및 전통사찰을 돌아보고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마련됐다.

추진위는 답사를 통해 조계종 총본산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성역화 대작불사에 부처님 가르침을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전문가의 역할을 분담하고 구체적인 내용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석심 본부장은 "전통 가람에 맞는 내용으로 잘 정비해서 불자나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한국불교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통사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병화 전통사찰 전수조사 책임연구원은 "한국불교의 1700년 역사를 담아내기엔 현재 조계사의 협소한 부지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번 답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녹여내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내는 과정 중 하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륵사지와 정림사지를 둘러본 답사단은 회랑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해석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역화 불사의 핵심과제로 손꼽히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당면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선사 신임주지 영일 스님 취임

"지역주민 · 후학양성에 노력"



광주 광산구 금선사가 신임 주지 취임과 함께 새로운 교육도량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한다.

광산구 송정공원에 위치한 금선사는 6월 30일 대웅전에서 '감로탱화 점안식 및 주지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 정광학원 이사장 원일 스님, 금선사 회주 영명 스님, 정광학원 중고등학교 교직원과 여수 흥국사 신도를 비롯한 200여 대중이 참여했다.

신임주지 영일 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 시주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갚는 길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후학 양성을 위해 부처님을 시봉하듯이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은 법문에서 "늘 정진하듯이 불보살님을 모시고, 대중을 위해 헌신하며 살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선사는 앞으로 일요법회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정광학원 학부형 불자들을 위한 신행공간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날 주지로 취임한 영일 스님은 1987년 화엄사 명선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91년 범어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해병대 군종 대위로 예편 후 흑룡사, 해동사, 쌍룡사, 청룡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정광중학교 교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금선사는 일제강점기에 신사로 건립돼 해방 후 백양사 만암 스님이 후학양성을 위한 교육도량으로 사용하면서 사찰로 개축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특히 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의 기숙사 형식의 사찰로 운영하면서 많은 큰스님들이 기거하면서 학업을 닦은 이력을 갖고 있다. 현재 경내에는 일본양식의 대웅전과 요사채가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엄마랑 밖에서 함께 밥 먹어 좋아요!"

광주 자비신행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외식 선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예정, 후원 · 봉사로 의기투합


자비신행회가 마련한 '신나는 어린이 레스토랑'은 광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8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6월의 마지막 토요일. 마른장마라 하더니 비는 오지 않고 선선한 바람과 함께한 날이다. 점심시간이 되자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자비신행회 무료급식소에 평소 보기 드문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곳은 광주지역에서 가장 큰 재가불교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식당이다. 평일 언제나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밥상을 공양하는 급식소가 이날만큼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형형색색 풍선과 새로 구입한 테이블보로 꽃단장했다. 이 때문인지 식당 내부는 고급 레스토랑 분위기를 한껏 내어 품위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이날은 자비신행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나는 어린이 레스토랑'이 처음 열리는 날이었다. '어린이 레스토랑'은 동구지역 저소득계층 아이들 80명을 초청해 맛있는 스프와 돈가스, 팥빙수 등 먹거리를 선물하는 자리다. 동구청 드림스타트와 연계해 동구지역아동센터 6곳의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어린이 레스토랑을 찾았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외식을 자주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부모와 함께 근사한 외식을 선물하고자 기획돼 첫 선을 보인 것이다.

이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는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교육의 첫 시작이다. 특히 외식을 통해 아이들이 식사예절을 배우고,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은 기회를 통해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 눈높이로 식당 단장
아동센터 연계 80여명 참여
돈가스 · 팥빙수 선호 음식 마련
"뜻깊은 가족 추억으로 남길"

엄마와 함께 첫 외식 나들이를 한 이노(초2) 어린이는 "엄마와 함께 밖에 나와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침부터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음식과 식사도구를 앞에 둔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이들은 "잘 먹겠습니다"는 인사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행사는 여러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릇, 포크, 나이프 100세트와 돈가스 주재료 등이 후원으로 모아졌다. 특히 자비신행회 십시일반 밥차에서 활동하는 오랜 자원봉사자들은 아이들을 위해 손수 팥빙수 120개를 만들어 뜻깊은 정성을 보탰다.

행사를 준비한 김영섭 사무처장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신나는 어린이 레스토랑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외식의 추억을 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학교 부적응 청소년 위한 치유교실

전북불교네트워크,
6월 25~26일 부안 개암사서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과 학생들이 차담을 나누는 모습.

전북불교네트워크(공동대표 곽인순)는 6월 25~26일 부산 개암사에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초청해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 부딪히는 어려움은 물론 실패자라는 낙인과 소외감, 좌절감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이중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기획됐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발견할 기회를 찾고 나아가 자아회복, 정체성 정립과 독자적이며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보조교사를 포함한 20여 명의 참가자들은 부안 능가산 개암사를 찾아 주지 재안 스님으로부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 이어 트레킹을 하며 백제 마지막 항전지였던 역사적 장소인 복신굴과 우금암 바위 절벽에 위치한 원효방 등을 찾아 자연 속에서 역사를 느끼며 협동심과 호연지기를 다졌다.

또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염귀녀 센터장과의 집단상담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협동놀이를 하고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사회의 한 일원으로 성장하자고 마음을 다지는 기회도 마련됐다.

26일에는 새벽예불, 다도, 주지스님 차담, 개암사 둘레길 산책 및 문화재탐방 · 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참 나라는 존재를 찾아 사회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고등학교 3학년 노은지(가명) 학생은 "마음이 힘들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이날 전북생명평화센터 생명평화 무료밥상에 사용해 달라며 20kg 쌀 25포대를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자야, 富者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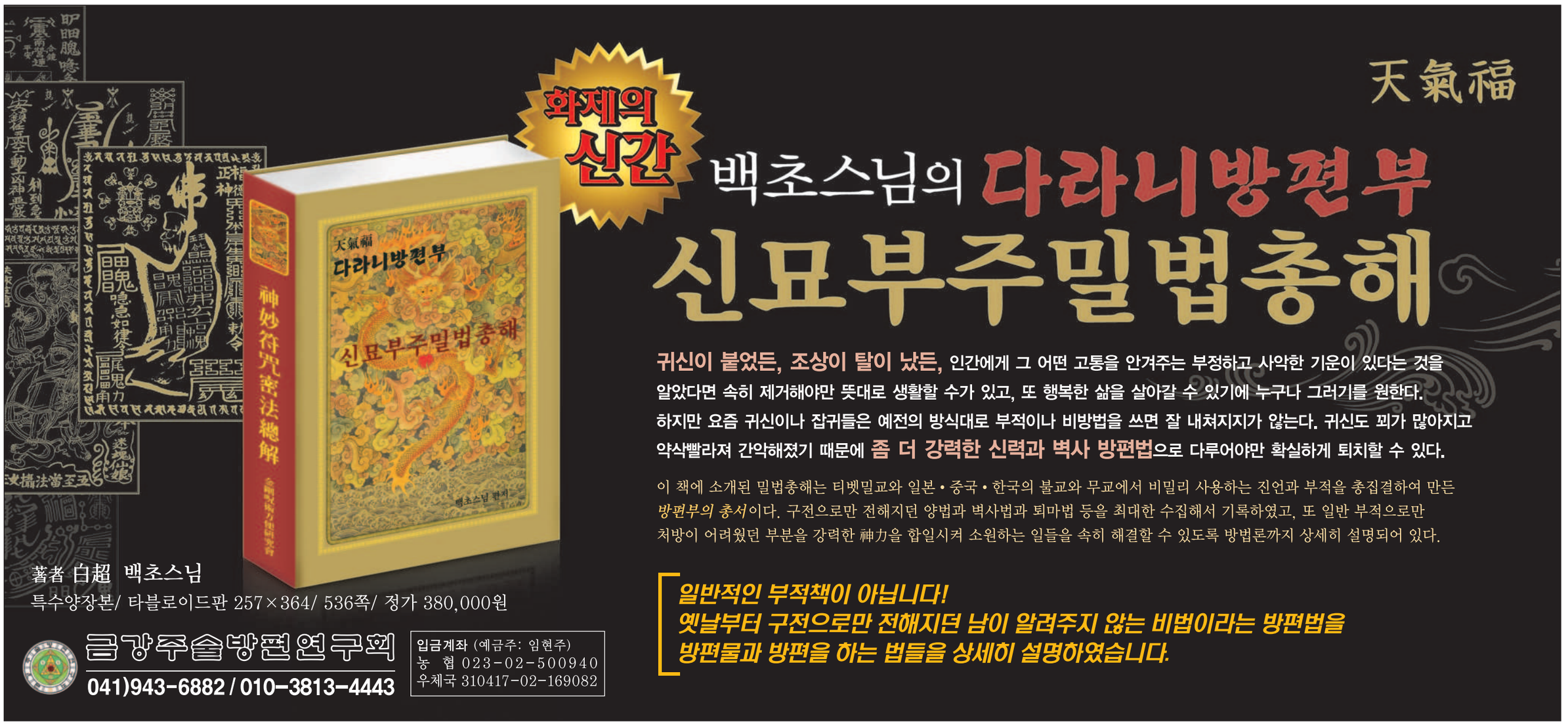
전주 참좋은우리절,
우승택 교수 초청강연

"우리는 태어날 때 불성과 지난 생의 내신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업을 갖고 태어났다. 결국 우리는 완전한 불성을 잘 살려 장애물인 업을 활용하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한다."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6월 19일 우승택 숭실대 PB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 교수는 "스스로가 부처님 성품을 갖고 있음을 알아 기복수행이 아닌 불교 본질을 이해하려는 수행이 될 때 현실에서 진정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양육 세태를 지적하고, 스스로 참회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과 관심이 자녀가 갖고 있는 불성을 망친다"면서 "자기 스스로 부처님 앞에 참회하며 삶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자녀의 일에 간섭하기 보다는 지원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권력자 종교편향 비극만 잉태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㊺ 거지국에서의 일화

손오공 일행 천축 가는 길을 서둘지만 서둔다고 빨리 가는 것은 아닐세!

이름도 이상한 거지국(車遲國)이라는 나라, 거지들이 사는 거지국이 아니라 수레가 늦게 가는 나라, 거지국이니. 어찌 빨리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나라 많이 이상한 나라, 온 나라가 도교만 받들고 불교는 마구 짓밟아. 도사는 귀족이요 스님들은 천민, 아니 천민만도 못한 노예상태로구나.

큰 가뭄이 들어 온 나라가 허덕일 때 스님들 기우제엔 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웬 도사 셋이 출현하여 큰 비를 내리게 했다네. 호력대선(虎力大仙), 녹력대선(鹿力大仙), 양력대선(羊力大仙), 세 신선이라던가?

이 나라 왕이 워낙 줏대가 없어 이 한 사건으로 불교는 영험이 없다 탄압하고 도교만을 받들게 되었다는군. 비참한 노예 생활에 수많은 스님들 죽고 달아나고 이제는 500명 스님만이 남았다네. 이러한 때 나타난 손오공을 보고 모든 스님들이 환호를 한다.

"내가 좀 잘생기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환호를 받을 줄이야!"

손오공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사연이 있다. 스님들 꿈에 불교를 옹호하는 신들이 나타나 당나라 성승을 모시고 가는 제천대성이라는 분이 이 비참한 상황에서 구원을 해줄 것이라며 용모까지 알려주셨다나?

이때부터 손오공의 맹활약이 전개된다. 스님들 모두 풀어주어 달아나게 하고 저팔계 사오정 꼬드겨 세 도사가 제를 올리는 삼청전(三淸殿)에 잠입하여 모든 제사 음식 쓸어먹는다.(주로 저팔계가!)

삼청[도교의 최고신 ; 태청, 옥청, 상청] 신상 때려 부순다. 삼청으로 변신하여 거짓 위엄을 보인다. 성스러운 물[聖水] 내려달라는 기원에 자기들 오줌을 내려준다.

이상한 오줌 맛 때문에 정체가 발각되자 술법을 부려 탈출한다. 기타 등등….

다음날 뻔뻔하게 통행증에 도장 받으러 국왕 앞에 나선다. 불교는 싫어하지만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무시 못해! 통행증에 도장을 찍으려는 국왕.

호력, 녹력, 양력의 세 도사가 등장하여 손오공 일행이 저지른 일을 고해바치지만 손오공, 증거가 있느냐고 오리발…오리발…오리발…마침 여름 가뭄을 걱정하는 백성들이 기우제를 지내달라는 탄원을 올리니 비를 내리는 것으로 내기가 붙게 되네.

비를 내리게 하면 통행을 허락하겠지만 내리게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리 하야 먼저 도사들이 법력을 보이게 되었는데 이 도사들 비보통 도사들이다. 호력대선이 단에 올라 부적을 태우고 영패를 울리니 비가 올 듯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한다. 놀란 손오공 털을 뽑아 가짜 몸 만들어 놓고 급히 올라가 살펴보니 바람의 신 와 있네.

풍파파(風婆婆)와 손이랑(巽二郞)이던가? 손오공 여의봉 휘두르며 호통을 친다.

"이 제천대성을 모르느냐!

바람 한 점이라도 불어 도사 수염만 흔들려도 여의봉으로 각각 스무 대씩이다!"

놀란 신들 손오공에게 납작 엎드린다. 일던 바람 사르르 죽어 버린다. 그렇게 구름의 신, 벼락의 신, 마지막에 용왕까지 힘을 못쓰게 만들어 버리니 호력대선, 얼굴이 벌개지도록 용을 써도 소용이 없다.

"아마도 용왕이 집에 없나봅니다"

구차한 변명…손오공이 약을 올린다.

"내가 보니 집에 있소. 당신 법술이 신통치 못할 뿐이지!"

그리곤 현장 법사를 단에 오르게 한다.

"스승님은 그저 염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곤 여의봉으로 신호를 하니 마침 와있던 여러 신들 차례로 바람 불게 하고, 구름 끼게 하고, 번개 치게 하고 마지막에 용왕이 비를 쏟아 붓는다.

결국 내기는 손오공 팀의 승리! 국왕이 현장법사의 법력에 감탄하여 통행증 도장 찍어주려 하는데 세 도사들 끈질기게 시비를 건다.

자기들 법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른 용왕이 사정이 생겨 늦었는데 마침 기회가 좋아 현장법사가 비를 내리게 만든 것이라나? 결국 손오공이 용왕을 현신시켜 국왕을 감복시키는데…. 정말 끈질긴 도사들, 여전히 포기를 못한다.

"어찌 이번 한 번의 일로 지금까지 저희들 공로를 한 번에 다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저들과 한번 법력을 겨루게 해주소서!"



그림 · 최주현

손오공, 도사와 도력대결 펼쳐
거지국왕의 도교편향에 일침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내용 담겨

줏대없는 국왕, 또 다시 마음이 흔들려 법력대결이 벌어진다. 도교 대 불교, 도사 대 스님!

우리 편 이겨라! 저쪽 편도 잘해라?

이야기가 종교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도교와 불교가 다투는군요. 본디 두 종교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그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요. 도교에도 출가자라 할 수 있는 도사(道士)가 있고, 절에 대응하는 도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국에서는 이 두 종교가 비를 내리게 하는 경쟁을 계기로 완전히 상하관계의 위치가 되었군요. 결국 수많은 스님들이 달아나고 죽고, 오백 명 남은 스님들만이 신장들의 가호를 받으며, 손오공 오기를 목 빠지게 기다라는 상황이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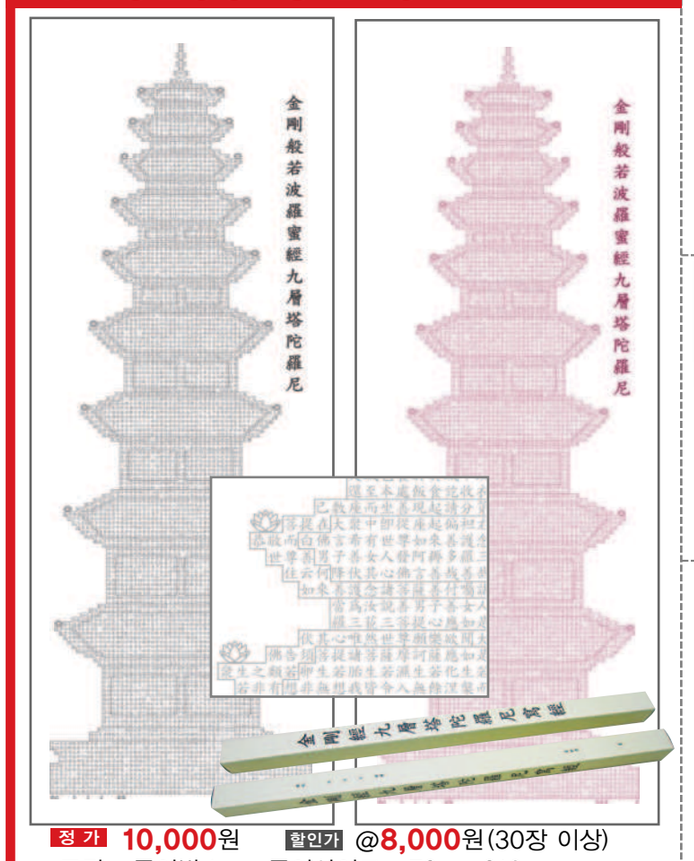
이렇게 종교들이 우열을 다투고, 그것이 사회적인 대립구도로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겠지요. 종교에도 좋은 종교 나쁜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사교(邪敎)도 있고 사이비 종교도 있고 미신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종교들이 서로를 헐뜯고 우열을 따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이 나게 됩니다. 종교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을 쏟아 붓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런 종교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 가장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세계가 한 울타리처럼 좁아진 현대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종교 간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여러 종교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른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만이 참된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모두 삿된 종교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이 독야청청, 홀로 존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주장을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종교의 참된 종교성을 의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자신의 종교가 가장 훌륭하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무한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내면적 믿음의 차원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각각 무한한 믿음의 자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개인들 각각이 자유를 가진 점에서는 평등합니다. 내 믿음의 자유가 남의 믿음의 자유보다 우월하거나 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내 믿음의 자유가 남의 믿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전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면, 포교의 자유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교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와 포교의 자유를 혼동해요. 그래서 포교의 자유가 무한하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남의 믿음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깊은 신앙심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종교 사이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결국 커다란 사회 갈등으로 증폭됩니다.

특히 권력자가 종교적 편향을 보이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종교에 의한 비극이 연출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유기의 대목이 바로 그런 경우지요. 국왕이 줏대가 없고 판단력이 흐려서 도교만을 우대하고 불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고 권력자, 또는 고위 관료들의 종교편향으로 빚어진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많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교적 종교적 갈등이 적던 우리나라도 이젠 그 문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이 종교 갈등, 공직자나 권력자의 종교편향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해보기로 하지요. 불교박해하는 거지국에서 손오공이 일으키는 풍파도 좀 자세히 살피구요. 다음 회에 뵈어요.

(특)대형금강경 9층 탑사경지 〈먹/적, 종이박스포함〉



정가 10,000원 할인가 @8,000원(30장 이상)
• 포장 : 종이박스 • 종이사이즈 : 76㎝×210㎝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영가옷 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C형-여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6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정 가 30,000원 / 30,000원(100개)
할인가 @270원 / @270원(1000개이상)


※ 크기
• 15.5×19㎝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정 가 30,000원(100벌)
할인가 @270원(1000벌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정 가 1,500원
할인가 1,300원 10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그 절집의 빛

⑭ 구미 도리사 극락전

蓮池會上으로 구현한 구품왕생 건축

〈연지회상〉

극락전 장엄 소의경전은 관무량수경

극락정토의 실상을 보이신 세 경전이 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이다. 정토삼부경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세 경전을 말한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정토의 공덕장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서 한 세계가 있는데,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 곳의 부처님을 아미타부처님이라 하며, 지금도 극락세계에서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즐거움만을 누리므로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칠보로 이루어진 보배연못 등 극락정토의 장엄세계를 세세히 설명하신다.

〈관무량수경〉에서는 말씀의 묘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부처님의 광명과 위신력으로 청정한 극락세계를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극락정토의 공덕장엄을 보이신 장면은 열 여섯 장면이다. 극락세계를 관상하는 16관법의 법문을 펴신 것이다. 관무량수경의 16관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불화가 '관경16관 변상도'다. 제1관은 서쪽 하늘로 지는 붉은 해를 관하는 일상관(日想觀)이다. 제2관은 물을 생각하는 수상관(水想觀), 그리고는 극락세계의 칠보로 된 땅과 보배나무, 보배연못, 보배누각을 두루 관상할 것을 가르친다. 이어서 연화대를 관하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깊이깊이 생각하며 마음의 눈으로 관조할 것을 주문하신다. 여기까지가 극락정토의 장엄실상이고, 또한 염불수행의 실천이 누차 강조된 내용이다. 염불(念佛)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토는 아미타여래께서 과거 법장비구로 계실 때 세운 48대원으로 성취한 세계다. 즉 극락정토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경영한 불국토로 극락왕생 서원의 구상적(具象的)인 세계다. 하지만 선종이나 화엄불교적 입장에서는 마음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관념론적 유심정토(唯心淨土)일 것이다. 그 바탕에는 경전내용에 대한 일정한 의구심이나 주관적 알음알이가 작용되고 있는 점이 없지 않다. 경전에서 관상, 관경, 염불이 그토록 강조하는 것을 보면 차원과 경계 너머의 실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으며, 장엄세계는 이러하며, 이 세계의 주체는 누구라는 것을 세세히 밝힌 대단히 실증적인 묘사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극락정토는 이미 아미타부처님에 의해 구현되어 있고, 중생구제 48대원의 본원력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문제는 극락왕생의 방도다. 〈무량수경〉에서 미륵보살께서 부처님께 물었다. "무슨 인연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도 태를 빌려 태어나는 태생(胎生)이 있고, 홀연히 태어나는 화생(化生)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신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공덕에 대해 의혹을 품고 다만 자기 힘만으로 공덕을 닦아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워 수행한 이들이 변두리 칠보궁전에 태생으로 태어나느니라. 그러나 의심 없는 신심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서원한다면 극락의 칠보연꽃 속에서 홀연히 화생하느니라." 의혹 많은 중생은 태생으로 태어난다는 대목이 이목을 끈다. 하지만 자력과 타력의 조화로운 신행이 중도의 진리행에 합치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반야용선의 방식, 연화화생의 방식

불교회화를 통해 나타나는 극락왕생의 방법은 세 가지쯤으로 매우 흥미롭다. 첫 번째 방식은 반야용선을 통한 대단히 직관적인 방법이다. 배라는 탈 것을 통해 바로 이상향으로 인도하는 방식이다. 〈반야용선도〉가 그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아미타내영에 의한 연화화생이다. 화생이라는 극적인 통과의례를 통해 정화의 질적 변화를 거친다. 〈관경16관변상도〉의 16관 중에서 상,중,하 삼배관(三輩觀)을 강조한 '구품왕생도(九品往生圖)'가 그 장면을 담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매우 드문 사례인데 거인이 도자기 그릇 같은 곳에 왕생자를 담아 하늘세계로 받쳐 올리는 도상이다. 청도 대적사 극락전 내부벽화에서 희귀하게 나타난다.

극락왕생 서원하면 칠보연꽃에 화생
연꽃 그림 위에 묵서로 극락구품 밝혀
건축 내부 공포 칸칸에 구품왕생 품계
상품상생 등 上生의 연꽃은 청색 채색



'연지회상'의 묵서명. 이곳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이다.



극락전 내부벽면 공포 칸칸에 장엄한 구품왕생도 연화좌. 향우측 뒷벽의 하품하생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아 향좌측 뒷벽의 상품상생의 순으로 배치했다.



내부 벽면 공포 칸의 부처님들.

극락왕생의 장면은 대체로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간이 건축적 장치를 통해 구품왕생의 불국토나 아미타정토로 경영한 사례도 있긴 하다. 구품연지(九品蓮池)의 경영이 그런 사례일 것이다. 구품연지는 마치 궁궐의 구품 품계석처럼 아홉 위계를 갖춘 연당을 말한다. 부여 정림사지 동서연지나 익산 미륵사지 연지, 제주도 법화사 구품연지는 현재 복원되어 실존하고, 불국사 청운교 앞 구품연지는 유구의 흔적이 전해진다. 〈관무량수경〉의 경전내용을 건축으로 구현하려는 의지의 흔적들이다. 또 부석사 가람의 석단들처럼 정토신앙, 혹은 화엄사상에 의한 구품만다라로 거시적 경영을 펼친 사례도 있다. 그런데 목조건축 자체가 아미타내영도이고, 구품왕생도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아도화상에 의한 신라불교의 초전법륜지로 전해지는 구미 도리사의 극락전이 그 건축이다.

'연지회상'이라는 이색적인 묵서명

도리사 극락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내부 공포 칸에 밝힌 장엄세계의 명확한 천명이다. 묵서명의 문자를 통해 건축장엄의 조형의지를 확고부동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향우측 뒷벽 공포 칸에 〈연지회상(蓮池會上)〉이라는 묵서명으로 성서로운 결집을 표방하고 있다. '연지회상'이라는 이색적인 용어는 이곳에서 처음 본다. 연꽃이 핀 연못에서 아미타부처님께서 여러 불보살, 성중, 왕생자가 모인 자리에서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인도 왕사성 기사굴산(영축산)에서 석가모니불께서 법화경을 설하신 장면인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연상하게 한다. 조금만 더 내부벽면을 둘러보면 그 연못은 구품연지임을 알 수 있다.

건축 내부의 공포 칸칸에 구품왕생 품계를 적어 놓았다. 구품왕생은 왕생자의 연화화생을 선업과 공덕의 근기에 따라 하품하생(下品下生)에서 상품상생(上品上生)까지 아홉 왕생장면으로 나눈 것이다. 구품왕생도의 소의경전은 〈관무량수경〉이다. 관무량수경 16관 중에서 14, 15, 16관은 상,중,하 삼배관을 설명한다. 향우측 뒷벽 모서리에 하품하생을 배치하고 시계방향으로 돌아 향좌측 뒷벽 모서리 부분에서 상품상생으로 끝맺는다. 오른쪽 어깨가 부처님께 향하는 우요삼잡의 운동방향을 취했다. 구품의 방제들은 연꽃 그림을 그려 넣고, 연꽃잎 끝자락쯤 검은 먹의 바탕에 흰 글씨를 단정히 써 내렸다. 구품왕생도에서 각 품생의 방제를 써넣은 경우는 일본 지온인 소장 〈관경16관 변상도〉(1323년) 탱화에서도 나오고, 문경 대승사 대웅전 목각후불탱의 하단부에서도 만날 수 있다.

극락전은 입체적 극락왕생도

그런데 경전에는 각 품생의 층위에 따라 왕생자에게 내놓는 대좌가 다르다. 이를테면 상품상생은 금강대, 상품중생은 자금대, 상품하생은 금련좌, 중품상생은 연화대좌, ...등의 방식이다. 도리사 극락전 포벽의 도상에서는 모두 연화좌로 통일했다. 다만 각 품계의 상생의 연꽃들은 다른 붉은 빛의 연꽃과는 달리 청색 계열의 색을 입혀서 상층 층위의 깊이를 차별화 했다. 관무량수경의 구품왕생 장면을 건축의 공포 칸을 이용해서 구현한 장면은 유일무이한 사례일 것이다. 단지 고흥 금탑사 극락전의 공포에 '화장세계해(華藏世界海)'라는 글이 있어 서로의 참고가 될 듯 하다. 도리사 극락전 자체가 입체적 아미타내영도이고, 구품왕생도이다.

그런데 의문이다. 왜 '연지회상'일까? 또 이 회상(會上)에 모인 분들은 누구실까? 구품왕생의 자리는 또 왕생자 없이 비워 두었다. 내부포벽을 둘러보면 후불벽 뒷벽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불보살을 모셨음을 알 수 있다. 한 벽면마다 다섯 분씩 그려 넣었다. 열다섯 분의 불보살 중에는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약사여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으로 다채롭다. 특이한 점은 보살도 여래로 표현했다는 점이다. 〈아미타경〉에서는 항하사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께서 그 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미치도록 한결같이 찬탄하고 호념하시는 분이 저 무량수불이신 아미타불이라 밝혔다. 극락정토의 거룩한 공덕과 장엄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 저 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라고 누누이 당부했다. 한번 들면 보리심에서 물러섬이 없는 불퇴전의 경지에 이르고, 세상에 더없이 선량하고 거룩한 이들과 한 곳에 모여 사는 구회일처(俱會一處)인 까닭이다.



노재학(불교미술 사진작가)

since 1994
모든여성의 필수품!

청결은 기본,
예방과 건강까지 챙겨주는 – 에도라!!
Ever Dream Of Lady

■ 에도라는?
여성의 몸에 좋은 순한방 추출물을 원천개발하여, 그 추출원액을 여성생활용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여성 스스로 청결, 예방, 건강개선 및 유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발명특허(함유물질과 제품자체) 제품입니다.

www.edola.co.kr

인터넷 | 에도라 검색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이럴때 도움이 됩니다
· 항상 청결을 원하는 분
· 불쾌한 냄새로 고민하는 분
· 분비물(냉)로 고민하는 분
· 생리문제(통증, 불순)로 고통받는 분
· 손, 발이 차가우신 분
· 잦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출산모의 산후조리, 항문 트러블
· 늘 피곤하고 기운 없음(허약체질)
· 자궁근종, 인유두종바이러스(HPV)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품에 대한 각종시험검사 내용은 에도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주문 : 031)484-4555 / 6
제조 · 판매원 : 라파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청룡4길 35
E-mail : webmaster@edola.co.kr

현대불교신문을 보고 상담 및 구매하시는 분들께 우대해 드립니다.

내 안에 무지개를 이끌어 내는 칼라, 크리스탈 스토리
'꼭 필요한 공부'

운명을 바꾸는 공부	먼저 나의 운기부터 바꾸는 공부 이젠 하셔야 합니다. 남의 운명을 봐주기 전에, 업장의 색깔에 덮혀있는 자신의 빛깔을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색상	진정한 보라색(바이올렛)은 현실 생활도, 수행도 함께 잘한다. ▶정신적 : 블루, 로얄블루 ▶육체적 : 옐로우, 오렌지 ▶핑 크 : 오랜 분노를 삭히고 무조건적 사랑으로 승화시켜 돈 문제 해결
내용	몸이 청소가 안되면 (의식공부 = 칼라 공부)를 못 받아 들인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의식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예전에는 → 지식으로 살았다. 현재에는 → 아님, 가르치는 자가 했던 일을 현재는 인터넷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바다는 너무 믿고 가면 안된다.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생각이 난무하는 시대, 지금은 창의력으로 자신도 가고 상담자에게도... 이젠 동토, 상문, 조상 탓 만이 아닌 멘토가 되어 주어야 한다.
적용	포교원, 사찰, 철학관, 운영에 꼭 필요한 이시대 공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일반인, 누구나, 상사, 동료, 부하직원, 친구와의관계, 부부 자식간의 관계 잘 다루어 가게 됩니다.

※ 특전 : 칼라스토리 공부 외 재미있고 정확한 숫자운세, 관상을 함께 가르쳐 드립니다.

문의 : 010-5658-2657



김용태 교수의
한국불교 토픽 36選

오랜 역사 비춰 상생·공존 이끄는 불교

37. 에필로그: 연재를 마치며

한국은 지리적·문화적·역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태생적으로 주변부의 속성을 지녀왔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다층적 공간 속에서 중화문명의 수용자이면서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한편 근대 이후에는 서양문명의 이식과 적용 과정에서 '탈전통'의 혼돈과 '탈주체'의 정체성 균열을 경험하였다. 근현대기에 나타난 맹목적 근대화 지상주의는 동양이라는 주변성, 더욱이 식민지의 아픈 상처를 탈피하고 넘어서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한국사의 흐름을 긴 호흡으로 되돌아보면, 특수(로컬)와 보편(글로벌)이 교차하면서 양자의 갈등과 융합이 되풀이된 과정이었다. 한국의 고유성(국풍)은 동아시아 차원의 문명성(화풍)과 결합하면서 변화와 도약, 확산을 거듭하며 확장되었다. 불교의 경우에도 전래 이후 토착신앙과 고대적 관념과 충돌하고 변용, 조화하면서 보편성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고유성을 창출하였다. 개인의 심성을 표출하고 내세로 향하는 방법을 제시한 불교는 고대 한국인들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던져주었다. 이는 한국사에서 자연의 법칙성과 도덕을 결합시킨 사회윤리이자 정치이념인 성리학, 합리적 이성과 제도, 그리고 과학문명을 내세운 서양 근대문명에 견줄 만한 파급력을 가진 것이었다.

불교는 지난 2500년간 인도에서 출발하여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고도의 사유체계이자 보편적 종교로서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불교의 세계화 과정에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격의적 문화 접변, 그에 따른 창발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고, 제3의 수많은 파생문화가 생겨났다. 한국 또한 불교 수용 이후 동일한 문명화, 보편화의 길을 걸어왔다.

근대기의 저명한 한국학자인 최남선(1890~1957)은 한국의 역사전통에서 불교가 미친 영향력과 그 위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그는 '조선불교의 대관으로부터 〈조선불교통사〉에 급함'(1918)이라는 글에서 "한국의 역사와 불교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불교는 서민의 정신생활과 사회의 심령적 발전에서 유교보다 큰 역할을 해왔고, 사회적 세력과 문화적 영향력 또한 매우 컸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불교야말로 불교 유통에서 중요한 계통이자 결론적인 불교로서, 교리보다 학문연구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며 중국과 다른 특수하고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고 의미부여 하였다.

최남선은 1930년 7월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범태평양 불교청년대회에서 발표하기로 되어있던 '조선불교-동방문화 사상에 있는 그 지위'(1930)라는 글에서 다시 한 번 한국불교의 보편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동서 문명 교류에서 동방 교통의 종착지인 한반도가 문화의 최후 정류지이며, 동아시아 불교사의 전개에서 삼론종의 승랑, 법상종의 원측, 화엄종의 의상 등 한국승려들이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원효를 통불교, 전불교의 건설자로서 최고로 평가하였다.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파되면서 원심적 분화 경향을 가졌지만 한국불교는 구심적 귀합의 경향성을 보이며, 그 대표자인 원효에 의해 교학의 이론적 종합, 일승사상의 완성, 이론과 실천의 융화와 불교의 대중화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극찬한 것이다. 나아가 최남선은 인도 및 서역의 서론적 불교, 중국의 각론적 불교에 비해 한국불교는 최후의 결론적 불교라고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석굴암, 고려대장경 등을 예로 들며 동방문화의 교차지점인 한국이 동아시아 불교사상 및 예술, 불교전적의 집성과 유통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높은 위상을 차지했음을 거듭 강조하였다.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고유 특성 형성하며 전개
한국사회 현실 속에서
미래 여는 종교로 변해야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특성을 '한국불교 토픽 36선'이라는 시리즈로 연재하였다. 신문지상에 나간 토픽별 제목은 윤문을 통해 약간의 변화를 주었지만, 시대별로 게재한 36개의 토픽 주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국〉(5개 토픽)은 불교 전래의 전사와 수용 과정을 서술한 것으로, 1-불교의 탄생과 전개, 동점의 여정, 2-불교, 한반도에 들어오다, 3-신라, 불교와 왕권의 만남과 시너지 효과, 4-불교, 토착신앙과의 융화와 대중적 확산, 5-삼국의 불교 교학 이해, 학파불교의 전성기이다.

불교 공인기는 삼국에서 모두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수용한 시기였다. 신라에서 왕권과 불교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전륜성왕 관념, 불교식 왕명 사용, 진종 의식의 성립을 들었다. 이어 삼국의 교학 이해, 계율 정립, 원광의 세속오계와 자장의 교단 체제 정비를 소개하였고, 현세와 내세의 복을 기원하는 불교신앙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관음신앙, 미륵 도솔천 상생과 하생신앙, 전생의 죄를 참회하고 선행을 닦는 점찰법회, 아미타불의 서방극락정토 왕생신앙 등을 다루었다. 또한 토착신앙과 불교의 갈등과 융합과정을 언급하고, 팔관회, 백고좌회, 불국토 관념 등을 들어 호국불교의 모습을 설명하였다.



1998년 금강산 신계사를 찾아 통일을 기원하며 탑돌이를 하고 있는 스님들. 1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는 시대 흐름 속에서 수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제는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선도하는 불교로 거듭나야 할 때다. **사진=〈한국불교100년〉**

〈통일신라〉(5개 토픽)는 6-정토, 내세의 유토피아를 꿈꾸다, 7-원효,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뛰어넘다, 8-교학불교의 만개: 의상 화엄과 해동 유식, 9-통일신라, 불교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우다, 10-불교 새로운 시대를 열다: 선과 풍수지리이다.

삼국통일 과정과 그 이후 불교가 삶의 고통을 위로하고 내세의 안락을 기원하는 한편 지방사회의 통합에 기여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저잣거리에서 활발히 전개된 불교 대중화의 양상을 원효와 아미타 정토신앙의 확산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어 유식학의 원측, 경흥, 태현, 화엄학의 의상은 물론 모든 교학을 종합한 원효의 사상을 정리하였고, 통일신라 후대에 도입된 선종의 전래와 산문의 개창과정을 기술하였다. 또 선승들에 의해 도입된 풍수지리설의 유행과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다음 〈고려〉(7개 토픽)는 11-고려 불교 어떻게 볼 것인가?, 12-교종과 선종의 공존: 광종의 기획과 의천의 승부수, 13-지눌, 결사의 시대와 선교겸수 전통, 14-문화국가의 자부심, 고려대장경을 조성하다, 15-고려의 불교의례와 신앙의 향연, 16-한국불교의 자화상을 그리다: 해동고승전과 삼국유사, 17-원간섭기 불교계의 변화와 임제종 간화선풍의 유행이었다.

고려는 흔히 불교국가라고 할 만큼 불교가 사회적으로 중시되었고 전 계층에 걸쳐 신앙되었다. 다만 국가는 사찰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불교를 관리, 통제하였고 교단의 정치 세력화는 경계하였다. 고려는 승정체계를 관료체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였는데 이는 정치와 종교의 이원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징적으로 왕사와 국사를 두었고 국가의례로 연등회와 팔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고려의 불교교단은 화엄종, 법상종 등의 교종과 조계종, 천태종의 선종이 병립하였다. 고려는 두 차례의 대장경 조성, 의천 등에 의한 불서의 간행과 유통을 통해 동아시아 불교문화권의 주역이 되었고 문화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 고려후기에는 보조 지눌로 상징되는 선종 계통이 교계의 주류가 되었는데, 무신정권 이후 결사운동이 확산되었고 임제종 간화선풍이 크게 유행하였다.

〈조선〉(13개 토픽)은 일반 대중은 물론 학계에서도 그간 주목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실상 또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더욱이 식민지기 이후 억불과 쇠퇴의 도식이 투영되어 조선시대 불교의 슬픈 자화상이 그려졌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존립하였고, 한국불교의 원형이자 전통의 근간을 이루는 시기인 만큼, 비중을 늘려서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18-불교와 유교의 패러다임 전환과 조선불교 다시 보기, 19-조선전기, 억불정책을 단행하다, 20-전통의 유산, 왕실불교와 국왕, 21-선교양종의 재건과 도약의 전조, 22-임진왜란, 의승군 나라를 구하다, 23-임제법통의 성립과 문파의 형성, 24-선과 교, 염불의 융합: 이력과정과 삼문, 25-종교적 지형의 확대: 내세와 정토, 민간신앙과의 융합, 26-조선후기 승역의 양상과 사원경제의 기반, 27-유불 교류와 심성의 교차, 28-중국불서의 전래와 화엄의 전성시대, 29-19세기 선 논쟁의 전개와 선교일치, 30-불교 역사서 찬술과 전통의 집성이다.

여말선초에는 불교에서 유교로 상부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고 유교국가를 표방한 조선은 공식 영역에서 불교를 배제하였다. 조선 초에 사원의 경제기반을 국가에서 회수하는 억불책이 시행되었고 여러 종파가 선교양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중종대에는 법제적 폐불 상황까지 갔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듯 사찰의 대대적 철폐나 승려의 환속은 없었다. 또한 왕실불교의 전통은 조선말까지 이어졌고, 불교는 여전히 내세의 기원을 해소하는 종교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특히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신앙이 성행하였고 산신각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신앙이 사원 공간 안에 포섭되었다.

임진왜란의 의승군 활동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17세기에는 선교겸수의 교육과정, 선과 교, 염불을 아우르는 수행체계, 임제 선종 계보의 법통이 정비되었다. 조선후기에는 국역체계 안에서 승역이 운용되면서 승려의 자격과 활동이 인정되었고, 각계의 후원과 사원의 경제적 자구책 마련을 통해 많은 중창불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강학을 통한 교학 연찬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주석서가 나왔다. 삼교일치론 주장이나 유학자와의 밀접한 교류는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난 보편적 현상이었다.

끝으로 〈근현대〉(6개 토픽)의 토픽 주제는 31-문명개화와 불교 근대화의 길을 찾다, 32-사찰령 체제의 현실: 자주적 종단의 꿈 물거품이 되다, 33-불교근대화와 세속화의 상징: 대처식육, 34-근대불교학의 수용과 불교 전통의 조형, 35-식민지 유산의 청산: 불교정화의 빛과 그림자, 36-한국불교의 현재와 나아갈 길이다.

근대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의 모습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개혁론과 근대적 지향, 식민지의 정치적 현실, 대처 문제의 시대적 배경과 전개, 근대불교학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한국불교사 이해의 축적, 정화의 과정과 결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과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한국불교는 인도는 물론 중국과도 다른 고유한 특성을 형성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이는 불교의 보편성과 확장성이 한국적 토양에 완전히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역사에서 불교는 사상, 종교, 문화, 의례, 문학 등 많은 영역에서 거대한 변화를 추동해 왔고, 한국인의 심성과 가치관의 저변에는 유교와 함께 불교적 맥락이 잠재되어 있다. 장기지속, 내재적 전통의 가장 중요한 축이자 역사였던 불교는 지금 현재도 한국사회의 현실, 한국인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다만 독선과 배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포용과 융화, 절충과 조화를 이끌고 상생과 공존의 미래를 여는 불교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끝〉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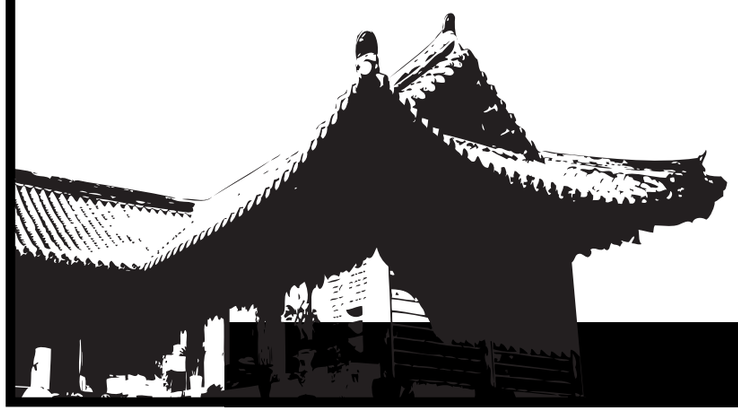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니까야서 길을 묻다 사띠(念) ①

사띠의 기초 '잊지 않기'

'기억, 인식, 의식, 마음의 주의, 마음의 깨어 있음, 주의 깊음, 정신 차림, 마음의 평정, 자의식의 의식.'

열거한 말은 팔리어 '사띠(sati)'의 뜻으로, 팔리어 텍스트 협회에서 출간한 팔리어 사전의 풀이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하나의 불교용어 해석에 이처럼 갖가지 언어가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띠에 내재된 다의적인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사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사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에 '위빠사나' 명상 관련 서적이 번역 출간되면서이지만, 불교계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현대 심리학과 명상의 기법을 결합시켜 만든 '치유의 방법'들이 도입되면서일 것이다. 이 치유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 현장에서 사띠는 서구권에서는 '마인드풀니스', 우리말로는 '알아차림'으로 이해되고 있다. '감정'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괴로움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인지치료'에 초점을 맞춘 해석일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은 불교계에서도 수행의 현장에서 '알아차림'이란 말을 즐겨 쓰고 있다.



그림 · 나은영

사띠를 '알아차림'의 의미로 파악하여 '치유'를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사띠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띠의 의미를 제대로 풀어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앞서 제시한 사띠의 다의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니까야〉와 〈아함경〉 전체를 대상으로 용어 '사띠'에 주목하여 읽어가다 보면, 매우 다양한 용법들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주목할 하나의 측면은 '잊지 않기'이다. 팔정도의 '정념(正念)'을 '올바른 기억'으로 해석하던 바로 그 뜻이다. 그러나 '기억'이라는 해석은 사실 판단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쉽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라는 능동성이 약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잊지 않기'라는 의미로써 사띠를 이해하는 하나의 독법(讀法)이 필요하다. 〈니까야〉 번역서나 학술논문에서 '새김' '마음지킴' '마음챙김'으로 옮기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되새김' '마음에 늘 간직함' '명심(銘心)'이라는 말로 옮겨도 동일한 이해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사띠의 기본적인 의미가 '잊지 않기'에 있다는 독법의 가능성은 '염불(念佛)'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난다. 지금 이 땅의 사찰에서 매일 거행하는 염불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염불의 본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다. 염불이란 글자 그대로 말하면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좀 더 구체화시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겨 명심하고, 자신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며,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성찰하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챙기려는 태도 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염불이다. 즉, 이때의 '염(念)'이 바로 사띠의 가장 기초적인 의미를 구성한다.

사띠를 '잊지 않기'로 해석하여 염불의 의미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근거는 〈법구경〉의 제296, 297, 298 게송에서 발견된다. 여기서는 부처의 제자라면 늘 깨어 있으면서 부처(佛), 부처의 가르침(法), 이를 따르는 이들(僧)을 '사띠'한다는 표현이 나온다. 팔리어 원어인 '붓다(buddha)' 뒤에 '가따(gatā)'가 붙어 있는데, 이 점은 '담마(法)'와 '상가(僧)'에도 공통한다. '가따'는 동사어근 '가다'의 과거분사로서 '-간, 도달한'의 뜻이기 때문에 '부처에게로 가는(간)'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에 이르려는 자세를 드러내는 말이 바로 '잊지 않기'인 것이다.



김준호(불교철학/울산대 연구교수)

산문 밖의 禪

최유현 자수장

한 땀 한 땀 부처님 곁으로…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또는 "꽃들이 온 세상을 수놓았다."라는 표현이 있다. 단순히 은하수가 떠있고,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수놓았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이처럼 '수놓다'라는 단어는 쉽게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의 표현으로 쓰이고 있으며, 수를 놓는다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은유하고 있는 셈이다. 은하수가 밤하늘을 수놓듯이, 꽃들이 온 세상을 수놓듯이 바늘 하나와 오색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한 평생을 살아온 이가 있다. 수를 놓아 불화를 그려온 최유현 자수장(80 ·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이다.

박도일 수필가 jwpark4284@daum.net



심선신침(心線神針), 수선일여(繡禪一如)

2016년 5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자수 작품 전시가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현 자수장의 '심선신침, 최유현 자수전'이다. 최 자수장의 전시는 그동안에도 수 십 차례 있었지만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는 처음 열리는 전시이며 최 자수장의 60년 자수세계를 망라한 전시였다.

연화장세계도(270×300cm), 팔상도(236×152cm,8점), 삼세불도(257×103cm, 257×128, 257×103), 지장보살도(164×190cm), 팔금강도(132×70cm) 등 그의 대표작인 자수불화를 비롯하여 그의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화장세계도와 팔상도, 삼세불도 등 크기가 3미터에 가까운 그의 자수불화는 일단 보는 이를 그 크기로 압도한다. 또한 멀리서 보면 자수라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한 자수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오색실은 물감이 되고, 바늘은 붓이 되어 수많은 점과 선들을 이루어 마침내 실과 물감, 붓과 바늘의 경계를 허무는 '자수'가 탄생하는 것이다.

13세에 처음 바늘 들어

통도사 팔상도로 자수불화 발심

발심 기도 10년, 완성에 12년

일본자수 벗어나 한국자수 열어

해외 포함 20여 차례 전시

도솔래의상 · 비람강생상 · 사문유관상 · 유성출가상 · 설산수도상 · 수하항마상 · 녹원전법상 · 쌍림열반상 여덟 그림을 말하는 '팔상도'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장면으로 나누어 그린 그림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인 최 자수장의 팔상도는 통도사에 있는 팔상도를 그대로 자수로 옮긴 것이다. 한 작품 당 높이가 2미터를 넘는 팔상도 여덟 점은 이번 전시의 압권이었다. 붓으로 그렸다고 해도 놀라울 일인데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매듭을 짓기까지 12년(1986~1997)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본래 팔상도를 비롯한 불화의 의미는 그림이라는 의미를 넘어,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경전과 같은 것이다. 경전의 한 자 한 자에서 환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최 자수장의 팔상도와 불화들은 같은 환희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외 삼세불도 역시 오랜 세월이 걸린 작품으로 13년이 걸렸다.

그의 작품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 올 한 올 그 색과 형태를 달리하는 실들이 전하는 질감과 입체감은 경이롭다."는 평을 받았다. 그렇다 그의 자수는 경이롭다. 앞서 말한 '규모'에서 경이롭고, 회화와 자수의 경계를 허무는 '표현'에서 경이롭고, 길고 긴 작업 시간의 '정성'에서 경이롭다. 그리고 그 표현과 정성은 세간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과 정성이라는 것에 또한 놀라움이 있다.

"단순히 그림을 모사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찾아낸 그림(대상)에서 또 다른 그림을 창조해야 합니다. 불화에서의 그 '창조'는 다름 아닌 신심

최유현 자수장은…

16세 때 스승인 권수산 선생 문하에서 6년 간 공부하며 자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후 부산여중과 부산여고에서 수예교사로 재직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국전에서 두 차례 입상했으며, 1960년에 최유현자수연구소를 개설했다. 해외를 포함해 20여 차례의 전시를 열었다. 대한민국 전승공예전에서 '연화장세계'를 비롯한 자수불화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부장관상, 문화재위원장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 외 부산시 문화대상, MBC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1996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으로 지정됐다. 현재 부산대 복식문화연구소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75권의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바로보인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부처님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뿔〉로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가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moonzenpress.com 참조

도서출판 문젠 (구,바로보인) ☎ 031-534-3373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 종 서 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繡禪一如’ 자수불화로 발심을”

〈수선일여〉

이겠지요. 그리고 그 신심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수(불화)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되어 바늘을 들 수 있어야 12년, 13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처럼 보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랬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의 자수불화는 눈에 보이는 놀라움과 아울러 구(求)하는 자의 면목이 있었다. 그것이 또 다른 그의 표현과 정성의 근원이었다. 그에게 바늘을 들고 앉은 12년, 13년이라는 시간은 한 만기의 안거였다. 한 땀 한 땀의 바늘 자국은 치열한 가부좌의 자국이고, 한 땀 한 땀 오색실의 자국은 ‘나’를 향해나간, ‘나’를 지워나간 삼매의 자국이었던 것이다. 그가 말하는 ‘심선신침’ 뒤에는 ‘수선일여(繡禪一如)’가 있었다.

팔상도를 보다

“어느 날, 통도사의 팔상도를 보았죠. 그리고 그 팔상도를 자수로 지을 수 있기를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죠.”

최 자수장이 유년기를 보낸 시기는 물질의 값어치보다는 마음의 값어치에 기대 살던 시절이었다. 물자가 귀한 시절이었기에 손수 만든 물건이 값을 대신하는 시절이었고 대표적으로 여성의 혼수가 그랬다. 정성으로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다. 그 정성의 대표적인 물건이 자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성들은 자수가 일상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혼인은 일륜 중의 큰일이었다. 그 큰일을 치르기 위해 여성들은 평소 어머니 밑에서 자수를 익혔다. 최 자수장 역시 그랬다. 최 자수장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다. 무엇이든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열세 살 때 최 자수장은 바늘을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자수장은 권수산이라는 그 당시 자수의 대가를 만나게 된다. 최 자수장이 열여섯 때였다. 권수산 선생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목포로 피난을 왔고, 자수 학교를 세웠다. 최 자수장은 권수산 선생이 세운 자수 학교에서 자수를 체계적으로 익히게 된다. 그리고 1960년대 초, 최 자수장은 그 동안 공부한 전통 자수를 널리 알리고 나누고자 ‘최유현자수연구소’를 개설해 후학을 양성하기에 이른다. 최 자수장은 우리 자수의 맥을 잇고 우리 자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창작 활동을 해나갔다. 생활 속에서 사라지는 자수가 아닌, ‘작품’으로 남아 자수의 저변을 넓히는 자수를 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작품이 모이면 전시를 열었다. 1970년대~1980년대에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해외 전시를 다섯 차례나 열었다. 권 선생을 만나기 전인 10대와 20대에 규방의 전통 문화에 바탕을 둔 자수를 익혔던 그는 권 선생 밑에서 자수의 눈을 뜨게 됐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 때까지의 자수에 적지 않은 회의를 품게 된다.

“어느 정도 자수에 눈을 뜨고 나니 회의가 밀려왔어요. 왜 같은 것만을 답습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좀 더 새로운 자수의 소재를 찾고 싶어졌던 거죠.”

그랬다. 당시는 일제강점기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시절이었다. 모든 문화가 그랬다. 그 암울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자수 역시 국적 없는 자수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최 자수장은 그런 시대적 배경을 깊이 체감했던 것이다. 그는 한국 전통의 문양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일본 자수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는 한국의 민화와 옛 유물에 깃들어 있는 다양한 문양과 조형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밑그림으로 하여 수를 놓기 시작했다. 한국 자수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 자수장은 민화와 옛 유물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다. 그도 어느덧 40줄에 들어섰을 때였다. 우연히 찾게 된 통도사에서 그는 팔상도를 보게 된다. 그는 무릎을 쳤다. 결론은 ‘불화’였다.

맥 잇기 위해 작품 팔지 않아

“대상과 하나 되어야 의미 있어”

40대부터 불화작업만 100여 점

자수로 불교의 문화적 외연 넓혀

“죽는 날까지 바늘 안 놓을 것”

“하지만 팔상도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그래서 일단 자그마한 아미타부처님을 모시는 것으로 조심스러운 시작을 했죠. 저의 첫 자수불화는 아미타부처님이었죠.”

그렇게 불화에 눈 뜬 최 자수장의 가슴 깊은 곳에는 늘 팔상도가 있었다. 언제가 팔상도를 자수로 짓고 싶었다. 그는 틈이 나면 통도사를 찾아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팔상도를 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최 자수장은 팔상도의 첫 바늘을 심게 된다. 기도에 10년, 완성에 12년,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셈이다. 그렇게 최유현의 팔상도는 태어났다. 그는 40대부터 거의 불화를 중심으로만 작품 활동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100여 점이 넘는 불화를 자수로 옮겼다.

“작품, 팔지 않아요”

2014년부터 부산대(복식문화연구소)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기르고 있는 최 자수장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로 강단에 선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자수라는 매력 있는 문화를 물려받았어요. 또한 그 속에는 불화라는 무궁무진한 환희심의 세계가 있어요. 계승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자수의 매력을 알면서도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시작하는 이도 많지 않지만 그마저도 도중에 그만 두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최 자수장은 그동안 만들어온 그의 작품을 한 점도 팔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본인의 자수와 더불어 우리 자수의 맥을 잇고 싶은 염원에서다.

“작품을 잘 보존해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면 이 어려운 일이라도 해보겠다는 후학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지요. 자수는 느림의 미학이고 정성의 미학이죠. 힘든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할 수 없어요. ‘느림’과 ‘정성’을 받아들일 때 바늘을 들 수 있어요. 저의 자수가, 불화가 그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무언가 눈으로 보아야, 감동을 받아야 발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지요. 부디 저의 자수를 보고, 불화를 보고 발심하는 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수하면서 부처님 가까이 갔죠”

“저는 ‘초파일 신자’였죠. 불화를 알게 되면서부터 부처님 가까이 가게 됐죠.”

불교와의 인연을 묻자 최 자수장은 그렇게 답했다. 최 자수장은 한 땀 한 땀 부처님을 짓고 연화세계를 지으면서 불법에 다가가게 됐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드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에 다가가지 않고는 진정한 불화를 그려낼 수 없었던 것이다. 최 자수장의 자수에 대한 평가 중에는 “최유현 자수장의 작품에는 ‘창조’가 있다. 단지 옛것을 그대로 베끼어 옮김이 아닌 그만의 정감 있는 시선과 격조 높은 미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천진난만하며 자유분방한 민화에서 불화자수로 넘어가면 장엄한 아름다움으로 이어져 보는 이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최 자수장의 자수가 자수라는 분야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의미와 함께 불교의 외연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넓혔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시에 5천 여 명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은 신중탱화를 하고 있어요. 7할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완성되면 관세음보살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곁에 바늘과 실이 있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여든의 그이지만 그가 추구하는 예술과 신행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예술과 신행에서 전법의 새로운 희망을 본다. 그의 간절한 바늘 한 땀 한 땀이 불국토와의 거리를 한 뼘 한 뼘 좁혀주기를 희망한다.

최유현 자수장의 작품들



석가모니불도



연화장세계도



지장보살도

전법일기

임종 두려움 넘은 염불삼매

“스님! 안녕하십니까?”

길을 가로막는 듯한 굵직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라봤다. 병원로비에서 거사님 한 분이 밝은 표정으로 합장인사를 하고 계셨다.

“네! 반갑습니다. 몇 호에 입원하셨어요?”

“6층 병동입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그러는 중입니다.”

“빨리 치료받고 완쾌하셔서 정상적인 생활 하셔야죠!”

“고맙습니다, 스님. 말씀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법당은 어디에 있죠?”

“별관 103호에 있는데 법당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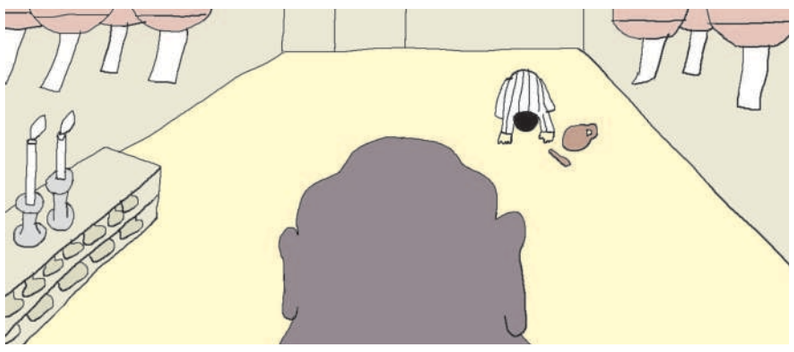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예~ 고맙습니다.”

법당에 도착하자 거사님은 부처님전에 정중히 삼배를 올렸다. 그리고는 찻잔을 앞에 두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디가 편찮으신 건가요?”

“폐가 안 좋다고 합니다.”

“하시는 일이 뭔데요?”

“경찰관이에요. 기동대 큰버스 운전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어쩌다 건강이 안 좋아진 거예요?”

“직업이 이렇다보니 밤새서 대기할 때 지루하니까 담배도 많이 피우고, 피로가 누적돼서 그리됐죠.”

“다른 곳으로 전근도 어려우신가요?”

“예. 그런 셈이죠.”

짤막한 대화를 나눈 거사님은 그날부터 법당에 다녀간 날이면 항상 메모를 남겨놓았다. 병실에서 함께 기도하며 인연을 쌓은 거사님은 찬불가를 좋아했다. 특히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참 잘하셨다.

어느 날인가는 법당 복도에 목탁소리가 울려 퍼져 법당문을 열어보니 거사님이 목탁을 치고 계셨다. 인기척에 놀란 거사님은 목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이쿠, 스님! 죄송합니다. 허락도 없이 목탁을 쳐서….”

“아니에요. 정진하는 모습 보기 좋은데요. 열심히 하세요!”

용기를 북돋는 말이 됐는지 거사님은 종종 법당에 내려와 목탁을 치며 큰소리로 독경을 하셨다. 하지만 병세가 말기에 이르자 거사님의 발걸음은 뜸해졌다. 그러다 거사님이 병원 10층에서 뛰어내리려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극심한 통증 때문이었다. 어느 날은 병실에 들렀는데 거사님이 뜬금없이 불쑥 질문을 던졌다.

“스님,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면 참말로 극락갑니까?”

나는 자신에 찬 목소리로 “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저 같이 좋은 일 한 적도 없고, 술 마시고 노름도 했는데 염불만 하면 갈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할 거라곤 염불밖에 없네요.”

순간 거사님의 눈빛이 반짝이는 듯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경승실장스님은 거사님에게 아미타경과 108염주를 선물했다. 특히 왕생극락발원문을 열심히 읽으라는 당부도 하셨다.

거사님은 아픈 와중에도 염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염불을 하셨다. 하지만 슬프게도 거사님의 임종은 예상보다 빨랐다. 가족들은 거사님이 평온한 모습으로 작별인사를 나누고, 혼몽 중에도 정신이 들 때마다 입술을 들썩이며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례는 거사님 자녀인 두 남매가 상주가 돼 치렀다. 거사님의 아들은 장래희망이 경찰관이라고 했다. 의식의 끈을 놓는 그 순간까지 염불삼매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사님의 의지처럼 아들 역시 굳건한 의지로 멋진 꿈을 이뤄내길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다.



무관 스님(서울 경찰병원 법당 지도법사)

우리 삶을 바꾸는 기적, 절 수행!

청견 스님의 천만배 완결 깨달은 절수행이란?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차리고 다스려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고통과 절망에서 희망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줄 ‘절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생생한 경험담!



다르마킹 칼리지
매주 화~토 오후 2시
절 교육 및 수행 점검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의 저자
청견 스님의 신작!

전국에 108배 열풍을 일으킨 청견 스님이 그동안 천만 배의 절을 하며 체험한 이야기들과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울림들을 담았다.

현대인이 겪는 몸과 마음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절 수행의 기본 동작부터 마음가짐, 그 속에 담긴 의미까지, 첫 책보다 더욱 깊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간중간 그려 넣은 다양한 일러스트는 책을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청견 스님 지음 / 신국판 / 328쪽 / 값 15,000원

깨달은 공동체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선바위길 6 ● 전화 010-3487-0035 ● www.법왕정사.net ● 판매총판 : 운주사 02-3672-7181 ● 인터넷서점: 붓다북

우리는 인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사바세계를 감인토(堪忍土)라고 한다는 말은 불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쉽게 말하면 견디고 참고 사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수행에 있어서도 인욕심이 없으면 안 된다.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정신이다. 본문에서 세 번째 수행문인 인문(忍門)을 이렇게 설하고 있다.

"남이 주는 괴로움을 잘 참아서 보복할 마음을 품지 않으며, 또한 마땅히 이(利), 쇠(衰), 훼(毁), 예(譽), 칭(稱), 기(譏), 고(苦), 락(樂) 등의 법에도 참아야 한다."

중생의 세계는 자신의 밖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인욕의 힘을 먼저 요구한다. 〈금강경〉에 과거 500생을 인욕선인으로 수행하다 가리왕으로부터 사지를 잘린 수난을 당하고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있듯이 인욕할 수 있는 정신이 있으면 남에게 관대해질 수가 있고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격언처럼 역경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성공을 기약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참고 용서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복수하려는 생각을 품지 말며, 또 자신을 이롭게 하거나 해롭게 하거나, 헐뜯거나 칭찬하거나 괴로움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더라도 이러한 모든 일에 마음이 동요됨이 없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수행에서도 인욕심 필요해
十忍 이루면 일체 걸림없어

이른바 여덟 가지 바람(八風)이라고 하는 것, 이익이 생길 때(利), 손해가 날 때(衰), 명예를 훼손할 때(毁), 명예롭게 할 때(譽), 칭찬할 때(稱), 비방할 때(譏), 괴롭게 할 때(苦), 즐겁게 할 때(樂)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인문을 닦는 기본자세라 하였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사람의 마음이 이러한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도록 일러준 것이다.

본래 인(忍)은 범어 'ksanti'를 번역한 것으로 찬제(羼提)라 음사하는데 '참는다' 뜻과 '용서한다'는 뜻이 함께 들어 있는 말이다. 또 화엄학에서는 인가(認可)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화엄경〉 '십인품'에서는 인을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보현행품'에서는 "화를 한 번 내면 백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고 하였다.

인욕바라밀에 대해서 〈해심밀경〉이나 〈유가사지론〉, 〈섭대승론〉 등에는 삼인설(三忍說)이 설해져 있다.

①내원해인(耐怨害忍) : 다른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해도 이를 잘 참아내고 편안히 머물러 보복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②안수고인(安受苦忍) : 질병, 수해, 화재, 칼 몽둥이 등에 의해 온갖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잘 참아내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③제찰법인(諦察法忍) : 모든 존재의 자체 성품이 텅 비어 허깨비 같아 본래 생멸이 없음을 관찰함으로써 진실한 경계를 믿고 깨달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편안히 머무는 것.

이상의 삼인(三忍)의 설명에서 마음에 불안이 없고 편안하여 동요하지 않는 것을 인(忍)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인(忍)을 지혜와 같은 뜻으로 보기도 한다.

깨달음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인(忍)을 무생법인(無生法忍)이라 한다. 모든 존재 자체가 공하여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이치를 깨달아 그 진리에 편안히 머물러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상태를 지혜로운 것으로 본다.

80권본 〈화엄경〉에서는 보살이 열 가지 삼매를 얻고 열 가지 신통을 얻은 다음의 경지를 십인(十忍)으로 설명하면서 이 인을 얻으면 일체 보살의 걸림 없는 지위에 도달하여, 모든 불법에 대해 걸림이 없고 다함이 없다 하였다.

자비심이 없다면 보시도 청정치 않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㉗ 보살의 마음

受施者大得財物。餘人見之歡喜讚歎。菩薩爾時菩提之果如在掌中。悲心淨則施淨。若無悲心施不 淨。菩薩作是思惟。善調順意者敬悲心勝能使施淨。菩薩見貧窮者悲心極重。眾生極貧得菩薩施便成巨富。譬如有人得如意珠所欲皆得。諸貧窮者得ᵹ菩薩一切貧苦悉皆除滅。菩薩先行財施。次捨所親。又捨手足。復捨身命。如是漸漸次第而捨。菩薩往乞者所與其財寶。喚其乞者與其諸親。若乞者自來現求索相與其手足。若發言求索便捨身命。若不來者自往施之。有來求者 捨身命。況復財物而不施與。(수시자대득재물。여인견지환희찬탄。보살이시보리지과여재장중。비심정즉시정。약무비심시불청정。보살작시사유。선조순의자경비심승능사시정。보살견빈궁자비심극중。중생극빈득보살시변성거부。

비여유인득여의주소욕개득。제빈궁자득치보살일체빈고실개제멸。보살선행재시。차사소친。우사수족。부사신명。여시점점차제이사。보살왕걸자소여기재보。환기걸자여기제친。약걸자자래현구색상여기수족。약발언구색변사신명。약불래자자왕시지。유래구자상사신명。황부재물이불시여。)

번역

시주를 받은 이가 큰 재물을 얻으면, 나머지 사람이 보고 기뻐하며, 찬탄합니다. 보살은 이때 보리(菩提)의 열매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이 깨끗하면, 베푸는 것이 깨끗합니다.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보시가 청정할 수 없습니다. 보살은 이런 생각을 짓되, 착하고 조순한 마음과, 공경과 자비심으로 수승하여 능히 보시가 깨끗하도록 합니다. 보살은 가난하고 궁핍한 이를 보면 자비심으로 지극히 중히 여깁니다.

중생이 지극히 가난하다가 보살의 보시를 얻어 문득 큰 부자가 되는 것은, 비유하자면 사람이 여의주를 얻고 바라는 바를 다 얻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가난하고 빈궁한 이가 보살을 만나게 되면, 일체의 가난과 고통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보살은 먼저 재물을 보시하고, 다음으로 아끼는 것을 희사하되 또한 손발을 희사하며, 다시 몸과 목숨을 희사합니다.

이와 같이 점점 차례대로 희사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에게로 가서 재물을 주거니와 구걸하는 이와 그와 친한 이를 부릅니다. 만약 구걸하는 이가 와서 현재 구하고 찾는 것이 형상이라면, 그 손과 발을 줍니다.

만약 발언하여 구하고 찾는다면 문득, 몸과 목숨을 줍니다. 만약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면 스스로 찾아가 베풉니다.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오히려 몸과 목숨을 희사하거니와 하물며 다시, 재물인들 베풀지 않겠는지요.

해설

보살은 곧 여의주다. 여의주는 '일체를 비추어 보는 신비한 구슬'이다. 〈불설대의경〉에 나오는 '신비한 구슬'이어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귀한 보배를 쏟아낸다. '원만성취'의 구슬이며, 보물과 음식, 옷과 약 등을 얻게 하며, 악을 제거하고 탁수를 맑게 하며, 허물을 없앤다. 주는 것이 곧 깨달음이니 어찌 아니 그렇겠는가.

보살은 찾아와 구하는 이에게 재물과, 손발과, 심지어 몸과 목숨까지 베푼다. 가령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가서 재물과, 손발과, 몸과 목숨을 베푼다.

보살의 베품은 보살의 기쁨이자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 아상(我相)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상을 여읜 보살이 곧 해탈한 이다.

화엄경 〈세주묘엄품〉 5권에 법계보음보살마하살이 부처님을 찬탄한 게송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옛적에 중생 위해 자비심 내어 보시바라밀다를 닦았으므로 그 몸 가장 수승하고 미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셨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내 죽거든

내 죽거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알리지 말길,
관이니 상여니 만들지 말길,
그저 입은 옷 그대로 둘둘 말아서
타오르는 불더미 속에 던져 버릴 것,
한줌 재도 챙기지 말고 버려 버릴 것.

내 죽거든
49재다 100일재다 제발 없기를,
쓰 잘 데 없는 일로 힘겨워 말길,
제삿날이니 생일이니 잊어버릴 것,
죽은자를 위한 그무엇도 챙기지말 것.
죽은자의 사진한장도 걸어두지말 것.

내 죽어
따스한 봄바람으로 돌아오리니,
피고 지는 들꽃 무리 속에 돌아오리니,
아침에는 햇살처럼, 저녁에는 달빛처럼,
더러는 눈송이 되어 더러는 빗방울 되어.

티베트의 당시옹이란 곳의 게스트하우스 에서 고산증으로 쓰러져 죽음을 맞은 듯 흐르고 혀와 입술은 수없이 갈라져 맹물을 마시면서도 고통스러웠다. 목젖이 퉁퉁 부어 침까지 삼킬 수 없을 만큼 온 몸이 만신창이로 부서지고 있었다.

당시 나의 옷차림은 넝마차림의 거지꼴이었고 사타구니 부분은 오래전부터 진물 터진 상처투성이의 병명을 모르는 만성 피부염을 앓고 있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용기와 오기가 동시에 일어났다.

델리 대학병원을 찾아가 여권과 향봉의 웃는 얼굴이 천연색으로 박혀있는 '사람귀하'라는 책을 들이밀며 'Help me'를 거듭거듭 외쳐댔다. 아마도 병원 바닥에 쓰러진 이후 병원 측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 같다. 그것도 박사과정의 한국 유학생의 눈에 띄어 입원 절차를 마치게 된다.

소위 출가(出家)한 구도자로서 깨달음을 향해 스스로 택한 고행자의 길이었지만 더러는 가슴이 비어 허전하기도 하고 더러는 쓸쓸하고 외로움에 타는 갈증을 느끼며 향수병에 젖어 우는

간절히 수행하면 누구나 자유 얻는다
적당히 수행하면 적당히 이루게 된다

예감하고 사력을 다해 쓴 글이다.

게스트 하우스의 관리인에게 고산증세를 알리며 도와 달라 하였으나 시골이라 고산증 고쳐줄 병원 없고 오지라서 택시도 없다며 가끔씩 죽는 여행객이 있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준다. 온 몸이 마비되어 굳는 고통 속에서 부처님을 부르고 어머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안간힘을 다해 유언장으로 쓴 글이 '내 죽거든'이다.

티베트에서는 경찰이 아닌 무장군인이 외국인 숙소를 가끔씩 검문 차 다녀간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그들의 군용차에 실려 군인병원에서 그들의 응급조치로 되살아나게 됐다.

그들이 나의 소지품을 돌려 줄때 겨워낸 이물질이 말라 붙어있는, 볼펜으로 쓴 '내 죽거든'이 삐뚤빼뚤 눈물방울이 되어 원고지에 박혀있었다.

인도에 머물 때는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死境)을 헤맨 적이 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불덩어리인데도 이빨이 달달달 떨리며 뼛속에 까지 얼음덩이가 박힌 듯 몹시도 추웠다. 온 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가벼운 바람이 스쳐도 살결이 아팠다. 땀은 흥건히 비 방랑자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몸과 마음을 추스르며 엷어져가는 간절심을 챙기며 마음을 모아 갔다. 하나도 간절심이요, 둘도 간절심이요, 셋도 간절심이었다.

커피를 마시고도 커피 맛을 말이나 글로 표현 할 수 없고 김치를 먹고도 김치 맛을 글이나 말로 표현 할 수 없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의 내용을 얼마만큼이나 말씀으로 표현하실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수 십년이 지나 제자들의 합송으로 이루어진 경전에는 얼마만큼의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질 수 있었겠는가?

하여, 나는 스스로 수행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과 의미를 '참앎(知)'과 '참봄(見)'으로 완성하고 싶었다. 간절하게, 참으로 간절하게 수행하던 나는 끝내 종교적인 아름다운 체험으로 온갖 의혹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된다.

적당히 수행하면 적당히 이룬다. 참으로 간절하게 간절심으로 시공(時空)을 벗어 버리면 누구나 자유인, 해탈자가 되는 것이다.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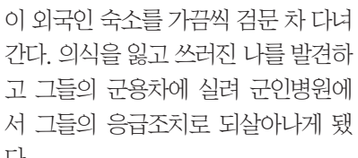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앰프 설치비용
A형 : 전체 설치비 1,28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CD기, 마이크 2개
B형 : 전체 설치비 1,60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마이크 1개
C형 : 전체 설치비 1,850,000원
구성 : 앰프, 스피커, 무선해드셋, CD기, 구즈넥,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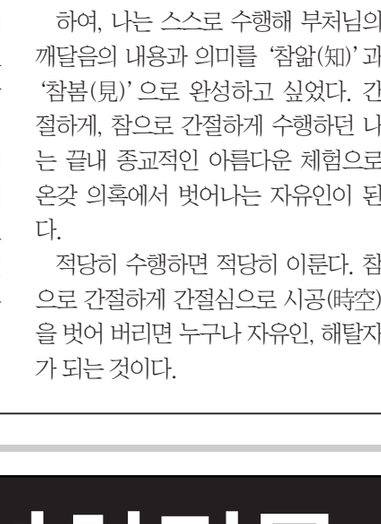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명산대찰 불상 중수·개금한 뛰어난 조각승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⑫ 계심(戒心) 스님





18세기 후반 계심 스님이 만든 대표작인 1778년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사진 왼쪽)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사진 오른쪽)
사진제공=온양민속박물관 ·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의정부 덕수사에 소장된 1778년 계심 제작 치성광삼존상의 대좌와 상단의 묵서(중앙)



사진제공=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내장산 주석하며 남부지역 활동
상정 계보 이어 18여년 불사 참여
선운사 백련암 불상이 대표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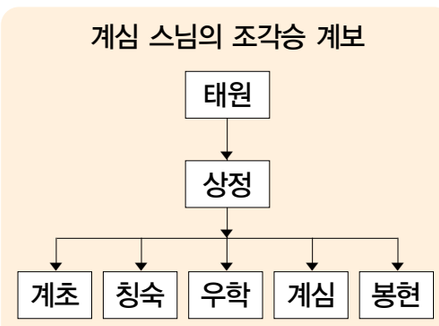
18세기 후반에 계초(戒初) 스님과 더불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조각승은 계심(戒心) 스님, 칭숙 스님, 봉현 스님 등이다. 이 중 계심 스님은 18세기 중반을 대표하는 상정(尙淨) 스님이 주도한 불사(佛事)에 부화승(副畵僧)으로 참여할 명성과 실력을 갖춘 작가이다. 스님은 스승인 상정 스승과 마찬가지로 명산대찰(名山大刹)에 봉안된 목조불상을 주로 개금(改金)·중수(重修)하고, 암자에 봉안하는 중소형 불상을 조성하였다. 현재 계심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목조불상은 1건 2점과 목조대좌 1점이 조사되었다.

계심 스님의 생애와 조각승이 된 배경을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불상에서 나온 발원문과 사적기 등을 통하여 활동 시기와 거주 사찰, 조각승 계보 등을 밝힐 수 있다.

계심 스님은 1771년 4월에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을 개금하는데, 이 불사에 상정 스님을 도와서 부화승으로 참여하였다. 당시 참여한 작가는 8명으로, 계심 스님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그 후 계심 스님은 1778년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12일 동안 수화승으로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을 개금하였다. 불상의 대좌에 적힌 묵서(墨書)에는 정수사 법당 삼존과 여러 암자의 불상 30여구를 중수·개금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계심이 우화당 태원의 손제자(孫弟子)라는 기록이 있어 스님의 법맥을 밝힐 수 있다(重修改金大法堂三尊本寺諸庵及外屬庵佛相三十位幷合同○訖功而爲首戒心也卽去壬寅改金主」雨華堂大禪師太元之孫弟也). 현재 계심 스님의 스승을 직접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계심 스님이 1771년에 직지사 불상 개금에 수화승 상정과 작업한 것을 보면, 상정이 태원의 제자이면서 계심의 스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계심과 같이 직지사 불상을 개금 중수한 우학(宇學, 羽學 : -1754~1774-)은 1774년에 지리산 대암정사에서 중간(重刊)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에 상정과 시주자로 참여하는데, 아버지가 박세강(朴世綱)이고, 어머니가 장만화(張萬花)라고 적혀 있다. 그는 1754년에 수화승 계초와 전남 곡성 수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을 제작하고, 수화승 상정 스님과 1755년에 전남 창평 용흥사 상선암 목조불좌상(양주 회암사 봉안)을 조성하고, 1771년에 경북 김천 직지사 불상을 개금하였다. 따라서 계심 스님과 우학 스님은 선후배 사이로 보인다.

계심 스님의 조각승 계보



계심 스님은 1778년 6월에 정읍 내장사 원적암에서 치성광삼존불상과 고창 선운사 백련암에 봉안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을 조성하면서 관음보살을 개금하였다. 이 불상들은 모두 내장사 원적암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계심이 원적암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계심 스님은 1780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천왕상을 개금하고, 금강, 문수, 보현을 칭숙(稱淑), 성민(聖民), 진선(震禪) 등과 제작하였다. 또한 스님은 1787년에 18명의 스님들과 전북 고창 선운사 대법당, 장육전, 팔상전 불상을 중수·개금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밝혀진 계심 스님의 활동 시기는 1771년 4월부터 1787년까지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원문과 사적기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계심 스님은 당호가 묵양당(默讓堂)으로, 1720년대에 태어나서 1740년대 보조화승으로 활약하였고, 1770년대 상정 스님과 불상 제작과 개금을 주도하면서 암자에 봉안하는 중소형의 불상을 수화승으로 제작하였다.

18세기 후반은 새로운 불상을 만든 필요성이 없었던 시기적인 특징으로, 계심 스님은 주로 호남과 영남의 주요 사찰에 봉안된 불상을 중수·개금할 정도로 전국적인 명성을 인정받았다. 계심 스님은 1778년에 정읍 내장사 원적암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계초 스님이 내장사에 거주했기에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같이 불사를 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계심 스님은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칭숙 스님, 봉현 스님과 같이 불상의 개금 작업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계심 스님의 계보는 태원(-1698-1748-)→상정(-1743-1775-)→우학(-1745-1774-), 칭숙(-1754-1780-), 계심(-1771-1787-), 봉현(-1780-1790-)으로 이어진다.

계심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대표적인 작품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이다. 보살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건륭 44년 무술 윤유월 일에 무장 선운사 백련암의 아미타존상과 대세지보살을 정읍 내장산 원적암에서 새로 만들었다. 성전에 있는 치성광삼존상과 칠성불은 새로 만든 것이지만, 관음존상은 금칠만 했다."라고 쓰여 있어 1778년에 원적암에서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치성광삼존불과 칠성(七星)을 묵양계심, 행안, 천민, 세관, 융감이 제작하였다. 이 가운데 고창 선운사 백련암에 봉안할 삼존불은 관음보살상이 남아있어 중수와 개금하고,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을 새로 만들었다. 불상이 조성된 원적암은 〈범우고(梵宇考)〉와 〈가람고(伽藍考)〉에 "전라북도 정주군 내장산에 있다", 〈태고사사법(太古寺寺法)〉에 "정주읍(井州邑) 내장면 내장산 내장사에 있고, 본사는 백양사의 말사이다"라고 적혀 있다. 원적암은 내장사에서 북쪽으로 비자나무 숲과 월출봉으로 가는 1.1㎞ 지점 일주문에서 고내장(古內藏)을 지나 2.1㎞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적암은 1087년에 적암대사가 창건한 후, 조선시대에 관련된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1950년 12월 21일을 전후하여 소실되었다.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목조아미타불좌상 내에서는 특이하게 종이로 만든 사각형의 후령통이 조사되었고, 목조대세지보살좌상에서도 발견된 품목과 후령통의 형태가 동일하여 같이 제작된 불상이라고 볼 수 있다.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상체를 앞으로 살짝 내밀어 자세가 구부정하다. 머리에는 뾰족한 나발과 경계가 불분명한 육계가 있고,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앙계주와 정수리에 둥근 보주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여래상은 방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위로 조금 올라갔고, 코는 원통형이며 입은 살짝 미소를 짓고 있다. 손은 따로 제작하여 손목에 끼워 넣었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댄 수인을 취하고 있다. 바깥쪽에 걸친 대의는 변형우견편단으로,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가슴까지 내려와 물방울 같이 U자형으로 늘어져 있다. 나머지 대의자락은 팔꿈치와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반대쪽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복부에서 편삼과 자연스럽게 접혀있다.

목조대세지보살좌상은 높이가 48㎝인 중소형으로, 정수리 부분에 단순하게 조각한 보계를 끼웠고, 화염문과 화문 일부가 남아있는 커다란 보관을 쓰고 있으며, 귀 밑으로 늘어진 보발은 어깨 위에서 둥글게 말린 뒤에 세 가닥으로 늘어져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여래상과 유사하지만,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복부에서 늘어진 중앙의 옷자락이 S자형으로 처리되고, 옆으로 다섯 가닥으로 펼쳐져 대좌까지 길게 늘어져 마치 끝자락 사이사이에 연봉오리가 튀어나온 것 같이 표현하였다. 또한 승각기는 가슴에서 수평으로 묶어 상단에 연판형 주름을 넣어 자연스럽게 좌우대칭을 이룬다. 보살상의 측면은 어깨선을 따라 두 가닥의 옷 주름이 수직으로 내려와 끝자락이 U자형이고, 그 앞으로 한 가닥의 주름이 접혀있다.

또한 같이 조성된 치성광삼존상은 불상은 없어졌지만, 의정부 덕수사에 목조대좌가 남아있다. 이 목조대좌의 상판에 "乾隆四十四年戊戌閏六月日井邑內」莊山圓寂庵七星殿」熾盛光日月兩大菩薩七星如來」新造成奉安蓮臺卓上」毘首後代人默讓堂戒心」幸安」天民」世瓘」融鑑 … 訂師 定波 瑞和」誦經呪 天定」看香 性主」主穀 進楚 ……"이라는 묵서가 남아있어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대세지보살좌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내용이 동일하여 같이 조성된 대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조연화대좌의 규격은 24.3㎝×112.5㎝×28.9㎝로, 본존이 앉은 대좌 밑에서 옆으로 뻗어 나간 연화줄기와 연봉오리가 좌우 존상 받침을 들고 있는 형태이다. 대좌에는 연봉오리와 연밥 등이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이 목조대좌는 중앙에 치성광여래와 좌우에 일광과 월광보살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에서 치성광삼존상이 만들어진 것은 유일한 기록이다.





스님·화가의 콜라보 '一心'으로 피어나다

금강 스님 · 오치규 작가 '내 마음에 탑 하나' 展



금강 스님 · 오치규 작가 作 '한 알의 모래알에서 우주를 보다'

전남 해남 땅끝마을에 위치한 달마산에는 천년고찰 미황사가 자리하고 있다. 예로부터 많은 석학들이 쉼을 위해 찾았던 곳, 미황사. 이 곳에서의 스님과 화가의 인연이 아름다운 미술작품으로 꽃피웠다.

인연의 주인공은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과 오치규 작가다.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 전시전인 '내 마음에 탑 하나' 전은 7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나우에서 펼쳐진다.

두 사람의 인연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시작됐다. 긴 작품활동에 지친 오치규 작가가 2006년 미황사에 휴식 차 방문하면서 부터다.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의기투합했다.



"처음 오 작가와 차담을 하며 '아 이 사람이 신선한 감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이 확고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백의 미가 강조되는 오 작가의 작품 또한 불교사상이 담겨있었어요.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작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탁본과 서예 등을 취미로 해온 금강 스님은 평소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게 달라이라마, 법정 스님 등의 글귀를 쓴 부채를 선물해왔다. 지금까지 스님이 만든 부채만도 1000개가 넘는다. 이를 본 오 작가가 스님에게 작품활동을 제안했고, 스님은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재미있는 선물을 선사한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작업을 시작했다.

7월 6~19일 갤러리 나우서 개최
2006년 미황사 첫만남서 의기투합

금강 스님은 "스님도 세상과 소통해야 하고, 산사 속에도 현 시대의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작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함께 1박 2일간 작품활동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이 콜라보레이션에 대해 부끄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 둘 씩 나오는 작품들에 내재된 미를 발견하시고는 저보다 더 즐기시더라구요. 저 또한 종교인, 스님과는 처음으로 협동작업을 하는데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오치규 작가는 스님과의 협동작업이 자신의 작품에 또 다른 깊이를 더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불교철학 내재된 작품성향 특징
전시수익은 달라이라마 방한에 사용

작품 속 미황 스님의 글과 오치규 작가의 그림은 작품 속에서 마치 한 사람이 한 것과 같아 보인다. '한알의 모래알에서'와 같은 작품은 붓으로 찍은 수많은 점과 스님의 글을 통해 '일즉다 다즉일'의 화엄세계관을 절묘하게 표현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도 스님의 글귀 하나가 어우러지면 절로 무릎이 탁 쳐진다.

오 작가는 "너무 글을 잘 써도, 그림을 잘 그려도 문제다. 스님과 함께 소통하며 힘을 뺐다, 줄였다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지속돼 스님이 진행하는 '참사람의 향기' 템플스테이 디자인 작업 등을 오 작가가 맡고, 오 작가가 교수로 있는 충남대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스님이 강연하기도 했다.

이번 전시전은 단순한 전시로만 끝나지 않는다. 7월 7일 오후 5시에는 금강 스님과 오치규 작가의 사인회 및 작가와의 만남이, 16일에는 '톡톡톡' 즉문즉답 콘서트 등이 함께 열린다. 향후 두 사람은 갤러리 나우의 전시전 외에도 미황사 내 갤러리와 서울의 다양한 갤러리에서 전시전과 대중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작품의 판매 수익금은 금강 스님이 추진하고 있는 달라이라마 방한 사업에 쓰인다. 두 사람의 유쾌한 인연이 대중들과의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02)725-2930



노덕현 기자

천년고도 경주서 만나는 '신라의 빛' 향연

경주엑스포, 7월 5일부터 '실크로드 新(羅)光 특별전'
안종연 · 서남희 등 작가 8인 참여
미디어 · 평면 · 사진 등 작품 선보여
관객 참여로 완성되는 '열린 미술'


안종연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 고주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신비로운 만화경의 세계를 만들고, 관객들이 기도와 명상,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사진작가 임채욱 작가는 경주 남산 석불을 소재로 한 입체 사진을 출품했다.

천년고도서 만나는 '신라의 빛'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를 향해 지구촌 곳곳으로 발산하는 신라의 빛을 테마로 한 전시회가 마련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7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실크로드 新(羅)光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빛'을 주제로 사진, 회화, 설치,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다양한 분야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이다. 참여 작가로는 사진, 회화, 설치, 조각, 미디어아트 등 분야별로 독보적인 예술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안종연 · 서남희 · 안종대 · 조용준 · 양쿠라 · 한송준 · 양재문 · 임채욱 등 8명이다.

특히, 평면 유화작업부터 거대한 스테인리스 조형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안종연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교 철학을 바탕으로 '빛의 무한공간'을 선보인다. 고주파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신비로운 만화경의 세계를 만들고, 관객들이 기도와 명상,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토함산 석굴암 본존불상 등 신라미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등 신라와 실크로드를 주제로 현대미술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설악산이 사람인 것처럼 설악산과 인터뷰한 사진으로 주목을 받은 임채욱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입체 마애불상 작품을 출품했다. 경주 남산 석불을 소재로 이를 입체 사진으로 생동감있게 재구성했다. 일반 사진용 인화지가 아닌 특수한지를 사용해 사진작품을 입체화했고, 이는 현장을 생동감있게 재현토록 만들었다. 설악산과 인터뷰해 주목을 받은 작가의 경주 남산과의 인터뷰가 기대를 모으게 한다.

젊은 작가인 양쿠라는 움직이는 예술인 '키네틱아트'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아비 키네틱 아트는 70여 마리의 나비와 그 날개짓의 움직임을 통해 새로운 빛을 표현한다. 또한 전시장 내에 암실을 설치해 반딧불이가 어둠 속에서 초록색 빛을 발하며 움직이도록 만들어 오묘한 빛의 색을 느끼게 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등을 통해 독특한 감흥을 자아내는 라인(line) 작업을 선보여 온 조용준 작가는 경주 전시에서도 전시장 전체를 가로지르는 '줄의 공간'을 선보인다. '스트링 공간 설치작업'인 이번 작품은 전시장 전체를 전방위로 가로지르는 색색의 튼튼한 실을 설치하고, 부스와 부스 사이에 연결통로를 만들기도 하고 천정에서 바닥으로 어려 빛깔의 색실을 드리워 산란하는 빛의 파장을 연상하도록 연출한다.

안종대 작가는 '빛과 시간이 만든 자연친화적 미술'을 기치로 이색적인 설치작품을 선보인다. 그의 설치작업은 시간과 그에 따른 변화에 주목하게 만든다. 종이 및 오브제 작품을 벽면에 설치하고 관객들이 밟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바닥에도 작품을 배치한다.

이번 전시에 대해 경주엑스포 윤범모 예술총감독은 "이번 전시는 천년고도 신라와 실크로드 문화를 새롭게 해석한 '오묘한 빛'의 축제로 관객 참여 작품을 통해 '열린 미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전통은 미래와 어우러질 때 더욱 돋보인다는 점에서 전통미술의 보고인 경주에서 미래지향적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것은 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054)748-301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의 전시 유물을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보성군은 "올해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태백산맥문학관, 한국차박물관, 보성문화원,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에서 문학 강의, 체험프로그램, 무료 및 할인입장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한다"면서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에서는 6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물관 관람료를 성인은 기존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초 · 중 · 고등학생은 2천원에서 1천원으로 할인하기로 했다.

'한국안의 작은 티베트'라 불리우는 대원사 티베트 박물관은 티베트의 정신문화와 예술세계를 소개하고 한국 불교와 영적 교류를 활발히 하기 위해 지난 2003년 건립됐으며, 박물관 내부에 티베트 불교 관련 유물 600여점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061)852-3038

신성민 기자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의 큰 뜻을 함께하실 종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인연법의 가르침속에서 쉼없이 활동하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제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목탁 대승정과 뜻을 함께할 **사찰과 암자, 포교당 주지스님과 원장**이라면 **누구나 종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교법인 : 국제선불교조계종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대승정 목탁

대표 전화번호 02)733-5665, 010-3618-6061 / 기획실 010-4467-9600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22~2015.6.2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설정,박원자	나무를심는사람들
2	스님의 비밀	자현/석공	조계종출판사
3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혜민	수오서재
4	초발심자경문강설(무비스님의)	무비스님	조계종출판사
5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6	지장기도(손으로쓰고마음으로그리는)	지원스님	민족사
7	어라 그런대로 안녕하네	지찬스님	들녘
8	스님의 생각(자유하라, 깨우쳐라, 행복하라)	정법안	쌤앤파커스
9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법륜	나무의마음
10	흘반난,밥먹기어렵다	김진태	불광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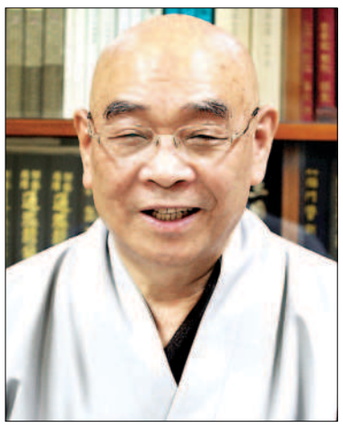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쉽게 풀어 쓴 〈화엄경〉 역경 불사 첫 발 내딛어

화엄경소론찬요 1, 2

혜거 스님 | 불광 펴냄 | 각권 3만원, 2만 5천원





탄허기념박물관 화엄각 건립 발원 계기
1년에 두 권씩, 10년 동안 총 20권 완역
〈화엄경소론찬요〉, 화엄경 최고 주석서
탄허 스님 번역본 참고해 해석 작업

"여러분은 〈화엄경〉에 대해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 것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차 소리, 기차 소리, 온갖 잡소리, 새소리, 벌레 소리, 산비탈의 물소리, 우주 전체가 화엄경 아닌 것이 없습니다. (중략) 그렇게 되면 전체가 화엄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따로 들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를 따로 찾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을 피할 이유가 없으며, 천당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았다고 좋아할 것이 없고, 죽는다고 서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엄경〉 도리입니다." 〈탄허 강설집〉 中에서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사진〉이 입산해 처음 접한 경전은 〈화엄경〉이었다. 행자시절을 보낸 영은사는 스승인 탄허대종사께서 오대산 수도원이 해산 된 후, 이의 연장선상서 3년 결사를 선포하고 〈화엄경〉 번역이라는 대작불사를 시작해 강의한 역사의 도량이었다.

혜거 스님은 "그 당시 탄허 대종사께서는 행자인 저에게 〈화엄경〉을 청강하라 하시며 설령 알아듣지 못할지라도 들어두면 글눈이 생겨 안들은 것보다 낫다고 권하셨다"며 "이제 와 생각해 보면 행자 출가 즉시 〈화엄경〉 공부 자리에 참여한 것은 전생의 숙연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는 행운 중 행운으로 늦게나마 대종사의 은혜에 감사드린다"고 회고했다.

'불교 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약칭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는 최상의 경전이다. 하지만 천상과 지상을 오가며 일곱 곳(7處) 아홉 차례(9會)에 걸쳐 설해진 〈화엄경〉의 내용이 워낙 깊고 오묘한 데다 그 분량 또한 방대하여, 불교에 해박한 사람들도 접근하기 어렵다.

이에 대강백 탄허(呑虛, 1913~1983) 스님이 〈화엄경〉 번역을 비롯해 중요 화엄학 관련서를 모두 집대성하고 현토역해(懸吐譯解)해 〈신화엄경합론(新華嚴經合論)〉(전 47권)을 간행했으니(1975년), 이는 한국 근대불교사에 획기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번역과 출판에 무려 17년이 걸렸으며, 원고 매수 62,000장에 이르는 대작불사였다. 이 책을 계기로 스님들을 비롯해 재가불자들도 불교 경전에 쉽게 다가가기 시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점차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던 신행 풍토가 진리탐구의 수행 정진으로 탈바꿈 했다.

〈신화엄경합론〉이 간행된 지도 어느덧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현대인의 안목으로는 방대하게 집대성한 화엄경의 요체를 쉽게 따라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춰 〈화엄경〉의 개요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좀더 간결하고 명확한 〈화엄경〉 강설이 필요했다. 이에 탄허 스님의 제자인 탄허기념박물관장 혜거 스님이 불교TV를 통해 〈화엄경〉 강좌를 열고, 이를 토대로 역경 대작불사 원력을 세우게 됐다. 〈화엄경소론찬요〉 120권을 현토(懸吐)해 완역하는 지난한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혜거 스님은 "몇해 전 범어사서 〈화엄경〉 강좌를 하시는 무비 스님께서 서울서도 한 번 〈화엄경〉 강좌를 열어보라고 권할때만 해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러나 자곡동 탄허기념박물관 화엄각 건립 불사 발원의 인연공덕으로 〈화엄경〉 강좌를 열면서 대작불사의 원력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혜거 스님이 완역을 대본으로 삼은 〈화엄경소론찬요〉는 명말청초 때의 도패(1615~1702) 대사가 약술 편저한 책으로서, 청량 국사의 〈화엄경소초〉와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의 정요만을 뽑아 편집했다. 청량소초는 철저한 장구(章句)의 분석으로 본말을 지극히 밝혀주었고, 통현론은 부처님 논지를 널리 논변해 자심(自心)으로 회귀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청량소초와 통현론은 〈화엄경〉을 상세히 해석한 양대 명저(名著)이다. 〈화엄경소론찬요〉는 이 방대한 해석을 보다 쉽고 간명히 축약해 동시에 풀어주고 있어, 〈화엄경〉 묘체(妙諦)를 밝혀주는 오늘날 최고의 〈화엄경〉 주석서이다. 혜거 스님은 〈화엄경소론찬요〉에 다시 탄허 스님 번역을 참고하면서 현대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서로 편저한 것이 특징이다. 혜거 스님의 번역은 군더더기 없는 직역을 특징으로 한다. 번역 당시의 유행한 문체로 번역하면, 이삼십년의 세월만 지나도 그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간행하게 된 〈화엄경소론찬요〉 1·2권은 〈화엄경〉 80권본 39품 중 〈세주묘엄품(世主妙嚴品)〉에 해당하며,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 1권부터 제 11권까지의 분량이다. 〈세주묘엄품〉은 〈화엄경〉 전체의 서론이자 총론에 해당하며, 법회에 모여든 인물들을 통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다. 탄허 스님이 번역에 몰두해 문체를 통일하고 교정하는 데만 꼬박 2년의 시간이 흘렀다. 혜거 스님은 "내년 상반기에도 완역된 새 책이 나올 예정이며, 앞으로 1년에 두 권씩, 10년 동안 총 20권 분량으로 완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엄경〉은 부처님 세계에 대한 참모습을 밝히며.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진리의 세계는 중중무진(重重無盡) 연기의 세계이며 동체대비(同體大悲) 사상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이 세계는 어떤 곳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바로 〈화엄경〉 속에 펼쳐져 있다. 탄허 스님의 말씀처럼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대해 귀가 따갑게" 들어왔지만, 방대한 분량과 난해한 내용으로 인해 〈화엄경〉에 다가갈 엄두를 못 냈다면, 〈화엄경소론찬요〉 일독을 권한다. 비로소 불교적 세계관을 이해하며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혜거 스님**은?
1959년 삼척 영은사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김제 흥복사 등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금강선원을 개원했고, 〈한암대종사문집〉과 〈탄허대화상문집〉 편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제 7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현재는 한국전통불교연구원 원장,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대원정사 회주, 탄허기념박물관 관장 등을 맡고 있다.

엄마의 부정적 말은 아이를 아프게 한다

내 아이가 듣고 싶은 엄마의 말〉

민병직 지음 | 더난출판 펴냄 | 1만 4천원



아이가 잘못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힘 들고 속상한 것이 엄마들의 자연스러운 심리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혼나고 야단맞는 아이들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다음의 일기처럼 말이다.

나는 엄마가 무슨 말을 할 때 기분이 좋냐면 "사랑해" "고마워" "좋아해" 그럴 때 나의 기분은 화사해진다. 나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가 기분이 싫으냐면 "필요 없어" "조용히 해!"이다. 그때의 나의 기분은 마음이 무거워지고, 절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고, 집을 나가고 싶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

실제로 저자가 담임을 맡은 한 2학년 아이도 집을 나가 엄마 속을 태운 일이 있는데, 나중에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엄마는 잦은 훈계와 설교로 아이를 다그쳤다고 한다. 좋은 옷을 사주고 용돈도 모자람 없이 주었음에도 아이에겐 엄마의 부정적인 말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다.

공감 언어는 아이의 마음 움직인다

많은 엄마들은 아이가 변화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화를 낸다. 그러나 감정이 실린 비난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기 쉽다. 아이 또한 다음과 같이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엄마 "이게 얼마짜리인데 화병을 깨? 너 때문에 미치겠다."
아이 "내가 일부러 깼나요?"
엄마 "그럼 네가 잘했다는 얘기니?"
아이 "내가 언제 잘했다고 그랬어요?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이 녀석이 꼬박꼬박 말대답이네.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아이 "닮긴 누굴 닮아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럴 땐 "장난을 치다 화병을 깼구나. 새로 사려니 신경이 쓰인다"처럼 평가나 명령, 비난을 배제하고 사실 그대로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분명히 알아듣고 행동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아이의 말문을 열려면 엄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아이의 감정 표현을 이끌어내는 '공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니?" "정말?"처럼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말을 해주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생각에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며 대화를 잘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말들로 대화를 유도하다 보면 아이의 사고력을 키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엄마 언어 습관 바뀌면 아이 창의성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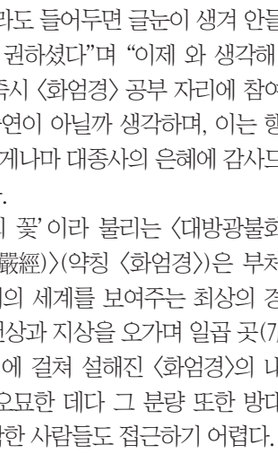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현명한 엄마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질문이다.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야?" "왜?" 같은 열린 질문은 아이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고, 아이를 단편적인 지식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아이의 호기심을 키워줌으로써 학습 욕구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대답이 늦더라도 끈기 있게 기다려주는 자세다. 도중에 답을 말해주거나 참견을 하면 아이는 스스로 답을 찾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아이들, 또 엄마들과의 상담 사례와 다양한 에피소드, 아이들의 일기 등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 엄마들에게 필요한 언어 습관을 소개한다. 두뇌를 계발하고, 재능을 이끌어내고, 도덕성과 책임감을 키우며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등 아이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기 위한 영역별 대화법 또한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풀검은 "자녀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아이들이 늘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라"고 말했다. 엄마가 변화할 때 비로소 아이도 변화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져온 말들을 돌아보게 해주는 이 책은 엄마의 말습관을 변화시킴으로써 아이를 밝고 활기차게 변화시키고, 나아가 아이의 재능과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저자 **민병직 선생**은?
청주교육대와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3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경기도 삼가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향후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행복제작연구소'를 세우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저서로는 〈머리를 물들여본 아이가 성공한다〉 〈아이, 당신의 것이 아니다〉 〈주니어 라이브러리 '문학'〉 〈전생의 DNA를 찾아야 성공한다〉 등이 있다.

경허선사의 사상과 선풍을 만나다!



경허선사의 출생년, 법제자, 법맥 등을 바로 정리!
선사가 남긴 글들을 총망라하여 원문과 우리말 번역은 물론, 740여 개의 상세한 각주를 달았다.

鏡虛禪師語錄
경허선사어록

기존 어록집들을 비교 정리하고, 현장답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경허선사의 작품으로 잘못 알려진 것들은 버리고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은 첨부하여 철저히 자료에 근거한 어록집으로 새롭게 엮었다.

무이 거부 역 / 신국판 양장 / 544쪽 / 값 27,000원 / 무이정사

광대한 불법의 바다를 안내하는 나침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지? 스님은 뭐하는 분이고, 절은 어떤 곳일까?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불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자 교양서.

처음 만나는 불교 1~3



박이오 저
국판변형 케이스
전3권 / 값 29,000원

1 청년 붓다, 대자유의 길을 찾아 떠나다
2 스님, 한 마음 밝혀 온 세상 비추네
3 절, 몸과 마음을 내려놓다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풍력발전 설치 반대” VS “소음 문제없어”

온타리오 풍력발전기 설치계획… 불사 무산 위기

8000만 달러 규모 불사 위해 20년 간 ‘성지화’ 작업 15개 풍력기 설치로 위태 “먼 거리, 소음 우려 없다” 주장



나다 온타리오 카와사(Kawartha) 호수 근처에 15개의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으로 인근에 설립 예정이던 8천만 달러 규모의 종합 불교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사진은 참고 자료. **사진출처=잭리스트닷컴**

8000만 달러 규모의 사찰 불사계획이 풍력발전기 설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캐나다 언론 ‘CBCNEWS’에 따르면 6월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 카와사(Kawartha) 호수 근처에 15개의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으로, 인근에 설립예정이던 8000만 달러 규모의 종합 불교 센터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 지역은 캐나다 토론토서 140㎞ 떨어진 곳으로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에 알맞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불교도들의 세계 성지순례지중 하나로 매년 수천 명의 불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에 중국 화교 및 현지 불자들은 이곳에 불교 종합 센터를 세우기 위해 20년 동안 카와사 호수 근처의 땅을 사고 모연하는 등 세계 불교 성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

불교 종합 센터 총괄자 다이앤 첸은 “성지순례는 시간 · 금전 · 육체적인 것을 초월해 도전적인 일이다. 불자들은 이곳이 새로운 성지가 되길 염원한다”며 “불교 종합 센터가 생긴다면 매년 4만 5000명의 순례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는 만트라(진언)가 울려퍼질 듯 크게 입을 벌린 사자동상 6개가 세워져 있다. 또한 거대한 불두(佛頭)가 수풀 위에 놓여있으며, 12명 인부들이 뙤약볕 아래 무거운 기둥을 옮기며 불사 작업에 한창이다.

또한 불사 지역엔 700헥타르(700만㎡)의 부지위에 전통사찰과 함께 40킬로미터의 명상길도 들어서게 된다. 이곳에 세워지는 동상과 기둥들은 모두 중국으로부터 건너 온 것이며 설치하는 데에만 수십 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곳 지역은 불자들 뿐 아니라 풍력발전 회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한 풍력회사가 사찰이 들어서는 위치에 15개의 풍력기를 세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자들은 풍력기가 들어설 위치가 사원 내부를 관통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첸은 “이곳이 평화로운 순례지가 되길 바란다. 만약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면 소음 때문에 명상도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비단 사찰 불사 관계자뿐만 아니다. 지역 농부들 또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카와사 레이크시장 앤디 르담은 “(풍력발전기로 인해)사원 성지순례화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계획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녹색에너지 산업을 지향하지만, 정부는 이번 풍력발전기 설치를 승인하기 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았어야 한다. 무엇이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져올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WPD 캐나다 풍력발전회사는 “풍력발전기는 사찰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어질 예정이며 소음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아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WPD캐나다 대변인은 “지형학적으로 소음이 그렇게 심하게 퍼지지 않을 뿐 더러 나무와 동산이 있어 그런 우려는 덜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맥킴은 WPD캐나다의 사업에 찬성, 그의 토지 일부 임대를 허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킴은 “의견충돌이 있다면 풍력발전회사 측이 풍력발전기를 다른 곳에 설치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오클랜드大, 불교전통 입문 과정 신설

태고종서 승려 수계한 히키 교수 강의 맡아



미국 오클랜드대 가을학기에 신설되는 ‘불교전통 입문’ 강의를 맡은 케빈 히키 교수(사진 맨 오른쪽). 히키 교수는 한국 태고종단서 구족계를 수지한 바 있다. **사진출처=오클랜드대학**

미국 오클랜드 대학교는 오는 가을학기부터 불교전통 심화학습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신설한다. 특히 강의를 맡은 케빈 히키(Kevin Hickey) 교수는 한국 태고종서 승려 수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오클랜드대 교지 6월 2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대는 2016년 가을학기에 ‘불교 전통 입문’이란 강의를 개설한다. 인도서 비롯된 불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과정 등을 교육하는 이번 강의는 케빈 히키(Kevin Hickey) 교수가 맡았다.

히키 교수는 오클랜드대를 졸업해 한국 태고종서 구족계를 수지, 미주-유럽 교구본사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미국 로얄 오크에 위치한 뷰몬 병원서 교화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히키 교수는 “종교의 체계를 탐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와 관용, 용기와 자비심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불교는 특히 무신론적 입장으로, 다른 종교와 매우 다른 철학이 있다. 미국 학생들이 불교를 배움으로써 자신들만의 철학 · 도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취지를 설명했다.

히키 교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불교의 가르침과 신성한 역사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또한 ‘불교는 고루한 종교’란 미국 사회 내 선입견 해소를 위해 실용적인 불교문화와 의식 등도 소개한다.

이번 강의는 오클랜드대 ‘종교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총괄자인 앨런 앱스틴(Alan Epstein) 박사는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서 다른 종교 및 인종 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평화와 화합의 해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 이런 강의를 더 많이 개설할 것”이라 밝혔다.

박아름 기자

레이디 가가, 中 퇴출 위기 “달라이 라마 만난 죄”

중국 정부, 레이디 가가 노래 및 영상 삭제 조치



6월 26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서 열린 회담에 앞서 달라이 라마와 레이디 가가의 만남이 성사됐다. 중국은 이에 대해 “레이디 가가를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Quartz**

미국 유명 팝가수 레이디 가가(30)와 달라이라마(81) 만남에 중국 정부가 발끈, 중국 내에서 레이디 가가의 음원 및 영상을 모두 제한하고 나섰다.

6월 26일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서 열린 회담에 앞서 달라이 라마와 레이디 가가의 만남이 성사됐다. 약 20분 간 나눈 이들의 대화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레이디 가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달라이라마와 손잡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승복 입은 여우’라 비유하며 강력한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와 레이디 가가는 주로 명상과 정신적 건강, 인간성 회복 등을 주제로 얘기를 나눴지만, 회동 자체만으로 중국 정부와 팬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 홍콩 언론 ‘Apple Daily’는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재 중국 내 모든 웹사이트와 언론기관서 레이디 가가 음원 및 관련 영상 들이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태에 대해 중국 외교부 홍레이 대변인은 “달라이라마가 해외 활동을 하는 이유는 오직 티베트 독립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하루빨리 달라이 라마의 본색을 알길 바란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 네티즌들까지 나서 “테러리스트(달라이 라마)를 믿는 것은 중국인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격노해 레이디 가가의 중국 활동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레이디 가가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레이디 가가가 이러한 사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것이라 예상했다. 레이디 가가는 이미 6월 23일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달라이 라마와 만남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중국 ‘Sinocism Newsletter’ 운영자 빌 비숍(Bill bishop)은 “레이디 가가는 이미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녀는 다른 연예인과 달리 소신 있게 행동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앞서 중국은 본 조비, 마룬5, 오아시스 등이 달라이 라마를 만났거나, 달라이 라마 및 티베트 독립에 대해 호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국 내 공연을 금지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애플 워치에 ‘마음챙김수행’ 기능이!

6월 14일 샌프란시스코서 애플워치 최신 버전 공개

애플 워치에 마음챙김(mindfulness) 수행 기능이 추가 돼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오디토리엄서 개최된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WWDC) 개막식서 애플 워치 최신 버전이 공개됐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워치OS3에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건강 명상앱 ‘브리스(Breathe)’가 추가됐다.



사진출처 huffingtonpost.uk

심호흡을 통한 명상법을 알려주는 이번 앱은 디지털 크라운으로 시간을 정해 숨 쉬는 길이에 대한 안내를 햅틱 피드백으로 받을 수 있다.

제이 블라닉 애플 피트니스 헬스 파트 디렉터는 “깊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일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마음챙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꾸준히 하다 보면 현재에 집중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최신 버전엔 SOS 기능도 장착,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911(응급 구조 번호)로 연결된다.

아울러 주요 OS(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는 기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각 OS와 앱 또는 기기들을 연동시켜 이용자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번 WWDC의 초점이 맞춰졌다.

워치OS3는 올가을 공개될 예정이며, 애플이 공개한 미리보기 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의 작동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면 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2015 불교국제박람회 ‘입선’ 수미단,닫집,법상,경탁 외 법당장엄 일체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1-276-5251 / 010-6857-0108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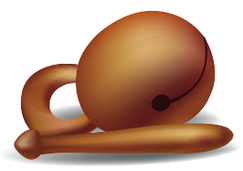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내겐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고 마음 어두운 사람은 자랑을 한다. 자랑일랑 그만두게나 나 이미 내가 아니며 어디에도 자식과 재물은 없네.

– 법구경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수강후 법사증, 승려증 발급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아주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천도재,사십구재
(호적,바라,회심곡),점안식,
시다림,구병시식
010-5905-1249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 · 구병시식
이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관상 손금

스님특별 책임 개인지도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암, 질병, 재판, 묘터, 교통사고 운을 얼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성명학+사주+백초귀장술
– 수강후 자격증 수여
– 무속인, 철학인, 일반인 (천기누설강의)
010-4014-8822

구성학 강의

신비의 점성술
매주 : 화,목 강의 / 2시~4시
(교재무료)
수강료 월 20만
구성역리학회
010-4876-5353
051-245-5353

구궁성명학

23기모집을위한
무료 공개강의
7월9일(토)11시
본 수업 당일 14시부터
좋은이름연구원
02-383-8860
010-770-2248

파동명상요법

병원에서 병명이 안 나오는 분. 빙의, 영가장애로 고통받는 분, 우울증 등 심인성 질환자
041-555-0374
주지스님 찾으세요

초능력 기공

수련생 모집
3개월이면 나도 초능력 기공사가 된다.
단기 수련생 10강 / 특수수련 20회
에너지힐링
(뭐든지 다 치유)
약손 빛힐링.초염력.주열요법
(네이버 카페 묘심기공 참조)
자연전인치유 건강관리연구소
010-4611-1296

범패작법 전문교육 수강생모집
(6개월과정 / 수시접수)
교육내용 : 조석예불,새벽종송,사시불공,천도재, 사십구재,점안의식,구병시식,각종불공
바라무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관욕바라,화의재바라,명바라
나비무 : 도량게,다게,운심게,오공양, 삼귀의,육법공양,향화게,법고무
* 범패작법 전문스님들이 사찰 각종행사 대행하여 드립니다 *
* 전생체험 및 빙의환자 퇴마치유 전문*
010-5269-4168
(연화사 범패작법교육원)

묵언수행과 명상에 깊은 관심을 가진 비구니 스님, 보살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용문산 묵정원
소암 010-3749-372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시흥)
010-9441-40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60대 이상)
010-3524-8930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3499-37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개인방 준비)
054-771-3170
010-3746-88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진주)
010-3156-42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53-654-0408
010-3422-3232

모든 신을 내생각대로 움직이는 특수기도비술을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북부역 소명사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조계종 출신 비구스님 모십니다
(경주, 60대)
017-206-01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동구 불로동)
010-2515-0664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강원,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행자모집

▶ 나이 : 만 40세이하
▶ 학력 : 고졸 이상
최고 수준의 승가 교육보장
문의 : 063)433-001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漢文 한글 (겸용) 불교상용의식집

"漢文 / 한글(겸용) 불교상용의식집"은
漢文念佛 한글염불 경전공부까지 스님들과 불자님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불교 상용의식집입니다!



● 제1권 (예경/각청) ● 제2권 (천도/시식) ● 제3권 (수계/방생)
● 제4권 (장의) ● 제5권 (점안) ● 제6권 (독송집)
● 제7권 (토속의식 모음집) 각권 20,000원
(스님과 신도가 함께하는 법당용 책 사찰에 맞게 만들어 드립니다)

발행인 : 금불 장엄사 주지 성묵 스님
(경북 칠곡군 기산면 봉산4길-54)
주문처 : 054)974-1345 (장엄사)
010-7144-7339 (총 무)
010-5277-8024 (스 님)
계좌번호 : 농협 735091-52-058288 박명덕
(전국 불교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민간자격 국가정보 5765 등록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평가◀
수정기공재활사 과정

호흡, 자기수련, 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숙지하고 이를 다양한 참가자들에게 보급하여 교육, 상담, 연구, 봉사활동을 하며 학교, 기업, 지역사회 공공기관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전문가수준의 재활활용능력을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심신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유망한 자격증이다.

http://soojung99.pe.kr/index.htmlPNO=138623274964492600

■ 강의내용 : 4 ~ 5차원 수정기공
선착순 15명 접수 (매월 시작)
4주 속성 완성
■ 일 정 : 매월 첫주 토, 일요일 1시 시작 4주 완성
■ 강 사 : 뇌교육 박사. 중의사.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 장 소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288-20 (성대역 부근)
■ 홈페이지 : http://soojung99.pe.kr/
■ 예 약 : 010-3463-7806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한 가지 가르침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후세를 생각지 않는 사람은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온다. 악(惡)도 화(禍)도 모두 오고 가며 보복(報復)의 지팡이는 네 머리 위에 내려진다.

- 법구경 -



사찰전문 30년 전통 (전국 2,000여 사찰보유)

▶ 탁트인 바다전망과 전통목조 사찰◀
- 위치 : 부산 신항만부근,거가대교입구
- 총부지 : 240여평, 1만여세대 대단지 아파트
- 건물 : 목조법당(25여평), 요사채, 목조산신각(7여평)
- 가액 : 6억 5천만원(전, 월세 가능)

▶ 백두대간 격조높은 사찰◀
- 위치 : 강릉
- 총부지 : 2,000여평(100% 가용), 버스 진입 가능
- 건물 : 목조건물 5동(대웅전 25평) 산좋고,물좋은 고장(계곡물 철철)
- 가액 : 5억 3천

연산공인중개사 051-863-6622
제 26320-2015-00027호 010-3560-8522
주소: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1, 504호(만덕동 302 다산타워)

이박사 추천 정선카지노 부근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한옥황토 법당 70㎡, 황토요사채 110㎡, 주차장 있음
- 토지 500㎡, 교통편리함
- 접근성 좋으며 주변산이며 위치좋음
- 시설깨끗하며 대로변 사찰
- 가액 : 3억 3천만원. 조정가능(융자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 108호(대표 : 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 법당 : 45평,목조
◎ 요사 : 50외 ◎ 요사 : 80평
◎ 양도 : 7억8천 ◎ 양도 : 25억5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김해시내 활천 옆자락
- 총부지 : 230여평
- 건물 : 법당 20여평, 요사채20여평, 종각(넓은 주차장)
- 가액 : 6억 6천만원

직통 010-9906-3631 혜관
부산 만덕 부동산

면목동(급)포교원
- 3천만원에 월 170만원 시설비 4천만원
- 5층 법당 약 200㎡ 역세권, 대로변 건물
- 완벽한 시설완비, 즉시법회 가능함 전철역에서 5분이내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아늑한 사찰
- 법당 30평, 산신각 6평, 노천불
- 목조건물, 전통법당
- 요사채 40평, 식당 40평, 창고 60평
- 대지 1,250평(종교부지)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6억 5천만원

010-4028-889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200평,건평1층,요사채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황토방2개,화장실,주방,욕실
- 삼존불, 탱화, 인등, 영가단, 법륜대, 집기 일절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3억8천(융자1억3천만원)
- 급 양도, 방문요, 즉시법회 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임 대
- 안녕하세요. 여기는 진주시 유곡죽전길 9-5번지 연화빌리지 4층 사찰을 임대합니다
- 4층 건물 전체 100정도 됩니다
- 전세금은 1억이고 스님만 오시면 됩니다. 비구니스님이면 좋겠습니다

010-9892-3435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 도심 속 전통 양식
- 아담한 사찰
- 인법당 30평, 2층 방 한 칸, 칠성각, 용왕단, 독성각
- 문수동자 200불, 소불 1,200불
- 공양간, 사무실, 주지방, 화장실 3개
- 가액 : 2억 9천만원

010-4606-7253

사 찰 임 대
- 위치 : 김해시 대동면
- 면적 : 45,800㎡, 포장도로, 주차장 넓음
- 법당, 요사채2동(방12), 공양간
- 심야전기,지하수,산수도
- 화명대교,대동IC 10분거리 고시원 운영도 가능한 곳 임대 가능함(회비)
- 가액 : 7억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이찬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18(연산동)
010-5346-4138.051861-2233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마을버스 018번 정류장 옆
- 평수60평, 법당25평, 방3개, 공양간
- 삼전불, 삼성각, 용왕전, 후불탱화
- 에어컨5, 화장실 2칸, 도시가스 영가단4층 중 3층 법화 가능, 소임 관계
- 가액 : 2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10-6795-1566

사찰(급)안내
- 위치 :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목조법당,관음전,종각
- 요사채,공양간 외 건물차고, 창고, 대형주차장 등등
- 가액 : 3억 4천(절충) (스님건강문제로)

010-4628-5699

도심속의아담한암자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단독 주택
- 가액 : 대출 ~7500만원~ + ~1억 3천5백만원 합 가액 : 2억 1천만원 (절충가능함)
- 꼭 하실분만 연락 주세요

010-7188-7723

암자(급)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 대지 200평 + 전 1,300평
- 법당 15평, 요사체 25평
- 산속 조용히 기도수행하기 아주 좋은곳
- 가액 : 1억4천

010-3305-4559
010-9004-7212

멋진2층 전원주택 사찰
- 위치 : 경북 김천시내
- 평수 : 대지 217평 (아래층 방 5개, 법당, 주방, 해우소) (2층 방3개 거실, 주방, 해우소)
- 마당 잔디 황토방 조경 좋음
- 가액 : 대출 1억 포함 2억 8천 5백만원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암 자 안 내
- 위치 : 공주시 계룡산 국립공원 內
- 장군봉, 임금봉, 신선봉, 천왕봉, 문필봉 동학사를 바라보며 앞쪽에는 계곡물이 흐르고, 좌측에는 신도안의 기운이 뻗치는 위치에 자리한 백만불의 조용한 암자
- 인연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
- 가액 : 13억

010-9228-6747

포교의 미래는 개척 불교의 희망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상권 교통요충지 3층 30평 옥상이용
- 법당 주방 집기일체 갖추어져 있음
- 약초재배연구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 부득이 양도코져함
- 가액 : 500만원, 월 25만원 (가액 조정가) 시설비 2,700만원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 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면적 : 1000평
- 법당 : 30평, 산신각5평
- 요사 : 60평
- 대형차량 진입
- 산속, 남향, 계곡
- 가액 : 6억 8천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 법당 1, 요사채 1
- 대지 341㎡, 건물 72㎡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050-2637

사 찰 월 세
- 위치 : 경남 함안 가야읍에서 5분거리
- 법당 18평
- 방 4개, 공양실, 정각
- 산신각 4평, 화장실 3개 주차완비
- 가액 : 1,000만원, 월30만원
- 비구니스님, 수행하기 좋음

010-3367-20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소재 김천시 황금시장교통 10분대 김천혁신도시 15분대
- 건물:단층독채,벽돌조104.54㎡(32평) 자기소유등기필(소유권이전),사찰등재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
- 내용 : 법당(넓음),거실주방,방2개,세면장 면중심가 2차선 큰길변 남향(교통좋음)
- 가액 : 6,400만원(절충가)

010-7295-1259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부지 157평, 법당 25평(목조)
- 요사채 1, 공양간 1
- 가액 : 3억

010-3508-771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주시 충효동 야척길 28 구미산. 대지 64평
- 아담하고 깨끗한 절
-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약사불, 지장보살, 신중(산신)
- 법사님, 보살님 인연맺기 원합니다
- 가액 : 6천5백만원(조정가능)

폰 010-4040-3588
집 054-742-87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김해시 어방동 요지
- 1층 공양간 35평 2층 법당 50평
- 가액 : 전1,500만, 월80만 시설비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12-0480

별장식임법당안내
- 위치 : 경남
- 별장식 임법당으로 2층
- 조경은 무릉도원
- 대지 132평, 텃밭과 각종 약초
- 과일나무, 꽃도량
- 전 대지 총 530평, 주차장 300평
- 총 합 830평 정도
- 가액 : 2억 3천

010-7138-1141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IC에서 10분거리
- 건물 3동, 대지 197평
- 법당, 삼존불 외 소불 150불
- 방4개, 공양간, 화장실
- 가액 : 1억 4천만원 (융자 2천 5백만원 있음)

010-7589-96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 (버스 정류장 앞)
- 3층 건물 중 2층 약 80평, 방 5
- 종무실, 화장실, 샤워장 (냉, 난방완비)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현재 법회 중,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4805-5950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천호동 8호선 암사역 5분거리 대로변
- 시설 : 삼존불, 약사여래, 신중, 후불, 탱화 등
- 2층 전체 48평,법당,방2칸, 주방, 화장실, 욕실, 베란다 (몸만 와도 언제든 법회가능)
- 가액 : 1,000만원, 월80만원
- 꼭 하실분 시설비 1300만원

010-2282-888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남산로
- 법당 원목 조성 (90평)
- 요사채2, 서재1, 공양간1, 종무소1
- 가액 : 3천만원 월 100만원

010-5292-1090

대형포교원(도심사찰) 안내
새로운 신도 포교하기 제일 쉬운 곳
- 위치 : 울산 중구 학성동 432-206
- 규모 : 3층 건물 2,3층(약 130평) 옥상활용 가능
- 2층 : 공양실, 종무소, 대중방 3, 스님 친견실, 스님 처소, 화장실 2
- 3층 : 대법당, 지장특별기도실,산신각, 화장실
- 가액 : 5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3,000만원(일부 조정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6429-5076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 대지 : 약 830평
- 건물 : 60평 (법당 42평, 요사채 18평)
- 위치최상, 꼭 하실분 만
- 가액 : 4억 5천

010-9800-757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포항시 (구) KT 맞은편
- 2층 독채 24평
- 아미타, 관세음보살, 약사 지장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 가액 : 전세 3백 월 32만원 비품 6백(상담후 조정가능)

010-4554-5984

포교원(토굴)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한일오르듀
- 24평(14층), 동백섬 바다전망
- 관음불, 냉장고, 에어컨, 주방, 욕실, 화장실, 옷수납장2개, 침대 (몸만 오시면됩니다)
- 가액 : 보1,000만 / 월55만 시설비 : 700만원(조절가)

010-2065-33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옆)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있고 방2개, 주방 남녀화장실 별도
- 가액 :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동작구 사당시장 부근 7호선 약 3분거리
- 2층 전체 약 35평(도시가스)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 주방,욕실,주차 2대
- 아주 깨끗함, 관리비 없음
- 가액: 1,000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3,000만원(답사후 조정가능)
- 즉시 법회 가능

010-4646-36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강북구 송천동 311-30호 2층
- 미아역 5분거리 약 30평
- 가액: 2,000만원 월 40만원

010-8887-9894
02-986-513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근교(지하철 1Km 부근)
- 총부지 320평
- 법당 : 목조건물(외 7포 내 11포) 32평
- 삼존불(목불), 원불(목불), 삼성각, 저온창고, 실내 외 주차장
- 요사채 : 목조건물 1,2층 100평
- 평생 사용가능한 땅 1,000평
- 가액 : 22억 5천만원

010-3561-4337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173평
- 법당 25평
- 요사채 28평
- 가액 : 2억 2천만원

010-2376-5411
041-557-7786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북구 구암동
- 평수 : 50평
- 3층 건물 3층 전체
- 가액 : 500만원, 월세50만
- 시설비 500만원
- 법회 즉시 가능
- 급안내 : 스님 불사 이전 관계임

010-3292-2414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김해
- 평수 : 248평
- 법당 23평. 요사채. 방가루
- 마당 잔디. 조경전망 좋음
- 시청,은행 관공소 도보10분거리
- 가액 : 5억7천5백만원 대출 2억7천안고 양도 3억5백만원 (현시세땅값만 6억7천만원)
- 불사관계로 급 양도

010-9004-8890

공부하기좋은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눌곡리
- 대지 174평 임법당 (건평 30평) 요사채, 방 3개
- 연꽃모양동네 산세수려
- 가액 : 7천만원(시설비포함)

010-3340-65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왜관읍(시장부근)
- 2층 건물 2층(약 40평) 옥상사용가능
- 삼존불 신중(음향시설완비)
- 주방,거실,각방 에어컨시설
- 가액 : 3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200만원
- 스님건강상 급 양도함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2729-5122

포 교 원 (급) 안 내
- 위치 : 대구시내 2차선 도로변
-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중간부분 교통 원활
- 아미 관음 지장 후불 신중 칠성탱화 영가단, 소불 법당종 냉,난방기 음양 조명 등 시설완벽 불기 및 집기일체
- 신조성 1년 10개월 포교 및 명리 적합, 3층 건물중 2층 약 25평
- 보: 300백, 월30만. 주방시설은 있으나 방은 없음 시설비는 꼭 하실분에게 최소의 금액에 드리겠습니다

053-651-1514

사찰, 포교원 정보를 내 스마트폰에서...

Temple Kok



템플콕 출시기념! 무료이용 이벤트 ~ 9월 30일까지

전국의 사찰, 포교원, 암자, 기도터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매물도 올리고..
(매물의 상태를 직접 사진으로 확인하고 지도검색을 통해 정확한 위치도 확인)

필요한 매물을 스마트폰에서 한 눈에 검색하고 바로 확인하고,
내 매물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올려서 직거래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항목별(사찰, 포교원, 암자, 토지임야, 납골당 등), 가격별로 검색 가능 합니다.
▶ 매물 담당자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용안내
1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템플콕'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2 간단한 회원가입 후 본인의 매물 등록
3 게시 기간에 맞는 요금 결제
4 입력한 매물 게시(시작)일 - 오후 7시 등록(관리자)
※ 매물등록은 매물보기에서 다른 매물 입력내용 확인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문의 02)2004-8214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

쵸 C트룽파 린포체

〈3〉 바람의 말을 타다 ㊤

나를 포장하려 말고, 올바로 보세요



온화함은 확신을, 확신은 감사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샴발라 가르침의 정수를 전할 수 있는지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어느 누구도 우리의 견해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의 본성인 자신의 견해를 일깨우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여정을 다르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의견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비참함, 부족감,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의 아주 작은 경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당신 자신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참본성의 다른 측면을 당신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찬가지로 인정해야 합니다. 참본성이 없다면 인류는 이곳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 자신을 파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정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위대한 동쪽의 태양의 관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려할 것이 없는 단순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 또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건강함과 함께함 그리고 좋음(good)을 허락하는 불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우호적인 느낌과 함께 뭘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삶이 가치 있다고 느낄 때, 그로부터 온화함과 다정함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정원에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우, 온화함은 씨앗을 키우는 수분과 같아 꽃을 활짝 피우게 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 확신이 자랍니다. 이 경우 확신이란 조건을 떠난 확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적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온화함과 다정함은 조건을 떠난 깨어 있고, 반짝이며, 따뜻한 느낌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건을 떠난 확신은 친절함과 온화함의 실용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움으로부터 생겨난 행동입니다. 확신을 기르는 것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고 태양이 떠오를지 아닐지 의심쩍습니다. 그런 다음 태양은 갑자기 떠올라 빛납니다. 확신은 자만심이나 자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무조건적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은 거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확신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지성에 대한 감사,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좋은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세세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열어놓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좋은 삶을 즐기도록 합니다.

전사의 기반은 '비옥한 다정함'

그래서 다른 사람과 우리의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우리 자신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 할 때, 그것은 옮겨가게 됩니다. 온화함의 토대는 우리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간 본성은 매우 민감하고 생명을 키우며 출산 능력을 가진 여자의 자궁과 같습니다. 샴발라 접근법의 핵심은 비옥한 다정함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위대한 동쪽의 태양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인간 본성으로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올바르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단순하게 느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전사의 길은 이러한 다정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가 참본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비참함이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진정한 존재가 되기보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한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항상 초인이 되고자 애쓰면, 어려움과 모순으로 가득한 기본적으로 타고난 우리의 인간 조건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존재하지 않는 신화 속의 다른 누구로 우리 자신을 꾸미거나 대체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인간 본성을 찾는 데 실패하고, 수많은 문제에 빠집니다. 당신이 진정한 존재일 때, 그 존재 상태는 파괴할 수 없습니다.

결코 지지 않는 존재가 될 때 당신은 아무것도 정복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삶 속의 참본성을 인정하는 것은 억누르거나 부정적인 것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실제로 보게 되면, 마음을 분리시키면, 전체 존재 상태를 분리시켜 그것을 검토해보면, 당신은 현존과 함께하는 당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는 잘 건설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불행을 위한 방도 없습니다.

그로부터 더 나아간 건강성과 전체성이 떠오릅니다.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당신의 삶을 완전히 온전한 방식으로 이끌게 됨을 느낍니다. 이는 대단히 부유해진 느낌입니다. 그 부유함으로부터 움직임이나 에너지가 일어납니다. 그 에너지는 아주 생생하며 아주 깨어있어서 밖으로 방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세상인 현상계와 소통하거나 관계 맺기를 하며 여정을 만들어갑니다. 보통은 한 사람이 에너지를 비출 때, 그는 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는 기대를 확증하기 위해 그 과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간극과 단절을 만들어 전체성을 전복시킵니다. 종종 의심이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나머지 세상으로 돌아가 불건강함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비참 · 부족함도 참본성 중 하나
이러한 다른 측면도 이해해야
자신에 대한 우호적 심리 높여
온화함 · 다정함 개발 가능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은 천천히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은 위대한 동쪽의 태양이라는 비전의 일부분입니다. 공장이나 식당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을 하더라도,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의 삶에서 매 순간이 새로운 장으로 펼쳐지는 결 발견합니다. 전사에게 있어 호기심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생한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있을 때마다 근본적인 슬픔과 다정함이 되비쳐집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진정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하라

위대한 동쪽 태양의 비전은 티베트어로 '룽타(lungta)라고 하는 바람의 말'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말은 용맹함, 명랑성, 고양됨, 그리고 온화함의 느낌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전사가 된 사람의 상태입니다. 우아하게 되기 위해서 최신 유행의 옷이나 맞춤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아함을 얻으려 애를 씁니다. 돈으로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전사는 이렇게 사치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사는 내면에서 신성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값싼 옷을 입어도 세련되고 품위 있어 보입니다.

위대한 동쪽의 태양이 빛나는 곳에서 바람의 말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완전히 스스로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지점에서 좀 더 나아간 전사의 감각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존재 전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대단히 총체적이고 체계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삶은 전체로 느껴집니다. 이 근본 경험은 전체 샴발라의 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샴발라의 논의는 순전히 신비를 표현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바람의 말은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의 근본 분위기에서 일어납니다. 근본의 그 공간에서 끊임없는 본성, 기쁨의 불꽃 또는 갑작스러운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당신은 반복해서 의심과 우울에 빠진 수준 낮은 인간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전사의 수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 꼭대기에서 당신은 아셰의 원리 또는 시원적인 깨어 있음과의 연결을 만듭니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의 전체 삶이 진정성의 분위기로 꽉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바람의 말이 밝게 빛납니다.

바람의 말은 에너지 창고로서 묘사될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전사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진정성의 부산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사가 되기 시작하면 맨 처음 당신은 진정성의 불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건강과 건전함을 경험합니다. 마침내 당신은 불꽃 또는 룽타의 바람, 바람의 말을 느낍니다. 완전한 전사가 발전되는 속에서 그러한 과정은 갑자기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틈이 있을 때마다, 전사가 되는 유일한 길은 진정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생생하며 대단히 온화하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구원하는 축복이거나 안전한 예방책입니다. 그래서 전사는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결코 둔감해지지 않습니다. 바람의 말을 발견하려면 저항을 포기하고 적절하게 질문할 뿐입니다. 이해하기 위해 너무 애쓰거나 결론을 내리기보다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단순하고 생생합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러한 특질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겁을 낸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성의 존재가 되기를 그만두게 되며 우리는 진정한 존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바람의 말을 잃고 룽타를 잃습니다. 두려움의 본성을 모르게 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두려움을 알게 되면, 당신이 어디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 차례가 될 수도 있고 반 걸음 만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두려움을 넘어 미소 짓기까지〉(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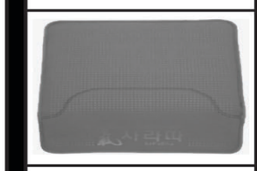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숲속만다라

나무는 늘 옳다. 햇살도 늘 옳다. 새들도 늘 옳다. 새벽엔 이슬도 옳고, 밤엔 달빛도 늘 옳다. 숲 속의 모든 것이 그렇게 늘 옳다. 그러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일 테지.

나는 어제 옳지 못했다. 그 전 날도 옳지 못했고, 그 전 날도 옳지 못했다. 내일도 옳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숲에는 늘 향을 태우는 집이 한 칸 있을 테지.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승한 스님의 좋아좋아 행복코칭

친구관계가 힘든 청소년에게

"아이들아, 正見은 인격자를 낳는단다"

며칠 전 한 학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다.

스님, 몇몇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자꾸 따라 하게 됩니다. 제 생각대로 독자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해도 어느새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도 모르게 지나가는 애하고 어깨를 살짝 부딪쳤는데 그 애한테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길 가다 스치는 사람이 만만해 보이면 무조건 시비를 걸거든요.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니까 따라서 같이 피우게 되고요. 술도 같이 마시게 되고요. 친구들이 나쁘다기보다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맞나요?

그렇다.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무겁다. 알고 짓는 죄는 쉽게 뉘우치고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편함만 없으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인간관계 중에서도 친구관계서 발생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시라는 경쟁과 대립을 앞두고 극심한 이기주의와 공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보니 그에 대한 반동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나쁜 짓을 하기 쉽다. 끼리끼리 어울리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무뎌져 잘못된 행동을 더 쉽게 저지르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무명(無明)이라 했다. 잘못된 의견이나 집착 때문에 세상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상태'를 말한다. 바람직하지 못한 '어두운 마음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관계(친구관계)를 만들어내고, 이는 공동체를 파괴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지혜와 자비를 강조하신 것도 그 때문이다.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이 있다. 중국 당나라 때 벼슬아치를 등용하면서 인물평가의 잣대로 삼았던 말이다.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선 첫째, 풍채와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 둘째, 언변이 올발라야 된다. 셋째, 문필이 준수해야 하고, 넷째는 판단력이 정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같은 인격기준은 지금도 똑같다. 그런 인격은 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친구관계를 맺고 사는데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인격은 사람의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모양새가 나쁘다고 해보자. 세상에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기는커녕,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전쟁만 일어나고 민폐만 끼치며 살게 된다.

하지만 인품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지고한 인품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지고한 인품자가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노력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마음씀씀이다. 속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얼굴이 좀 못났어도, 말주변이 좀 떨어져도, 글재주가 좀 떨어져도, 판단력이 좀 느려도 속 모습이 바르면 얼마든지 인품자가 되고 인격자가 될 수 있다.

어둔 마음, 그릇된 관계 생성

바른 가치관, 정견(正見) 토대로

올바른 자아관 갖춰야

궁극적 행복 얻을 수 있어

> **지혜와 자비로**
>
> **무명(無明) 내몰아라**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 나는 이러이러한 인품자가 되어야겠다'는 자기만의 인품 모형을 그리는 것이다.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방금 말한 '신언서판'이다. 불교에서는 '해탈과 자비와 자재'를 최고의 인품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탈은 내 마음이 온전히 열려 온전한 행복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마음상태가 바람처럼 자유로운 것이다. 자비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들을 내 몸처럼 끌어안는 사랑이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의 아픔과 고통을 껴안아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 대자재(大自在)다. 대자재란 속박이나 장해를 전혀 받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역량, 또는 그런 경지를 말한다. 즉 역할이 필요한 자리에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학창시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 학문을 쌓고, 체력단련을 잘 해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하는 것도 자재를 잘 하기 위해서다.

바른 가치관 정립은 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흔들리는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가치관 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이러한 가치관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삶의 가치관 정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람이 바르게 살기위해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바른 길, 팔정도(八正道)를 이르셨다. 그 가운데서도 바른 가치관, '정견(正見; 바른 깨달음)'을 맨 앞에 설하신 것도 그 때문이다.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바른 가치관 정립이다. 자신에 대한 바른 자아관(自我觀), 자신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바로 갖지 않으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갖고 살아도 행복한 삶, 만족한 삶, 기쁜 삶을 살 수 없다.

긍정적인 자아관이 그것이다. 자신에 대해 항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한다. 잘난 내가, 훌륭한 내가, 의젓한 내가, 착한 내가 함부로 담배피고, 술 마시고, 친구들에게 시비 걸며 거친 행동을 하고 살 리 없다.

좋은 책과 건전한 종교 활동 · 동아리활동 · 명상 등은 바른 가치관 정립에 매우 좋은 도구들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도구가 눈앞에 있어도 실천하고 자재하지 않으면 공염불이다.

또 하나 중요한 가치관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행복이다. 그러나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친구, 내 이웃,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104호 현대불교
2016년 7월 6일 (6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0년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진화시켜서 창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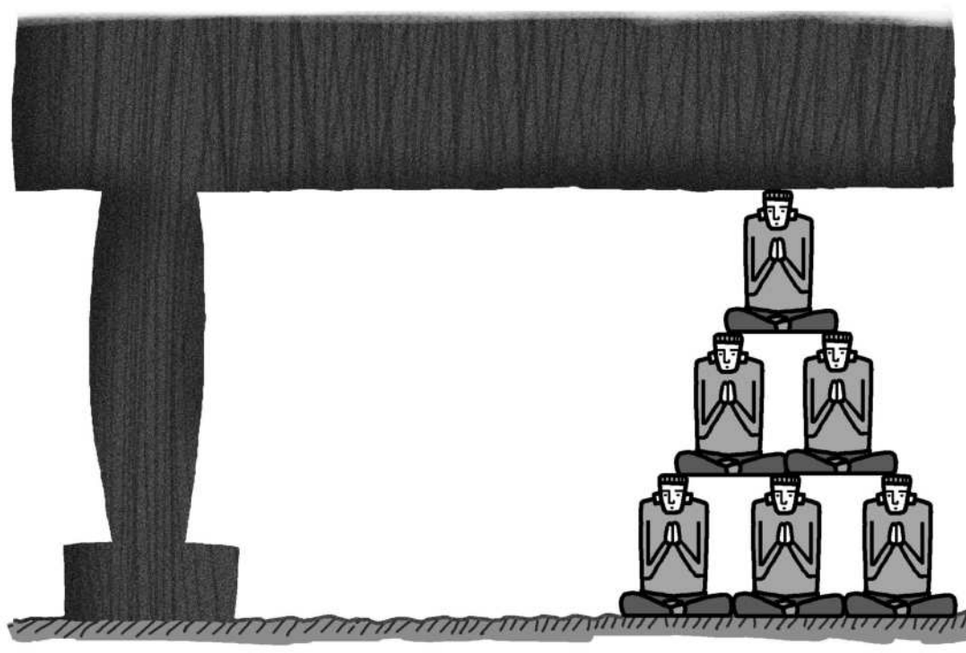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모건힐지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2년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사대 성인들이 전부 말하기를 "너부터 알아라." 했습니다.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고 너부터 진화시켜서 즉, 창조를 해라."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은 실천궁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궁행을 할 수가 없다면 물질세계의 50%에만 극매게 되는데,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를 같이 상응하면서 같이 작용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삶이 돼야만이 그래도 우리가 불자라고 하며 그래도 사람으로서 산다고 할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이 세상만사에 모두 연결이 돼서 돌아가는 법계의 뜻도 바로 우리네 마음의 근본에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것을 가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그냥 혼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계를 본다 하더라도 혼자 돌아가는 게 없고 정신계를 본다고 해도 그냥 돌아가는 게, 혼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같이같이 돌아갑니다.

회사에 사장이 있으면 직원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사장이 있듯이 필연적인 인연의 법칙, 이 자체가 바로 우리의 발전도 가져오게 할 수 있고, 바로 창조력을 기르게 할 수 있고, 지혜력을 기르게 할 수도 있고 창조를 해내게 할 수도 있는 근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보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도 모르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야 하고, 봐야 하고, 먹어 봐야 맛을 알고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너무도 많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갈 수는 없는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 수, 화, 풍 이 자체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몸뚱이, 이것의 바탕이 돼서 있는 겁니다. 이 지수화풍이 인연에 따라서 즉, 물과 흙과 바람, 이것이 암흑세계에서부터 그 인연에 따라서 같이 뭉치다 보니까 온기가 생기고, 그래서 바로 불도 거기에 잇따라서 네 가지가 돌아가게 되니까 즉, 미생물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미생물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암흑 속에서 광야를 찾았고, 또는 광명을 찾았고 자력을 찾았고, 통신력을 찾았고 전력을 찾았고, 모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바탕, 이 지금 지수화풍의 바탕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무하다고 하진 마세요. 허무하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허무한 게 아니라 불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떠한 물질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력 광력 전력 통신력,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앞에, 각자의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전력이 있듯이 말입니다. 네 가지 요소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의 관습에 의해서 '이거는 할 수 없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천차만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느니만큼 우리가 이름해서 오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역시 별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작용해서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그 요소만 안다면 바로 '마음의 눈. 일체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 남의 속을 모두 읽을 수 있는 마음, 또는 과거에 내가 나기 이전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숙명통.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그 자체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천이통은 들을 수 없는 걸 듣는 것.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이 다섯 가집니다. 이 다섯 가지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가지 요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즉, 지수화풍이 우리에게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은 주어져 있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신통을 그대로 우리가 굴리고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물질계의 50%만 알거나, 정신계의 50%가 같이 상응하면서 작용하는 줄 알면서도 실천을 할 수 없는 이런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울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거기에 기울임이 없기 때문에 한 짝 절름발이입니다. 발 하나는 요만하고 발 하나는 이만하고 그래서 절름발이입니다, 이게. 절름발이로 사니 얼마나 부자유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신통이라는 이름 자체가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근본, 실천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어져 있다는 얘깁니다. 이 마음의 공부를 해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실험을 해 본다면 그대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마 본인들이 더 잘 알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다섯 가지 가운데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비교한다면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에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일거일동이, 아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일거일동 거기에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서 솔솔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자꾸 현실에 나와서 애고, 업보, 또는 유전성 또는 영계성, 세균성, 이 모두가, 애고가 그냥 차례차례로 나한테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오는 것을, 그 입력이 돼서 나오는 데 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다시 입력을 해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그 속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라. 거기다가 입력을 다시 하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짐으로써 그릇은 항상 빈다. 넣으면 비고 넣으면 비고 항상….

그리고 '모든 망상을 끊는다'라고 하는데 끊는다가 아닙니다. 망상이 나질 않으면 법을 이룰 수가 없고 목석입니다. 망상이라는 이름은 이름해서 망상이지,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작용하는 그 과정이, 자기도 모르는 문제들이 자꾸 꼬리에 꼬릴 물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나쁘게 돌아가거나 남을 해하게 돌아가거나 우리 가정에 해가 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모순이 있는 문제라든가, 어떠한 문제라도 잘못되는 것은 '아,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니까 주인공에서 해결해야지.' 하는 것은 자기 자성, 이 내면세계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애고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거죠. 기도가 아닙니다. 관입니다. 즉발 들어가는 관입니다. 기도라는 건 둘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놓으면서 맡기면서 실험하고 체험하고 또는 관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좌선 입선 와선 행선, 이것만 참선이라고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좌선을 하고 앉아만 있다고 해서 '아, 이럭하면 그 무상 시대를, 모든 걸 간파할 수 있겠지.' '나를, 참나를 찾을 수 있겠지.' 하는 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사람들이 좌선을 하게 되면 좌선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좌선을 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가면서 또 다 했으면 다 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앉았을 때만 지구가 돌아가고 다했을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이 세상만사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니라." 했던 겁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참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천하면서 관해 보고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자기 자성불을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무식한 말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뭘 믿소?" 하니까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러더군요, 하하하.

그런데 그렇게 좌선이라는 것도 참선의 한 부분이요, 와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요, 행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요, 입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첨보해서 "일상생활이 즉 참선이니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 보시지마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말입

☞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그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속에다 다시 입력을 하라

☞ 25면에서 계속

니다. 그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여러분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작용하는 바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참선이라는가. 일상생활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즉, 이 나뭇가지, 이파리, 이것이 그대로 뿌리 때문에 자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뿌리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뿌리는 생각지도 않고,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바깥으로 이 가지를 붙들고 이파리를 닦아 주고 씻어 주고 온통 이름을 부르고 타의에서 구합니다. 그럭해서야 어떻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정신계 물질계가 서로 같이, 우주 전체가 같이, 이 지금 블랙홀이 돌아가듯 같이, 생명의 근본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주인공 자체는 바로 생명의 근본이요, 마음 내는 거요,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요, 이 삼합이 같이 작용하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의 주인이자, 주인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름으로 지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남편의 이름도 있고 또는 형님의 이름도 있고 사위의 이름도 있고, 모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의해서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자동적으로 말과 뜻과 행이 그냥 남편으로 돌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금방 그냥 걸림도 없이 찰나에 그냥 "어디 갔다 오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부모가 "얘, 아무개야!" 부르면 "예,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들 노릇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부처님 법도,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지어 놓은 그 이름도 바로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바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지 않아도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러면 이름이 오만 가지로 많아지죠. 그건 자동적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름도 자동적으로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칠성부처의 이름도 있고 약사부처의 이름도 있고 독성님의 이름도 있고, 용궁님의 이름도 있고 지신의 이름도 있고, 이름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름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병고에 휘달려서 오면 그냥 화해서 약사가 돼 버리고, 여러분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면 남편이 돼 버리고요.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참선인가. 실천궁행 하고 돌아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또는 명상하고 단전호흡 하면서 자기를, 참자기를 찾겠다고 운운하는 거,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걷다가 엎드러지면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죠? 땅을 걷다가 땅에서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거 기정사실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이 생활에서 일체 만법 천차만별로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되맡겨 놓는 것입니다. 맡겨 놓고 관해 보면서…,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체험하면서 그리고 말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즉 여러분이 보살입니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있는 거지, 어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계, 정신계 하지만 정신계와 물질계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마음으로 안에서 생각을 할 때 바깥으로 나와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다 해 놓고는 안으로 또 들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돈 출처와 모든 것을 어떻게 채비를 해야 집을 다 지을 수가 있는가.' 하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또 냅니다.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건만 여러분이 이 생각 자체로서 정신계는 하여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는 일이 없고 항상 이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야 잘살 수 있나. 어떻게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뿌리에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저절로 나무는 자라고 저절로 가지 이파리가 싱싱해질 테고, 열매가 스스로 열릴 테고 열매는 스스로 익을 테고, 제 나무에서 익어서 제 나무에서 맛을 내면서 온갖 사람들이 한생각만 해도 모두 공덕이 되게끔, 그 물을 못 먹어서 갈증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도리, 창조력이 있건만 말입니다.

어떤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빌고 목탁이나 치는 것이 중의 노릇이 아닙니다. 중이라는 것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바로 중입니다. 순색입니다.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이 사생, 일체 우주 전체가 서로 교환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통일교 따로 있고, 원불교 따로 있고 티베트 불교 따로 있고, 죄 따로따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지 지구가 반쪽 쪽쪽이 쪽쪽이 났습니까? 여러분은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 들어서 어디로 끌고 돌아다니는지 내다보질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 끄달리고 신을 찾고 내 신은 팽개치고, 자기 자성신은 팽개치고 딴 신을, 이름 신(神), 그거를 찾느라고 온통 야단입니다. 내가 이 찾는 법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작년 수박씨를 올봄에 심었는데 심은 것이 싹으로 화했습니다, 씨가. 인젠 씨가 아닙니다. 싹으로 화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었습니다. 익었는데도 아, 이 씨가 싹으로 화했는데도 불구해 놓고 내가 나오기 이전 싹, 씨를 찾느라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들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나의 안에, 수박 안에 씨가 들어 있는 거를 탁 잘라서 그 수박 맛을 봐야, 수박 맛을 볼 줄 알아야 그 씨도 거기서 나오죠. 그럼 그 씨를 되심으면 이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그 씨는 되남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게 공덕입니다.

이게 천체가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으며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님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응해 달라고 염원하면, 그냥 이 마음의 주인공을 염원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듯이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들고 나면서 바로 한마음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쇠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다가 생산이 돼서 나가듯이 말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이 세상 팔만대장경을. 바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시장 바닥을 가봐도 끼리끼리 상점에 놓여 있고 금방에 가보면 금이 모여 있고 또는 무쇠전에 가 보면 무쇠만이 모여 있고, 넝마전에 가 보면 넝마만 모여 있고 빈 병전에 가 보면 빈 병만 모여 있고, 허허허…. 사람들도 모두 끼리끼리 모여서, 상인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차원의 그릇대로요.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도 자기에게 알맞는 그릇대로 사귑니다. 이게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지만 모든 거를 본다면 둘이 아니게 또 돌아가고 있으니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너가 있고 내가 뚜렷하게 있구나.' 하듯이 말입니다.

> **이 세상만사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니라." 했던 겁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한 것이니까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러한 말을 해서 그만, 그때는 미거하고 어리석은 시절이 돼서 약사발을 안겼지마는, 달마 대사도 그러했고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복으로 돌아가는 이 법은 조선 시대 초기 때부터 중간으로 들어서면서 탄압을 너무 세게 받은 터라 스님네들이 공양미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게끔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관습으로 돼서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교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 가식입니다. 자기가 뿌려 놓은 거 자기가 거둬야지 어디 가서 하소연한다고 그 뿌린 것이 해결이 됩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저께,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흑인이 어린애를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아이를 끌고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인식을 하면서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음 생에 다시 진화돼서 바꿔 나올 때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와야 될까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삶은 다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은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놈은 죽어서 꼭 소가 될 거야. 미련스럽기만 하고 말이야." 이러고 항상 그랬는데 아, 딴은 죽어서 소가 됐답니다. 자기네 그 외양간에서 새끼를 낳았는데 말입니다, 그 새끼가 그 어미한테는 안 가고 자꾸자꾸 그 주인 부부한테 자꾸 비비고 그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이상해서 아이, 매물을 주면 먹지 않고 말입니다, 아, 콩이나 이런 거 쒀서 다시 줘야만 먹고 이러니 아,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시니까 그 스님한테 여쭤 봤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소는 당신이 죽으면 미련스럽게 소가 될 거라고 그러던 아드님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는 너무나 엄청난,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러니 그 소는 소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콩하고 짚하고 썰어서 삶은 여물을 쒀서 먹이는 데도 새끼와 어미, 그것이 다 같이 먹도록 그 스님이 그냥 놔두라고, 그거는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길을 걸어 봐야 알 바가 있을 거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는 그냥 소의 모습을 가졌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 수 있나요? 아무리 속으로는 '내가 사람이었는데….' 하더라도 소 허물을 썼으니 소 행동을 해야지 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애탄지탄하고 사람들한테 발버둥이치고 하소연을 하고 음매음매 하고 애를 써도 그거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전연 다른 세계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2년 7월 26일 모건힐지원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디지털 단식'으로 삶의 여유를



가섭 스님
한솔종합사회복지관장

얼마 전 반가운 얼굴을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보게 되었다. 그의 일상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반가움도 잠시, 염려와 걱정이 앞섰다. 산중으로 출가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2년 뒤에 보게 된 것은 그의 SNS였다. 이제 산중에서도 언제라도 자신의 생각과 생활들을 많은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휴대폰 가입자 5,800만 명인 사회, 전 세계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인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전체 인구수보다 많은 가입자 수가 휴대폰의 위용을 말해준다. 거기에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엄청난 통신망이 설비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거리나 공원에서도 무료와이파이가 되는 통신천국에 살고 있다. 잠들기 직전까지 늘 곁에 두고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의 도구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직장인들에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재가 되기도 한다.

휴대폰으로 생활 전반이 편리해진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삶이 피곤해졌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울려대는 모바일메신저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피로를 주기도 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3%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불편하다고 답했다. 특히 퇴근 전이나 후에 모바일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 때문에 힘들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7.6%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하지만 본인의 의지보다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대중적 소외라는 심리적 부담 때문에 SNS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 SNS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휴대폰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노모포비아(nomophobia)'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을까.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권태나 외로움 불안감 등을 느끼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증세가 더 심하다고 한다.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치매에 대한 우려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도 야기하는데 장시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통계를 보면 10명 중 4명은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본다고 답했고, 그 중에 2명 이상은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편리해진 만큼 삶의 여유 없어져
중독 극복위해 "잠시 꺼도 됩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봤더니 2009년 437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에는 848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으면 그냥 걸을 때보다 사고 위험이 76% 더 올라간다는 게 실험을 통해 확인됐으며, 어린이의 경우 사고확률이 더 높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생활의 편리함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 중독으로 오는 질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디지털 단식'이나 '디지털 디톡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답답하고, 무료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다. 템플스테이나 사찰 여름수련회 참가자들이 산사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잘 때도 머리맡에 뒀던 휴대폰을 스님에게 맡기는 것이다. 처음엔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다며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집에 갈 때 쯤 되면 스마트폰 없이 편하게 쉬었다 간다는 소감을 전하는 이들이 많다.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은 순간, 불편함이나 불안함 대신 편안함을 만난 것이다.

1998년 한 휴대폰광고에서 등장해 유행했던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라는 말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16년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평상시 스마트폰에 대한 활용 계획을 통해 휴대폰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 업무시간 전후로는 비활성화하거나 잠시 휴대폰을 놓고 휴식이나 운동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기자 칼럼

불교, '노인·청년'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신성민
취재부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 21일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발표했다. 서울시민들의 생활·문화·경제의식 등 전반에 대한 통계지표가 담겼다. 이를 살펴보면 불교계에도 유의미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여럿 존재한다.

대표적인 노인들의 생활에 대한 것이다. 서울 서베이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17.2%는 사회 참여활동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0, 20대는 종교활동에 대한 응답은 낮았으나 50대는 21.7%, 60대 이상은 17%로 타 연령 층보다 높게 집계됐다. 10대와 20대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활동은 동호회와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노인들의 정기적 활동은 노인정(30.9%)과 종교모임(23.3%)이 가장 많았고, 직장(15.7%), 복지관·노인교실(15.6%), 취미활동(14.2%)로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이 희망하는 노후활동으로는 취미·교양활동(6.64점)이 1위였고, 종교활동(5.45점)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서울시민 50대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2명은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 20대 등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종교활동은 큰 메리트를 갖지 못함을 통계지표로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불교계는 두 가지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노인들이다. 201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22개 회원국 중 평균 고령화 대응지수 비교 결과 한국은 27.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반면 불교계는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노인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2011년 불교사회복지시설 현황 분포를 보면 전체 불교사회복지시설인 753개 중 노인복지분야는 총 327건으로 43.4%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사찰 내 노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사찰 자체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곳도 드물뿐더러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지도 않는다.

불교는 고령화 시대에 선호받는 종교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의 연령계층과 10년 전 연령계층을 비교하는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에 의하면 불교는 50대 이후 연령층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신자확보에 우월한 위치에 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2011년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고령화 현상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 종교로 불교(32.5%)로 꼽혔다. 개신교는 31.8%, 가톨릭은 28%로 응답했다.

고령화에 따르는 종교적 수요를 위해서라도 불교계는 중장년층 포교전략 강화와 함께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력개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불교는 세대 전승을 위해서 청년 포교에 나서야 한다. 불교가 신자 확장성에서 불리한 점은 10~30대의 미래 세대가 50~60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이는 세대를 이어 불교를 신앙할 미래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세대 전승이 확고해지고 있는 현재 한국 종교지형에서 미래 부모가 될 세대들을 불교로 유입시키는 것은 큰 과제 중 한다. 또한 적극적인 세대 간 포교도 이뤄져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절로 사찰에서 신행활동을 한다. 사찰 신행활동이 자기 계발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이는 종단적인 과제이며, 기존 사찰의 운영구조를 바꿔 젊은 세대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社說

화쟁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가 3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19일부터 4기 활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출범 이후 화쟁위는 대사회적 역할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간 불교 내부 갈등에는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고, 올해 들어서는 사실상 대외 활동이 없이 무기력함으로 일관했다.

조계종은 화쟁위 4기 활동을 앞두고 6월 28일 '화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개정안의 골자는 그동안 이분화 돼 있었던 '화쟁위원'과 '기획위원' 체제를 '화쟁위원'으로 통합해 역량 및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화쟁위원도 15인에서 21인으로 늘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화쟁위 조직의 개편과 외연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중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런 변화에도 법적 권한이 없는 화쟁위의 갈등 조정 역량을 높이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화쟁위의 위치도 불분명하다. 현재 불교 갈등에 대한 대중 여론 수렴은 사부대중 대중공사에서 맡고 있고, 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성소수자 등 사회 갈등 문제를 종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사실상 갈등 조정 기구로서 화쟁위의 위치가 애매모호해진 것이다.

2010년 불교계 안팎의 많은 기대로 출범했던 화쟁위는 많은 성과를 보여줬고, 그만큼의 한계도 노정됐다. 이제 화쟁위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고민해야 한다. '말의 성찬'에 그치는 조정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로 변화해야 한다. 변화가 어렵다면 아예 기구 권한을 이양해 '발전적 해체'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청년불교운동에 새 전기 기대

민주화운동 이후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던 대한불교청년회가 신행결사를 통한 조직 결속력 강화에 나섰다. 오래 전 황금기에 있던 전폭적인 후원이 사라진 요즘,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살림살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만해정신'이라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넘어 신행결사를 바탕으로 대사회적인 울림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대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대불청은 지난 1998년 사단법인 등록 이후 대구지하철 참사 49재 추모행사·국제자원봉사 등 수많은 공익사업을 펼쳐왔다. 하지만 조직의 정체성인 '만해정신'을 사회적으로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불교개혁과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하나가 됐던 구성원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 흩어지고 말았다. 몸집이 작아지면서 불교·사회문제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은 당연지사였다.

100주년을 고작 4년 앞둔 대불청은 현재 변변한 회관조차 없이 청년불교운동을 펼치고 있다. 전법회관에 자리한 현 사무실마저도 보전금 명목으로 1억을 담보한 채 사용하고 있다. 발전기금을 모연하고 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대중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걸 대불청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이제서라도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100세를 달리 부르는 상수(上壽). '병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미 오랜 시간 홍역을 앓은 대불청이다. 비 온 뒤 땅이 굳듯 부디 미약했던 과거를 돌이켜 청년불교운동 중흥에 앞장서 과거 황금기처럼 당당해질 날이 오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우)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바람 마중지봉

스리랑카 성지순례

Sri Lanka 같이 갑시다!



세계유일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탑.



아름다운 호수 위에 부처님치아 봉안한 불치사원 전경.

■ **여 행 일 자** : 2016년 **8**월 **22**일(월) ~ **8**월 **29**일(월)까지 **7박 8일**

■ **접 수 마 감** : 2016년 **7**월 **22**일(금)까지 (항공좌석 관계로 선착순 마감)

■ **대사님설명회** : 스리랑카대사관에서 대사님과 대사관직원들이 브리핑(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 대사관 참석못한 분, 여권복사,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팩스신청 Fax (02)738-2046, 카톡신청 (ID : bangpil, 010-8987-2045) 가능

■ **국 빈 급 대 우** : **★ 국가에서 보호하는 종정스님 예방**
★ 특별인연공덕없인 부처님치아사리탑 친견 불가능 (왼쪽사진 참조)
★ 바쁜여정에 특별히 맞이하여 주시는 대통령님 예방

스리랑카 아름다운 섬나라 인도양 남쪽 섬 전체가 초록색의 시원한 야자수 나무로 뒤덮혀 있고 푸른 쪽빛의 바다로 둘러 싸였다. 그리고 자연의 다양한 과일, 더위를 식혀주는 킹코코넛, 망고, 홍차 등 동양의 진주, 루비, 사파이어, 캣츠아이 등 45종류 보석이 생산된다.

스리랑카는 생전에 부처님께서 다녀간 곳으로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불치사원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세상에 가장 신선한 성전(사찰)이다. 부처님 치아사리가 안장된 사리탑이 말없이 말로 법문을 설하시고 있다. 세계 불교도들이 불치사를 숭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유일의 부처님치아사리를 봉안한 국가는 오직 스리랑카 뿐이다. 특별 인연 공덕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부처님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전 내소에 접견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바람 마중지봉 스리랑카 성지순례단은 대덕 큰 스님들 께서 특히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신 밀운 대종사님께서 스리랑카에 많은 인연공덕을 쌓아 그 덕분에 순례단이 내소에 들어가 부처님의 치아가 모셔진 사리탑 전을 친견하는 불자로서 최고의 영광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국가에서 철저히 보호하는 종정스님을 친견하고 금상첨화로 특별히 대통령을 예방하고 돌아오는 영광된 성지순례에 동참하여 주신다면 그 공덕으로 성불할 기회가 있으며, 귀 가정에 삼보의 축복이 자연히 내려질것을 의심치 말라.

※여유있기를 기다린 후 무엇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럴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불자라면 살아 생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부처님 치아사리가 모셔진 탑전에 참배하고 온다면 그 이상 영광이 아닐수 없다.



국빈급 대우받는 큰빛바이오 대표 옥광주.



국가에서 보호하는 캔디 불치사 말와두 종정 친견.



대종사 밀운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스리랑카 대통령을 순례단이 예방. 법사 방필석.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바람 마중지봉 순례란?

마중지봉(摩中之蓬)이란 "삼밭에 나는 쑥"이라는 뜻으로 곧은 삼밭 속에서 자란 쑥은 구부러진 쑥도 삼밭에 나면 저절로 곧게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선한 사람, 좋은 사람들 그리고 부처님치아사리를 모신 탑전을 가까이 친견하면 자석이 물체를 끌어들이듯 그 영향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 마음이나 행동이 바람직하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바람의 뜻은 바람은 세계 어딜 가도 막힘 없듯이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하시는 사업도 그와 같느니라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문의 02-735-8259, 010-8987-2045 계좌번호 : 농협 053-02-155065(예금주 : 방필석)

협조 : 성지순례전문 혜초여행사 상무 이진영 (02-733-3900)

주최 _ 한 · 스리랑카문화교류협의회